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변박(卞璞)의 <왜관도(倭館圖)> 연구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미술사학 전공
조 윤 희

국문초록

1783년에 제작된 <왜관도(倭館圖)>는 지금은 사라진 초량왜관(草梁倭館) 및 대일(對日) 관계 시설이 명칭과 함께 상세하게 표현된 그림이다. 작품의 주제인 조선 후기 왜관(倭館)은 조선 땅에서 유일하게 일본인의 거주가 허용된 공간으로 일본과의 무역 및 외교 업무가 이루어진 곳이었다. 조선 후기 대일 관계 중심지를 시각화한 <왜관도>는 조선에서 단독으로 제작된 초량왜관 그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작품이다. <왜관도>와 관련하여 그림의 제작자인 변박(卞璞, 18세기 중·후반 활동)과 1783년 여름이라는 제작 연대만 남아 있을 뿐 그 외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왜관도>는 선행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선행 연구에서 이 작품은 18세기 후반의 번성한 초량왜관 및 그 일대를 그린 관수회화(官需繪畫)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술사적 시각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왜관도>의 의의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변박은 동래무청(東萊武廳)에 소속되어 화가로 활동했는데 현재 <왜관도>를 포함하여 10점의 그림 및 글씨를 남겼다. 그의 서화(書畫) 작품들은 관청 및 재지(在地) 세력을 위한 작품 외에도 초량왜관에서 교역을 통해 건너간 대일 교역용 회화도 있었다. 변박의 작품은 대부분 주문을 받아 제작되었는데 이를 통해 그가 관의 명령이나 주문에 따라 일했던 화가였음을 알 수 있다.

변박이 제작한 작품들 중 <왜관도>는 그가 꼼꼼한 필치로 상당히 공들여 그린 그림이다. 1802년에 편찬된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의 기록에 근거하면 <왜관도>에 18세기 후반의 초량왜관 및 주변 시설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변박은 그림에 나타난 거의 모든 건물에 명칭을 병기하였는데 그는 초량왜관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관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초량왜관을 포함한 대일 관계 시

설의 시각화이다. <왜관도>는 설문(設門)을 경계로 하여 초량왜관과 대일 관계 시설들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 일본과의 외교 및 무역을 위한 장소들만 그려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1740년에 편찬된 『동래부지(東萊府誌)』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읍지(邑誌)에 초량왜관을 포함하여 그림에 묘사된 장소들이 ‘초량공해(草梁公廨)’로 분류되어 있다. 이 기록은 당시 그림에 나타난 건물들이 별도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왜관도>는 초량공해를 시각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1725년에 제작된 『봉래수창록(蓬萊酬唱錄)』에 수록되어 있는 동래부를 그린 그림은 18세기 초 동래 지역의 회화 전통을 보여준다. 이 그림과 <왜관도>를 비교해보면 <왜관도>에 나타난 산과 소나무의 표현 방식에서 정선(鄭敼, 1676-1759)의 산수화풍이 드러난다. 이는 <왜관도> 이전의 작품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변박은 공무(公務) 또는 여행을 목적으로 동래부를 방문한 인문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선의 화풍을 배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인물들 중 변박이 참여한 1763-64년 통신사(通信使)의 수행 화원이었던 김유성(金有聲, 1725-?)과 당시 여행 중에 동래부를 방문했던 김윤겸(金允謙, 1711-1775)이 주목된다. <왜관도>에 나타난 산수 표현은 1770년에 김윤겸이 영남(嶺南) 일대를 여행한 뒤 그린 《영남기행화첩(嶺南紀行畫帖)》 중 <몰운대(沒雲臺)>와 유사하다. 또한 이러한 산수 표현은 변박 이후에 활동한 동래 지역 화가들의 작품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그의 산수화풍이 19세기까지 이 지역에서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듯이 <왜관도>는 초량왜관을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초량왜관이 1678년에 준공될 때부터 1876년에 개항(開港)되기 전까지 조선과 일본에서 각각 초량왜관과 관련된 그림이 제작되었다. 현재 이 작품들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남아있다. 먼저 조선에서 제작된 초량왜관 그림은 군현 지도를 제외할 경우 <왜관도>를 포함하여 세 점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일본에서 제작된 초량왜관 그림은 지도,

두루마리, 병풍 등 형식이 다양한데 전시 도록 및 선행 연구에서 11 점이 확인된다. 조선과 일본에서 제작된 초량왜관 그림과의 비교는 <왜관도>의 특징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왜관도>는 동일한 형식의 조일(朝日) 양국 그림들 중에서 가장 자세한 초량왜관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왜관도>에서 주목할 부분은 1780년 화재로 소실된 서관의 동대청(東大廳) 서행랑(西行廊)이 온전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문자가 당시의 상황과 상관없이 초량왜관을 완전하게 그리도록 요구한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황은 그림이 제작될 때 별도의 목적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당시 동래부와 초량왜관과 관련된 기록들은 그림의 제작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1783년 2월경 심기태(沈基泰, 1728-?)는 정조의 명으로 약 3개월간 암행어사로 영남 지역에 파견되었다. 18세기 중엽부터 공작미(公作米)와 관련된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정은 이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통제하지 못했다. 따라서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문제의 발생으로 인해 조정은 이 지역에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왜관도>가 제작될 무렵 심기태의 업무 수행과 조정의 관심은 초량왜관을 둘러싼 문제라는 점에서 그림의 제작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1789년에 김응환(金應煥, 1676-1759)과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이후)는 대마도(對馬島) 지도를 그려오라는 정조(正祖)의 명을 받았다. 이 때 동래부에서 일어난 일들 및 통신사 파견에 관련된 외교 문제로 인해 중앙의 관심이 이 지역으로 증대되었다. 이는 정조가 화원(畫員)을 파견하여 대마도 지도를 그려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관도>는 조일(朝日) 교류의 중심지였던 초량왜관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그림이다. 동래부는 일본을 마주한 중요한 관방(關防) 및 선린(善隣) 외교의 장소였기 때문에 조정은 대내외적으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다. 1783년을 전후로 대일 무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들은 중앙에서 초량왜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며 <왜관도>는 이러한 정황 속에서 제작된 그림으로 볼 수 있다.

주요어 : 왜관도(倭館圖), 변박(卞璞, 18세기 중반 활동), 초량왜관(草梁倭館), 초량공해(草梁公廨), 동래부(東萊府), 암행어사(暗行御史), 공작미(公作米)

학 번 : 2013-20066

목차

I. 서론	1
II. 변박(卞璞)과 <왜관도(倭館圖)>	7
1. 동래(東萊) 지역 화가 변박(卞璞)과 그의 작품 활동	7
2. <왜관도(倭館圖)>: 초량공해(草梁公廨)의 시각화	16
III. <왜관도(倭館圖)>의 회화적 특징	31
1. 『봉래수창록(蓬萊酬唱錄)』의 동래부(東萊府) 그림과 <왜관도(倭館圖)>	31
2. 초량왜관(草梁倭館)을 그린 조일(朝日) 양국의 그림	38
IV. 1783년 <왜관도(倭館圖)>의 제작과 그 의의	55
1. 초량왜관(草梁倭館)의 화재와 초량공해(草梁公廨)의 시각화	56
2. 1783년 영남어사(嶺南御史)의 파견과 동래부(東萊府)	58
3. <왜관도(倭館圖)>의 제작과 그 의미	66
V. 결론	74
참고문헌	77
도판목록	85
도판	88
Abstract	108

I. 서론

1783년(正祖 7)에 제작된 변박(卞璞, 18세기 중·후반 활동)의 <왜관도(倭館圖)>는 지금은 사라진 초량왜관(草梁倭館)과 대일(對日) 관계 시설이 명칭과 함께 상세하게 표현된 그림이다(도 1). 그림에 그려진 초량왜관은 조선 땅에서 유일하게 일본인의 거주가 허용된 공간이었다.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던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조선을 방문한 일본인은 공식적으로 상경(上京)이 금지되었다. 따라서 조선은 동래부(東萊府)에 왜관(倭館)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일본과 외교 및 무역 업무를 수행하였다.¹⁾ 초량왜관은 1678년(肅宗 4)에 준공된 이후 1876년(高宗 13)에 일본에 의해 전관거류지(專管居留地)가 설치되기 전까지 조선과 일본의 외교 및 무역을 담당한 공간이었다.²⁾

- 1) 왜관은 조선 전기부터 존재했는데 일본인 사절을 위한 객관(客館)에서 출발하였다. 부산포(釜山浦)와 웅천(熊川)의 내이포(乃而浦, 薺浦) 및 울산의 염포(鹽浦)에 설치되었는데 임진왜란을 계기로 폐쇄되었다. 이후 대일 외교와 무역이 재개되면서 현재 부산 지역에만 왜관을 설치하여 무역과 외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1601년에 절영도(絶影島)에 왜관이 설치되었으며 1607년에는 두모포(豆毛浦)로 이관하였다. 두모포왜관 입지의 문제로 인해 일본이 이건(移建)을 요청하면서 1678년에 초량왜관이 준공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왜관이 여러 차례 이전하였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의 왜관을 통틀어 지칭 경우는 ‘왜관’으로 표기하며 초량왜관만을 의미하는 경우 ‘초량왜관’으로 쓰도록 하겠다. 왜관의 설치 및 운영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 참조. 장순순, 「近世 東아시아 外國人 居住地의 특징 - 부산의 草梁倭館과 長崎의 出島를 중심으로」, 『전북사학』27(2004), pp. 45-76; 田代和生, 정성일 옮김, 『왜관: 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논형, 2005).
- 2) 1868년(高宗 5)에 메이지유신(明治維新)으로 일본 막부(幕府) 체제가 무너지면서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 이 때 조선에 대한 일본의 외교가 변화됨에 따라 일본은 이전에 유지해온 조일(朝日) 외교 체제를 부정하였다. 1872년(高宗 9)에 일본은 기존의 대마번(對馬藩)에 위임하여 외교와 무역을 진행했던 것을 거두었으며 초량왜관 접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여전히 이전의 교린 체제 내에서 일본을 이해하고 있었다. 양 측의 이해관계는 1876년(高宗 13) ‘조일 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가 체결되면서 근대적이 외교 체제로 변하게 되었다. 그리고 1877년(高宗 14) 1월에 ‘부산항거류지차입약서(釜山港居留地借入約書)’에 의해 조선시대 왜관이 근대의 거류지인 일본전관거류지(日本專管居留地)가 되었다. 그러므로 양국의 승인 하에 조약이 체결된 1876년을 기준으로 하여 초량왜관이 사라진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외교 변화에 따른 초량왜관의 일본전관거류지화와 관련된 논문은 다음의 연구를 참조. 장순순, 「草梁倭館의 폐쇄와 일본 租界化과정」, 『일본사상』7(2004), pp. 115-149; 相沙希子, 「부산항 일본인 거류지 연구 : (1876~1883)」(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왜관도>에 나타난 초량왜관 밖의 대일 관계 시설들 또한 눈에 띈다. 이 시설들 중 조선이 일본과의 외교 업무를 위해 설치한 초량객사(草梁客舍)와 연향대청(宴享大廳)은 초량왜관이 중건(重建)될 때 함께 조성되었다. 한편 초량왜관에 일본인이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일본과 무역을 할 때를 제외하고 일본인과 지역민의 접촉을 금지했다. 따라서 초량왜관 주변으로 일본인과 지역민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책인 복병막(伏兵幕)과 설문(設門)이 설치되었다.

<왜관도>는 이러한 대일 관계와 관련된 특수한 공간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림의 주제와 내용 및 제작 시기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또한 <왜관도>에는 그림이 제작될 무렵인 18세기 후반의 초량왜관 및 대일 관계 시설이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들은 별도로 초량공해(草梁公廩)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 공개된 『봉래수창록(蓬萊酬唱錄)』(1725년, 英祖 1)에 실려 있는 동래부를 그린 그림은 18세기 초 동래의 회화적 전통과 <왜관도>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정선(鄭敼, 1676-1759)의 화풍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왜관도>는 동래부에도 중앙의 화풍이 전래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한편 변박이 그린 <왜관도>는 조선에서 초량왜관과 그 일대를 단독으로 시각화한 유일한 작품이다. 전국 및 군현지도(郡縣地圖) 외에 초량왜관을 그린 그림들이 존재하지만 지도첩 또는 병풍의 일부일 뿐이다. 오히려 초량왜관을 그린 그림은 일본에서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일본에서 제작된 초량왜관 지도(地圖)들과 비교해보면 <왜관도>는 건축물과 산수의 표현이 꼼꼼하여 변박이 많은 공을 들였던 그림임을 알 수 있다.

<왜관도>와 관련하여 더욱 흥미로운 점은 작품의 제작 시기에 관한 것이다. <왜관도>가 그려졌을 때 이미 화재로 소실된 공간이 그림에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다. 1780년(正祖 4)에 초량왜관의 서관(西館)의 일부가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이 공간은 1786-87(正祖 10-11)년에 수리되었다. 당시 상황과 그림의 차이는 그림의 제작에 별도의 목적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때 영남 지역에 암행어사(暗行御史)가 파견된 사실은 작품의 제작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그림이 제작된 시기를 전후로 초량왜관과 동래부가 관심의 대상이 된 점은 <왜관도>가 중앙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왜관도>는 특수한 공간을 그린 중요한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간과된 측면이 있다. 이는 작품의 제작 시기와 화가 외에 그 배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작품 상단에 ‘倭館圖’라는 제목과 ‘歲癸卯夏寫’의 관기(款記)가 쓰여 있다. 그 왼쪽으로 ‘述齋’와 ‘卞璞’ 인장 및 판독이 불가능한 원형의 인장이 찍혀있다. 이는 그림과 관련된 유일한 정보이며 그림의 제작과 관련된 다른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왜관도>가 언급된 미술사 연구는 비교적 적지만 동래 지역 화단과 대일 회화 교류라는 두 가지 연구 흐름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동래 지역 화단 연구에서 변박은 동래부에서 가장 다양한 활동과 작품을 보여준 화가로 논의되었다.³⁾ 또한 변박의 활동과 작품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동래 지역 내에 존재했던 화가 집단과 그 작품들이 최근에 밝혀졌다.⁴⁾ 한일 회화 교류의 관점에서 조선 통신사(通信使) 사행단의 육로(陸路) 종착지이자 해로(海路) 출발지인 동래를 설명할 때 <왜관도>가 소개되었다.⁵⁾ 동래 지역 화단 및 한일

3) 김동철, 「倭館圖를 그린 卞璞의 대일 교류 활동과 작품들」, 『한일관계사연구』 19(2003), pp. 47-71; 이현주, 「조선후기재지화원소고(朝鮮後期在地畫員小考)-18세기 동래재지화원변박(東萊在地畫員卞璞)의 관수회화(官需繪畫) 연구」, 『文物研究』14(2008), pp. 165-211; 서운정, 「1764년 通信使의 繪畫活動과 그 交流」(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정은주, 「계미(1763)통신사행의 화원(畫員) 활동 연구」, 『정신문화연구』34(2011), pp. 333-369.

4) 이미야, 「十八世紀 朝鮮後期 眞景山水-부산지방을 중심으로-」, 『釜山廣域市立博物館 年報』13(1990), pp. 113-121; 「釜山·慶南地域 書畫家에 대한 一考察」, 『博物館研究論集』2(1993), pp. 207-214; 홍선표, 「조선후기 韓·日間 畫蹟의 교류」, 『미술사연구』11(1997), pp. 3-22; 박성희, 「朝鮮 後期 對日交易用 繪畫 研究 : 東萊 倭館 輸出畫를 中心으로」(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이현주, 「朝鮮後期 慶尙道地域 畫員 研究」(동아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조선후기 동래지역 화원 활동과 회화적 특성」, 『역사와 경계』83(2012), pp. 37-70 이성훈, 「海夫 卞持淳과 19세기 전반 동래 지역 화단」, 『美術史學研究』 278(2013), pp. 97-123.

회화 교류와 관련된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왜관도>는 관(官) 주도로 제작된 관수회화(官需繪畫)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미술사학계 외에도 사학 및 건축학계에서 초량왜관 관련 연구 참고 자료로 <왜관도>가 제시되고 있다. <왜관도>는 18세기 중·후반의 초량왜관이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전에 발견된 왜관 지도들과 함께 초량왜관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이용되고 있다.⁶⁾ 또한 초량왜관은 설립 이후 1876년까지 지속적으로 수리되었다. 초량왜관은 수리를 통해 초창기 건립 때보다 증축되었기 때문에 수리 규모, 동원 인력 및 물력 조달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왜관도>가 언급되고 있다.⁷⁾ 한편 부산 지역 지도 연구에서 <왜관도>를 확인할 수 있다.⁸⁾

-
- 5) 한일 회화 교류 연구는 조선통신사를 통한 회화 교류가 가장 대표적이다.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연구는 물론 많은 전시 도록 등에서 <왜관도>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연구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悅話堂 編, 『韓日交流二千年』(悅話堂, 1984); 국립중앙박물관, 『朝鮮時代 通信使』(삼화출판사, 1986); 佐賀県立名護屋城博物館 編, 『日韓交流の窓 : 釜山·蔚山·慶尙南道 歴史と風土の旅』(佐賀縣: 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 2000); 부산박물관, 『조선시대 통신사와 부산』(부산박물관, 2015) 등.
- 6) 초량왜관 복원 및 수리와 관련한 연구는 한·일 양국 내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夫學柱가 복원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초량왜관 복원 및 수리 실태와 관련된 연구가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다수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三宅理一, 夫學柱, 「倭館における港灣施設群の復元的研究」, 『學術講演梗概集. F-1. 都市計画, 建築經濟·住宅問題 1999』(1999), pp. 271-272; 鶴智子 外, 「近世釜山における草梁倭館の復元的研究 : その1 館守家指図の比較と編年」, 『學術講演梗概集. F-2. 建築·歴史 2000』(2000), pp. 357-358; 「近世釜山における草梁倭館の復元的研究 : その2 西館指図の比較と編年」, 『學術講演梗概集. F-2. 建築·歴史 2000』(2000), pp. 359-360; 夫學柱, 「近世釜山における草梁倭館の復元的研究 : その3 開市大庁指図の比較と編年(韓国·朝鮮·台湾, 建築歴史·意匠)」, 『學術講演梗概集. F-2. 建築·歴史 2001』(2001), pp. 209-210; 市川真光, 夫學柱, 「近世釜山における草梁倭館の復元的研究 : その4 館守家および開市大庁の位置的考察(東洋 韓国·中国, 建築歴史·意匠)」, 『學術講演梗概集. F-2. 建築·歴史 2004』(2004), pp. 575-576; 「近世釜山における草梁倭館の復元的研究 : その5 館守家の空間構成について(東洋 韓国·中国, 建築歴史·意匠)」, 『學術講演梗概集. F-2. 建築·歴史 2004』(2004), pp. 577-578; 夫學柱, 「近世日朝通交拠点「草梁倭館」に関する指図の比較とその編年」,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609(2006), pp. 147-154; 부학주, 김정동, 「초량왜관 건축과 역사적 경관 재현 연구」, 『건축역사연구』15(2006), pp. 81-98.; 윤삼근, 강동진, 「도시적 맥락에서의 초량왜관 흔적 분석」,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15(2014), pp. 125-147.
- 7) 장순순, 「朝鮮時代 倭館變遷史 研究」(전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김순일, 정예정, 「草梁倭館의 創建, 修理 및 重修에 관한 研究」, 『건축역사연구』

이러한 연구들에서 <왜관도>는 보조 자료로써 논의될 뿐 <왜관도>를 주제로 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다.

본 논문에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왜관도>에 대해 미술사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초량왜관과 관련된 문헌 기록 및 그림과의 비교를 통해 <왜관도>의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할 것이다. 기록의 부재로 정확한 주문자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당시 초량왜관과 동래부를 둘러싼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의 제작 배경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우선 <왜관도>를 그린 동래부 화가 변박과 그의 활동을 검토한 뒤 <왜관도>를 살펴볼 것이다. 18세기 후반 초량왜관 일대가 얼마나 정확히 <왜관도>에 그려져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량왜관과 대일 관계 시설이 함께 묘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공간들의 시각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왜관도>의 회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다른 그림들과 비교를 시도해 볼 것이다. 최근에 발견된 동래부를 그린 그림은 18세기 초 동래 지역의 회화적 전통과 <왜관도>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한편 <왜관도> 외에도 조선과 일본에서 제작된 초량왜관과 관련된 그림들이 양국에 남아 있다. 이러한 그림들은 기존 연구에서 별도로 소개된 적이 없어 <왜관도>와 함께 비교 작업이 필요하다.

IV장에서는 변박이 공들여 그린 <왜관도>가 왜 1783년(正祖 7)에 제작되어야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서관이 당시 소실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에 온전히 그려져 있어 이는 <왜관도>의 제작 맥락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783년에 영남 암행어사로 파견된 심기태(沈基泰, 1728-?)가 임무를 마친 뒤 올린 서계(書啓) 및 별단(別單)에 초량왜관과 관련된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이는 특히 18세

10(2001), pp. 35-54; 정예정, 「草梁倭館의 造營에 관한 研究」(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8) 김기혁, 『釜山古地圖』, 부산광역시, 2008; 「지역연구 자료로서의 부산 지도도 기초 연구」, 『釜山地理』9(2000), pp. 23-51; 「자료소개: 부산지역 고지도 연구」, 『항도부산』18(2002), pp. 391-454.

기 중반부터 대일 무역에서 두드러진 폐단인 공작미(公作米)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었다. <왜관도>의 제작과 어사 심기태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림이 중앙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왜관도>는 조선 후기 대일 관계와 관련된 특수한 공간들이 매우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품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왜관도>에 대해 미술사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한일 미술사 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II. 변박(卞璞)과 <왜관도(倭館圖)>

<왜관도(倭館圖)>는 1678년에 두모포(豆毛浦)에 있던 왜관(倭館)이 초량으로 이건(移建)되면서 세워진 초량왜관(草梁倭館)과 그 일대를 나타내고 있다. 약 33만 제곱미터(m²)에 이르는 초량왜관과 그 주변의 모습까지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 눈에 띈다. 이 그림은 동래부(東萊府)에서 활동한 변박(卞璞, 18세기 중·후반 활동)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늦게 그려졌는데 그의 회화적 역량이 돋보인다. 그림에 보이는 초량왜관과 그 주변 시설들은 기록에 따르면 창건 이후 지속적으로 수리 및 관리되었다. 따라서 변박이 <왜관도>에 1783년의 초량왜관 일대를 얼마나 잘 반영하여 그렸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 동래부 화가 변박의 활동과 <왜관도>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동래(東萊) 지역 화가 변박(卞璞)과 그의 작품 활동

변박은 조선 후기 중앙에서 파견되어 활동한 화사군관(畫師軍官)과는 달리 동래부를 중심으로 활동한 지역 화가이다. 지역 내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사군관 이외에도 지역 출신 화가들이 존재했는데 변박 또한 이러한 인물이다. 그는 동래 지역 화단의 특성상 다양한 성격의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주로 관(官) 또는 일본의 주문에 응하여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보인다.

1) 동래(東萊) 지역 화단과 변박(卞璞)

화사군관 제도가 마련되면서 중앙에서 파견된 화원들은 군관 또는 비장(裨將)과 같은 무임직(武任職)으로 있으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⁹⁾ 부산 지역 동래 좌수영(左水營) 또한 중앙에서 화원(畫員)이 파견되었다.¹⁰⁾ 동래 좌수영에 화사군관이 언제부터 파견되었는지 확

9) 1703-4년(肅宗 29-30)에 도화서(圖畫署) 화원(畫員)의 파견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지역의 감영(監營) 및 군영(軍營)과 수영(水營)에 화원을 한명씩 배치한 규정이 1785년(正祖 9) 『대전통편(大典通編)』에 법제화되었다. 화사군관(畫師軍官) 제도와 관련해서 다음의 논문을 참조. 이훈상, 「조선후기 지방 파견 화원들과 그 제도, 그리고 이들의 지방 형상화」, 『동방학지』144(2008), pp. 305-366.

신하기 어렵지만 이 제도가 18세기 중엽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음이 기록에서 확인된다.¹¹⁾ 좌수영에 파견되어 활동한 군관화사는 파견 지역의 지도(地圖) 제작 및 통신사(通信使) 파견과 관련된 회사(繪事)에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¹²⁾

화사군관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각 지방에 파견된 화사(畫師)는 1명이었기 때문에 화사군관이 지역 내의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각 지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에서 대안을 찾아야 했다. 동래부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물들을 회화 업무에 참여시켰다. 동래부는 변방(邊方)으로 군사적 요지였기 때문에 일반 군현(郡縣)들과 달리 국경 수비를 위한 다양한 군사 기구인 무청(武廳)이 설치되어 있었다.¹³⁾ 이곳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직제를 무임(武任)이라고 하였으며 무임직은 동래 지역민들이 주로 맡았다. 동래부는 무임직 중에 그림에 뛰어난 자를 화원으로서 임명하거나 그림에 재능이 있는 자를 무임직에 두어 회사(繪事)와 일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¹⁴⁾

10) 이훈상, 앞의 글(2008), pp. 308-309.

11) 1850년(哲宗 1)에 편찬된 『내영지(萊營誌)』에 의하면 당시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는 대솔군관(帶率軍官) 9명 가운데 화사 1명과 사자관 1명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이들은 백화당(百和堂)에서 거처하며 수사(水使)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었다 한다. 『(國譯)萊營誌』(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1), p. 26.

12) 좌수영에 파견된 화사는 통제영과 함께 통신사행 선박 제작에 참여하여 장식과 장막 설치와 관련한 작업에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신사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전별연(餞別宴)을 열 때에도 연회 장식 업무에 참여했을 것이다. 이현주, 앞의 글(2012), pp. 44-50.

13) 일반 군현의 경우 장관청(將官廳), 군관청(軍官廳), 작대청(作隊廳) 정도의 3청 정도가 설치되었는데 동래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무청의 수가 많았다. 동래부에는 중군청(中軍廳), 군관청, 교련청(教鍊廳), 장관청, 수성청(守城廳), 별기위청(別騎衛廳), 별무사청(別武士廳), 도훈도청(都訓導廳) 등 8청의 무청이 설치되어 있었다. 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의주(義州) 또한 동래와 마찬가지로 각종 무청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훈상, 민선희, 「조선후기 동래의 지배 엘리트와 이에 관한 고문헌 자료」, 『항도부산』10(1993), p. 28; 손숙경, 「조선후기 동래(東萊) 지역 무임(武任)집단의 조직과 운영」, 『사회와 역사』74(2007), p.259.

14) 도화서차견화원이 없는 지역은 그림에 능한 그 지역 토착 인물을 발탁하여 지방 관청에서 근무하게 하였는데 이현주는 이러한 화원들에 대해 '재지화원(在地畫員)', '재향화원(在鄉畫員)'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인물들은 지방 관청의 무임직을 맡으면서 지역 내의 회화 수요를 담당하였다. 이현주, 앞의 글(2008), p. 174; 앞의 글(2012), p.52.

변박을 비롯하여 변탁(卞琢, 1741-?), 이시눌(李時訥, 19세기 초중반 활동), 변지순(卞持淳, 1780년 이전-1831년 이후)과 같은 인물들이 동래무청에 소속되어 활동한 화가들이다. 이들은 동래부가 필요로 했던 지도와 기록화뿐만 아니라 대일(對日) 교역용 회화 및 재지(在地) 세력의 요청에 따른 감상용 회화 등 다양한 작품을 제작했다. 한편 대일교역용 회화를 그린 화가들 중에서 실명(實名)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작품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¹⁵⁾ 이들은 그림에 자신의 호(號)와 조선(朝鮮), 조선인(朝鮮人), 조선국(朝鮮國)과 같은 국적만 남겼기 때문에 이름이 남아있지 않아 이들이 실제로 동래무청에서 활동했는지는 알 수 없다.¹⁶⁾ 그러나 이들이 그린 그림들은 초량왜관에서 무역을 통해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래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인물들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래 지역 화단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한 인물이자 가장 유명한 인물이 변박이었다. 변박은 동래인(東萊人)이라는 기록을 볼 때 동래에 거주했던 인물로 생각된다.¹⁷⁾ 자(字)는 탁지(琢之), 호는 술재(述齋)이다. 생몰년에 관해서 직접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변박은 그와 동시대에 활동한 것으로 생각되는 변탁과 혼동되어 동일 인물로 간주되었다.¹⁸⁾ 변박은 니야야마 다이호(新山退甫, ?-1775)라는 사람과 오사

15) 대일교역용 회화에 대한 논의는 홍선표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통신사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에 있었던 왜관에서 무역을 통해 한일 회화 교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이와 관련하여 박성희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일본 내의 수요에 의해 주로 초량왜관에서 무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었던 그림들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하였다. 홍선표, 앞의 글(1997), pp. 6-8; 박성희, 앞의 글(2010), pp. 6-14.

16) 확인되는 무명화가들로는 槐園, 海翁, 君實, 浪士, 萊山庵, 老圃, 東齋, 晚翠, 明堂, 山水子, 三清款道人, 尙玄, 石山, 玉泉居士, 雲庵, 維明, 日華, 鄭惟河, 秋圃, 春圃, 翠庵, 脫翠, 荷潭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해 이름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박성희, 위의 글(2010), pp.46-63.

17) 『충렬사지(忠烈祠志)』와 조엄(趙曠, 1719-1777)의 『해사일기(海槎日記)』에 변박의 출신과 관련된 기록이 나타난다. 『忠烈祠志』, 卷 8, 「本府殉節圖序」, “邑寓人卞璞.”; 趙曠, 『海槎日記』, 卷 1, 10월 10일, “……璞是萊州人…….”; 趙曠, 『海槎日記』, 「三使一行錄」, “卞璞居東萊.” 『충렬사지』 번역은 정중환·김석희 공역, 『忠烈祠志』(충렬사안락서원, 1978) 참조. 『해사일기』 번역은 고전번역원 db 참조.

18) 변탁은 변박과 마찬가지로 동래무청의 무임직을 지낸 인물이었다. 자는 성지(成之)이며 호는 형재(荊齋)이다. 관직으로는 장관청(將官廳) 천총(千摠)과 초관(哨官),

카(大阪)에서 만나 관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기존 연구에서 두 인물이 같은 인물로 인식되어 변박이 관상을 봤다고 논의되었다. 변박이 사행 당시 관상을 볼 때 23세였다는 기록으로 인해 변박이 1741년(英祖 17)에 출생한 것으로 보았다.¹⁹⁾ 그러나 최근의 연구 성과에 의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인물임이 밝혀졌다.²⁰⁾ 따라서 변박의 출생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작품 제작 연대를 고려할 때 그는 18세기 중·후반 무렵 활동했다고 여겨진다.

변박은 화가로서의 활동과 동시에 동래의 무청의 각종 무임직을 수행하였다. 장관청(將官廳)의 천총(千摠), 별군관청(別軍官廳) 행수(行首)와 군기감관(軍器監官), 교련청(教鍊廳) 기지구기수초관(旗知穀旗手哨官), 별기위청(別騎衛廳) 별장(別將), 수첩청(手堞廳)의 별장(別將)과 같은 여러 직책을 맡았는데²¹⁾ 장관청의 천총, 별군관청 행수, 수첩청

별군관청(別軍官廳) 병방(兵房)과 별군관(別軍官), 교련청(教鍊廳) 기지구기수초관(旗知穀旗手哨官), 별기위청(別騎衛廳) 별장(別將), 수첩청(手堞廳) 별장(別將)과 백총(百摠), 집사청(執事廳) 집사(執事)를 역임하였다. 『해사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1763-64년 계미 통신사행에 조엄에 의해 격군(格軍)으로 참여하여 2기선장을 대임하였다. 변박 또한 그림에 능했던 인물로 생각되는데 통신사행 노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墨竹圖>가 일본에 전하고 있다. 이현주, 앞의 글(2011), pp. 128-129; 정은주, 앞의 글(2011), pp. 362-365.

19) 新山退甫, 허경진 옮김, 『한객인상필화(韓客人相筆話)』(지식을만드는지식, 2009), pp. 61-62.

20) 구지현은 기존의 연구에서 변박과 변탁을 동일 인물로 간주하여 『한객인상필담』의 기록을 통해 변박의 나이를 추론하는 것이 오류가 있었음을 수정하였다. 당시 통신사 정사였던 조엄의 『해사일기』와 사행 일행의 관상을 보았던 니이야마 다이호의 『한객인상필화』의 기록을 대조해보면 변박과 변탁이 다른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해사일기』에 따르면 변탁은 조엄의 신임으로 처음 격군으로 참여했다가 이후 2기선의 선장으로 승진하였으며 변박은 3기선장을 맡으면서 각종 회화 업무를 수행하였다. 통신사 사행단은 1764년 1월 20일에 오사카에 도착하였는데 1월 24일에 변박을 에도(江戸)로 수행하게 하였다. 에도로 간 사행단을 제외한 일부는 오사카에 잔류하고 있던 중 니이야마 다이호가 오사카에 있었던 변탁을 만났다. 니이야마 다이호는 3월 상순과 하순 두 차례에 걸쳐 변탁을 만남을 가졌다. 3월은 아직 에도로 갔던 사행단이 돌아오지 않았던 때이며 에도로 갔던 사행단은 4월 5일에 오사카로 돌아왔다. 따라서 사행 일정과 니이야마 다이호와의 만남을 고려할 때 변박과 변탁은 서로 다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지현은 변박이 1763-64년 사행에 대해서 쓴 것으로 보이는 『계미수사록(癸未隨槎錄)』에서 사행에 참여한 인물들을 적은 「동고록」에 변탁과 변박의 직임만 있을 뿐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두 인물을 서로 다른 인물이며 친족 관계라고 보았다. 구지현, 『계미수사록(癸未隨槎錄)』에 대한 재검토: 작가와 사행록으로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동방학지』13(2005), pp. 261-288; 정은주, 위의 글(2011), pp. 362-364.

의 별장은 각 무청의 최고직이었다.²²⁾ 그러나 변박은 실질적으로 군대를 통솔했던 무임의 최상급 직임인 중군(中軍)은 역임한 적이 없었다. 중군은 동래부의 재지 세력이었던 향반(鄕班)들이 대다수 차지했던 자리였다.²³⁾ 즉 변박은 동래무청에서 중군 아래 장관급의 직임을 주로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변박(卞璞)의 활동과 서화(書畵) 작품

변박은 동래무청 무임직을 맡으면서 회화 업무를 겸하였는데 그의 작품들은 대다수 주문을 받아 제작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변박의 서화(書畵) 작품은 10점이 있는데 이를 연대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²⁴⁾ 이 중 회화는 7점이며 나머지 3점은 글씨와 시이다. 2점의 글씨와 1점의 시는 변박이 문자에도 능했음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글씨는 관의 명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시는 그가 통신사에 사행을 갔다가 돌아오던 중에 쓴 작품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변박이 그린 <묵죽도(墨竹圖)>가 변박의 작품으로 인식되었으나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연구 견해에 따라 <묵죽도>는 변박의 작품으로 인정되었다. 변박이 그린 7점의 회화 작품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동래 지역 화단에서 제작된 회화들의 성격과 맥락을 같이 한다. 첫째는 관의 명령을 받아 제작된 기록화가 있다. 둘째는 통신사 사행 과정에서 제작된 그림과 동래에서 무역을 통해 전해진 대일 교역용 회화이다. 마지막으로 동래 지역 재지 세력의 취향이 반영된 감상용 회화이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21) 변박의 무임직 직위와 관련하여 언급한 김동철과 이현주의 논문에 별기위청 별장 직위가 누락되어 보충하였다. 손숙경, 이훈상 편, 『조선후기 동래의 武廳先生案과 武任 總攬』(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2009), p.161.

22) 김동철, 앞의 글(2003), p. 53.

23) 동래지역 무임직과 관련한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중반 이전의 무임 직제에 있어서 상급 무임 다수를 향반들이 차지 및 안배하였으며 이러한 직위를 가문 대대로 세습시켜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선희, 「朝鮮後期 東萊의 鄕班社會와 武廳: 朝鮮後期 鄕班社會의 支配構造와 社會移動問題에 대한 一試論」, 『역사학보』 139(1993.3), pp. 95-148.

24) 김동철, 위의 글(2003), p. 58; 이현주, 앞의 글(2011), p. 127; 정은주, 앞의 글(2011), pp. 358-362.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변박의 서화 작품 목록을 바탕으로 정리 및 보충하였다.

회화를 변박은 모두 제작했으며 변박의 서화 작품을 연대별로 살펴볼
도록 하겠다.

원활한 지방 통치를 위해 지도 및 기록화와 같은 공적인 회화들이
관의 명령을 받아 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임진왜란 때 순절(殉節)한
선열(先烈)들의 충의(忠義)를 기리기 위한 역사 기록화 제작은 동래부
의 중요한 사업이었다.²⁵⁾ 변박이 그린 <동래부순절도(東萊府殉節圖)>
와 <부산진순절도(釜山鎭殉節圖)>는 이러한 맥락에서 제작된 그림이
다(도 2, 3). 순절도(殉節圖)의 제작은 1658년(孝宗 9) 동래부사(東萊
府使)였던 민정중(閔鼎重, 1658.8-1659.3 재임)에 의해 고안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1709년(肅宗 35)에 동래부사 권이진(權以鎭,
1709.1-1711.1재임)에 의해 처음 순절도가 그려지게 되었다.²⁶⁾

그 후 홍명한(洪名漢, 1759.9-1761.9 재임)이 동래부사로 재임하면
서 <동래부순절도>가 해가 오래 되어 헤어져 훗날 알아볼 수 없게 될
까 우려하면서 변박으로 하여금 다시 그리게 하였다.²⁷⁾ <부산진순절
도>의 경우 작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홍명한이
「본부순절도(本府殉節圖序)」를 쓴 날에 「부산순절도서(釜山殉節圖序)」
를 남겨 <부산진순절도>는 <동래부순절도>와 같이 개모된 작품으로
여겨진다. 또한 두 작품의 화풍 및 크기, 재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보
아 변박이 동시에 두 작품을 그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변박이 그린
<동래부순절도>는 1709년에 원본이 그려질 때 작성된 권이진의 「화
기(畫記)」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변박의 스타일이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그림에 새로운 요소들을 첨가한 부분도
있어 변박의 초창기 화풍을 짐작할 수 있다.²⁸⁾

25) 이현주, 앞의 글(2008), p. 182.

26) 본 논문에서 동래부사의 경우 생몰년이 아닌 동래부사 재임 기간을 표시하였다.

27) 『忠烈祠志』 卷 8, 「本府殉節圖序」. 번역은 정중환, 김석희 옮김, 『忠烈祠志』(民
學社, 1978) 참조.

28) 1709년 「화기」의 텍스트와 <동래부순절도> 간의 차이가 보인다. 그 예로 양산군
수 조영규(趙英珪, ?-1592)는 「화기」에 따르면 그려지지 않았으나 <동래부순절
도>에서는 송상현 옆에서 객사에서 재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 외에
도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차이가 보이는데 이에 대해 조행리는 권이진이 그림 제
작을 추진할 때 그린 원본에 변박이 수정을 가하였거나 1709년과 1760년 사이에
개모되어 그 그림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조행리, 앞의 글(2010), p.
36-37.

동래 지역 회화 제작 양상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대일 교류 회화의 제작이다. 이러한 그림들은 일본에 방문한 통신사 사절 또는 초량왜관에서 교역을 통해 일본으로 그림이 전해졌다. 변박은 두 방면에서 모두 대일 교류 회화를 제작하였다. 1763-64년(英祖 39-40) 정사 조엄(趙曠, 1719-1777)이 이끄는 사행에 기선장(騎船將)으로 참여하여 에도까지 수행하였다.²⁹⁾ 변박이 사행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사 조엄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엄이 쓴 『해사일기(海槎日記)』에 변박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변박이 문자에 능하며 그림을 잘 그려 통신사행에 데리고 왔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아마 조엄이 동래부사로 재임한 적이 있어(1757.12.29.-1759.1.10. 재임) 변박의 화명(畫名)을 알고 있었던 탓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763-64년 사행은 조선시대 통신사 중에서 일본 본토로 들어가는 마지막 통신사였다.³⁰⁾ 통신사 사절단은 일본으로 갈 때 수행화원을 1명 데려갔는데 이 때 수행화원은 김유성(金有聲, 1725-?)이었다.

수행화원이 있었지만 변박은 일본에서 김유성과 함께 서화 시재(試才)에 참여하여 은자 5매를 받았다.³¹⁾ 또한 조엄은 변박에게 사행 도중에 대마도와 일본 지도를 구하여 모사하게 하거나 수차(水車)와 풍경을 그리게 하였다.³²⁾ 당시 기록 등을 통해 변박이 사행 과정에서 많은 그림을 그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확인되는 그림은 <송하호도(松下虎圖)>와 <묵매도(墨梅圖)>가 있다. <송하호도>는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에 부기(附記)된 내용으로 보아 1764년 3월

29) 趙曠, 『海槎日記』 卷 1, 1763年 10月 10日 癸巳, “……璞是萊州, 而能文字善寫畫, 以三騎船將率來者也.” 趙曠, 『海槎日記』 卷 3, 1764年 1月 24日 丙子, “……三騎將卞璞, 以能畫與都訓導相換. 隨行於江戶.”

30) 가장 마지막 통신사행은 1811년 통신사였는데 이 통신사는 대마도까지만 갔다.

31) 趙曠, 『海槎日記』, 「騎射書畫時分銀記」, “軍官六員各三枚, 馬才二人各三枚, 上判事三員各二枚, 小童三人通事三名各一枚, 寫字官二人, 畫員一人, 卞璞各五枚, 使令奴子等處合四枚.”

32) 趙曠, 『海槎日記』 卷 1, 1763年 10月 10日 癸巳, “……得馬州地圖及日本印本地圖, 使卞璞模寫, 璞是萊州人…….” 趙曠, 『海槎日記』 卷 3, 1764年 1月 27日 己卯, “……城外有水車二座, 狀如纜車, 逐波自轉, 酌水注桶, 灌入城中, 見甚奇怪, 使別破陣許圭都訓導卞璞…….” 趙曠, 『海槎日記』 卷 5, 1764年 6月 8日 戊子, “朝晴晚雨夜大電雨注西南風, 留壹歧島船上, 所經水陸各站, 名山大川中有勝景處, 曾使卞璞模畫之, 草本多未成者, 故使之在前, 詳加釐正, 亦可謂消寂之一端矣, 夜大雷雨數時, 舟人咸以爲潦後雷電, 此是快霽之兆云, 而亦何可必也.”

에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도 4).³³⁾ 그림에는 소나무 아래에 호랑이가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호랑이 그림은 일본에서 있기 있었던 주제로 왜관 교역을 통해 일본으로 전해진 구무품(求貿品) 중 하나였다.

다른 그림으로 <묵매도>가 있는데 대나무 사이 구부러진 매화나무 한 그루가 그려져 있다(도 5). 나무에서 뺏은 가지가 하늘로 치솟아 있으며 그 사이에 매화꽃이 소박하게 피어있다. 그림 좌측 하단의 관기(款記)로 보아 1764년 여름 일본에서 그린 그림으로 생각한다.³⁴⁾ 상단에 시가 적혀 있는데 그 필치가 낙관에 쓰인 것과 동일하여 제시(題詩) 역시 변박이 쓴 것으로 보인다.³⁵⁾ 한편 변박은 문자에도 능하여 사행 과정에서 시도 지었다. 통신사 사절이 귀국길에 올라 돌아오던 중 1764년 3월 20일 세이켄지(淸見寺)에 머물 때 문자에 능한 인물들이 글을 썼다.³⁶⁾ 변박 또한 이 때 「제청견사용전운(題淸見寺用前韻)」이라는 시를 남겼다(도 6).³⁷⁾ 이 시는 통신사로 갔다 돌아오면서 세이켄지의 절경을 보며 석별의 심정을 읊은 것이다.³⁸⁾

통신사 사행에서 뿐만 아니라 동래 지역에서는 일본과의 교역을 목적으로 회화들이 제작되었다. 회화 교역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남아 있는 작품들을 볼 때 중앙 화가 및 동래 지역 화가들이 교역용 회화를 다수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³⁹⁾ 변박의 작품 중 타카마쓰시(高松市) 호넨지(法然寺)에 소장되어 있는 <유하마도(柳下馬圖)>는 그가 대일 교역용 회화도 제작했음을 알려주는 예이다(도 7). 그림의 관기로 보아 1779년 여름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버드나

33) 이원식 外, 「朝鮮通信使關係有形文化財目錄」, 『靑丘學術論集』21(1991), p. 70. “寶曆十三甲申三月相州大越宿御書休之節朝鮮人上々官畫之.”

34) 부산박물관, 『書畫 = Paintings and calligraphy from Busan museum's collection : 부산박물관 소장』(부산박물관, 2016), p. 201.

35) 그림에 적힌 제시는 다음과 같다. “雪後寒梅雨後山/看時容易畫時難/早知不入時人眼/多買臙脂畫牧丹.” 위의 책(2016), p. 201.

36) 趙曦, 『海槎日記』卷 4, 1764年 3月 20日 辛未.

37) 변박이 지은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地接三山界/天低萬里波/禪家元勝總/槎客暫經過/詩意春花在/羈愁夕照多/徘徊還惜別/惆悵更如何.” 김동철, 앞의 글(2003), p. 63.

38) 김동철, 위의 글(2003), pp. 63-64.

39) 홍선표, 앞의 글(1997), pp. 6-8.

무 가지 아래 서 있는 말의 모습은 『고씨화보(顧氏畫譜)』 중 한간(韓幹)의 <마도(馬圖)>와 유사하다.⁴⁰⁾

변박이 그린 감상용 회화는 한 작품이 확인되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되어 있는 <임수아집도(臨水雅集圖)>이다(도 8). 변박의 작품에 일반적으로 관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작품 제작 연대와 작가를 알 수 있는데 이 그림만 관기가 없어 제작 연대를 알 수 없다. 《화원별집(畫苑別集)》에 있는 이 그림은 화면에 찍힌 ‘卞璞’ 인장 외에는 그림과 관련된 정보가 없다. 폭포를 배경으로 소나무 아래 앉아 있는 3명의 인물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 2명은 각각 금(琴)과 축(軸)을 들고 있으며 다른 인물을 차를 마시고 있다. 그 옆에는 시동이 차를 들고 서 있다. 이 그림에 나타난 인물 표현은 『개자원화전(芥子園畫傳)』의 「人物屋宇譜」에서도 보인다.⁴¹⁾ <임수아집도>는 변박의 필치가 돋보이는 그림은 아니지만 <유하마도>와 같이 화보의 영향이 보인다는 점에서 그가 화보를 습득했음을 알 수 있다.

변박은 동래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음이 그가 쓴 글씨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1765년(英祖 41) 겨울에 동래독진대아문(東萊獨鎭大衙門) 현판 글씨를 썼다. 이 현판은 동래부 동헌(東軒) 앞에 있었던 외삼문(外三門)의 횡액(橫額)이다. 동래독진대아문은 동래가 경상좌병영(慶尙左兵營) 휘하 경주진영에서 독립하여 동래독진이 되었음을 뜻한다. 현판에 ‘卞璞’이란 낙관이 있어 글씨를 쓴 인물이 변박임을 알 수 있다.

<사처석교비(四處石橋碑)>에서도 그의 글씨를 엿볼 수 있다(도 9). 이 비석은 1781년(正祖 5)에 동래부의 남문 밖 네 곳의 목교(木橋)를 석교(石橋)로 바꾼 일을 기념하여 건립된 비이다. 비의 내용에 따르면 나무다리는 2년마다 수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⁴²⁾ 따라서 모금을 하여 돌다리로 바꾸고자 하였

40) 홍선표, 앞의 글(1997), p. 6.

41) 서윤정, 앞의 글(2005), p. 41.

42) 사처석교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府之南門外 有木橋四處 每一二歲一改 而費出於民 民病之 久矣 嘉善姜謂聖發謨 言宜改以石 人皆善之 遂與朴道裕朴師仁等四五人 赴緣境內 轉勤募財 以代石于山 府伯李侯文源 損俸 俾卽盡運 橋卽成 民頌侯之德 請紀于石 且冀後之念 今隨圯輒改 使斯民永賴焉 故迺書如此/崇禎三年

는데 부사 이문원(李文源, 1780.1-1780.8 재임)이 자신의 녹봉을 기부하였다. 다리가 완성되자 민들이 이문원의 덕을 칭송하며 비석에 그 덕을 새겨 후일까지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나무다리가 무너진 자리에 돌다리로 고쳐 세웠으니 백성들이 덕을 보게 되어 비에 기록해 둔다고 하였다.

<사처석교비>가 세워진 경위와 이문원의 덕을 기리는 내용이 비에 쓰여 있는데 비문은 홍신유(洪愼猷, 1722-?)가 지었다. 그 옆에 ‘幼學卞璞書’라는 기록을 통해 변박이 글씨를 썼음을 알 수 있다. 1765년에 동래독진대아문의 현판을 쓸 때와 달리 이 <사처석교비>의 글씨를 쓸 때 ‘幼學卞璞書’라고 쓴 점이 특이하다. 신분상의 이동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무청의 최고직인 중군을 맡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지 세력만큼의 큰 신분 이동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변박의 작품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변박은 무임직으로 활동하면서 회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화가로서 재능을 인정받아 관수회화 및 대일 교역용 회화는 물론 감상용 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변박의 작품은 기록이 없어 판단이 어려운 감상용 회화 1점 외에 모두 관 또는 일본의 주문을 받아 제작되었다. 특히 10점의 서화 작품 중에서 절반이 동래부의 명령을 받아 제작된 점이 주목된다. 즉 그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주문에 따라 움직이는 화가였다고 할 수 있다.

2. <왜관도(倭館圖)>: 초량공해(草梁公廨)의 시각화

초량왜관은 조선에서 유일하게 일본인의 거주가 허용된 공간이었다. 외국인이 체류했던 특수한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초량왜관은 금녀(禁女)의 공간이었으며 무역을 하거나 담당 관리들이 출입할 때를 제외하면 지역민의 출입이 불가능하였다. 동래부는 지역민과 일본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주변에 설문(設門)의 설치와 같은 통제책들을 마련하였다. 또한 일본에서 외교 사절이 방문할 때 일을 쉽게 진행할

辛丑三月 日/前成均館典籍 洪愼猷記/幼學卞 璞書/緣募 金秀泰/秋遇堅/” 번역은 「사처석교비」, 『부산금석문』(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02), pp. 135-136 참조.

수 있도록 근방에 초량객사와(草梁客舍)와 연향대청(宴享大廳)을 세웠다. <왜관도>에 이러한 초량왜관과 대일 관계 시설이 모두 그려져 있는데 이는 <왜관도>가 ‘초량공해(草梁公廨)’라는 별도로 관리된 공간을 시각화한 그림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초량왜관(草梁倭館)의 중건(重建) 및 수리

초량왜관은 창건 이후 <왜관도>가 제작되기 전까지 105년 동안 지속적인 수리를 통해 관리된 공간이었다. 초량왜관의 전신이었던 두모포왜관(豆毛浦倭館)의 공간적 한계로 인하여 1640년(仁祖 18)부터 초량왜관 이건(移建) 교섭이 시작되었다.⁴³⁾ 새로운 부지(敷地) 선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1673년(顯宗 14) 9월에 초량으로 왜관 이전(移轉)이 확정되었다.⁴⁴⁾ 1673년 선창(船艙)의 석축(石築)이 완성된 것을 시작으로 3년에 걸친 공사 끝에 1678년 4월에 초량왜관이 완공되었다. 초량왜관은 일본인의 거주를 위한 공간이었지만 조일(朝日) 양국 모두가 참여하여 건물을 지었다. 건물들 중에서 동관(東館) 일부 및 서관(西館) 조영(造營)을 조선이 담당하였다.⁴⁵⁾ 그 외의 건물들은 일본이 직접 지은 것으로 왜측사조가사(倭側私造家舍)에 해당된다. 따라서 초량왜관은 조선과 일본이 협업(協業)을 통해 준공되었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의 건축 양식이 혼합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초량왜관은 중건 이후 개항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수리되었다. 바다에 근접한 위치상의 조건으로 건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약 25년을 주기로 정기적인 수리를 했는데 이 수리를 대감동(大監董)이라고 한다.⁴⁶⁾ 또한 화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소실되거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 퇴락한 경우에 했던 부분적인 보수(補修)는 소감동(小監董)이라고 하였다.⁴⁷⁾ 초량왜관은 중건 이후 대감동과 소감동 모두 포함하여 21차례 수리되었다.⁴⁸⁾ 기존 연구에서는 1696년(肅宗 22),

43) 『邊例集要』 卷 11, 「館宇」, 庚辰(1640年).

44) 『邊例集要』 卷 11, 「館宇」, 癸丑(1673年).

45) 서관의 중대청 가운데 일부를 일본인이 덧 지은 것이 있으나 주요 조영 주체는 조선이다. 『邊例集要』 卷 11, 「館宇」, 丙辰(1676年).

46) 장순순, 앞의 글(2001), p.108; 정예정, 앞의 글(2001), p.62.

47) 장순순, 위의 글(2001), p.108; 정예정, 위의 글(2001), p.62.

1721년(景宗 1), 1745년(英祖 21), 1772년(英祖 48), 1801년(純祖 1)에 요청된 5회의 수리가 대감동이었으며 그 외의 16회는 소감동으로 논의되었다.⁴⁹⁾ 초량왜관의 대감동과 소감동은 초량왜관의 수리뿐만 아니라 증축(增築)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므로 <왜관도>에는 그림이 제작된 1783년 전까지 4회의 대감동과 5회의 소감동이 시행된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⁰⁾

2) <왜관도(倭館圖)>의 내용

<왜관도>는 평행 사선형의 구도로 남쪽 해안에서 한 눈에 내려다보듯이 그려져 있다(도 1). 주지하듯이 그림의 제목은 ‘왜관도’이지만 당시 일본과 관련된 시설들이 모두 묘사되어 있다. 이 공간들은 초량왜관 담장을 경계로 중심부에 위치한 초량왜관과 그 위의 대일 관계 시설 및 통제책이 있는 산으로 분리될 수 있다. 초량왜관 서관 담장 일부와 항만 시설 일부가 잘려져 있지만 초량왜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왜관도>에 초량왜관 안과 밖에 있는 거의 모든 건물에 명칭이 병기되어 있어 눈에 띈다. 그림에서 56개의 건물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표 2]에서 보듯이 1802년에 역관 김건서(金健瑞, 1743-?)에 의해 편찬된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의 「관우(館宇)」기록과 거의 일치한다.⁵¹⁾ 또한 각각의 건물의 크기가 다르게 그려진 점으로 보아 변박은 건물을 그릴 때 실제 건물의 크기를 반영하여 꼼꼼하게 그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건물 표현에서 나타나는 자세한 정보는 변박이 초량왜관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변박은 동래무청에 소속되어 무임직을 맡으면서 초량왜관에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

48) 초량왜관 수리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증정교린지』와 『변례집요』에 기록되어 있다. 金健瑞 等 編, 『增正交隣志』, 卷 3, 「館宇」; 禮曹 典客司 編, 『邊例集要』, 卷 11, 「館宇」.

49) 장순순, 앞의 글(2001), pp. 111-112; 정예정, 앞의 글(2001), pp. 63-64.

50) 수리 요청 시기를 기준으로 대감동은 1721년, 1745년, 1772년이며 소감동은 1680년, 1708년, 1725년, 1733년, 1764년에 해당한다. 장순순(2001), 위의 글, p. 111; 정예정, 위의 글(2001), p.63.

51) 정예정, 위의 글(2001), p 72. 표는 김동철, 앞의 글(2003), p. 61 <표 3> 참조.

제로 『전객사일기(典客司日記)』 1781년 3월 5일의 내용에 따르면 그는 춘사일(春社日)에 일본인이 구왜관(舊倭館, 두모포왜관) 뒷산 선조성묘(先朝省墓)할 때 남행(濫行)이 없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기록이 있다.⁵²⁾ 이 기록을 통해 변박은 초량왜관에 출입할 수 있었으며 초량왜관과 그 곳에 거주했던 일본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무 수행은 그가 초량왜관과 그 일대를 시각화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⁵³⁾

그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선 <왜관도>와 관련된 유일한 정보인 관기와 인장부터 보도록 하겠다(도 1-1). 그림 우측 상단에 ‘倭館圖’라는 제목과 제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歲癸卯夏寫’가 적혀있다. 옆에 그림을 그린 작가를 알 수 있는 ‘卞璞’, ‘述齋’ 인장과 판독이 어려운 원형의 인장이 찍혀있다. 이 인장은 그림이 그려진 당시에 찍혔을지 아니면 그 후에 찍혔을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판독이 가능한 관기와 인장을 통해 변박이 계묘년(癸卯年) 여름에 이 그림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이 계묘년이 언제인지에 대해 그림에 그려진 건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변박이 18세기에 활동한 인물임을 고려할 때 18세기 계묘년은 1723년(景宗 3)과 1783년(正祖 7)에 해당된다. 그림의 상단에 ‘북복병(北伏兵)’이라는 글자가 병기된 건물이 보이는데 이는 초량왜관 담장 밖에서 일본인을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북병막(伏兵幕)이다(도 1-2). 이 북복병은 원래 남2복병(南二伏兵)이었는데 1760년(英祖 36)에 영남 어사(御史) 이담(李潭, 1723-1775)에 의해 이전되었다.⁵⁴⁾ 따라서 그림에 1760년에 설치된 북복병 그려져 있어 계묘년은 1783년이다.

<왜관도>에 돌담장이 둘러져 있는 부분이 초량왜관이다(도 1-3). 이 돌담은 높이가 6자로 둘레가 1273보이다. 원래는 흙으로 쌓았으나 1709년(肅宗 35)에 돌담으로 개축하였다. 초량왜관은 가운데 용두산

52) 『各司臚錄』 卷 92, 「典客司日記」 第 29, 1781. 번역은 이현주, 앞의 글(2008), pp. 181-182 참조.

53) 이현주, 앞의 글(2011), pp. 143-144.

54) 『增正交隣志』 卷 3, 「館宇」.

(龍頭山)을 경계로 하여 동관과 서관으로 나뉜다.⁵⁵⁾ 동관은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와 무역이 이루어졌던 공간으로 일본인들이 장기 체류했던 곳이었다(도 1-4). 동관에 초량왜관의 공식 출입문이었던 수문(守門)이 있다. 그 옆으로 외교 및 무역 업무와 초량왜관 운영과 관련된 건물들인 동향사(東向寺), 재판가(裁判家), 개시대청(開市大廳), 전어관가(傳語官家), 대관가(代官家) 등이 있다. 개시대청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무역이 열렸던 장소이다. 재판가는 양국의 외교 교섭 업무를 담당했던 곳이다. 그 옆으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독립 건물이 초량왜관을 통솔했던 관수(館守)가 머물렀던 관수가(館守家)이다. 이 세 건물은 동관 삼대청(東館三大廳)이라 불렸으며 창건 당시 조선이 공사를 담당하였다.

동관의 위쪽으로 실무를 위한 공적인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다면 아래쪽으로 장기 체류자들의 거주를 위해 마련되었던 공간이 그림에 그려져 있다. 이러한 건물들로는 선인가(船人家), 당가(糖家), 면가(麵家), 염가(染家), 다다미가(多多味家), 점석가(簞席家), 조포가(造泡家), 주방(酒房), 병가(餅家) 등이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인들의 생활을 위한 공간들이었다. 이는 아마 초량왜관 내에 거주하면서 일본인들이 필요에 따라 건물들을 세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아래로 돌담장에 작은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은 초량왜관에 머무는 일본인이 사망한 경우 대마도로 시신을 보낼 때 사용되었던 부정문(不淨門)이다. 동관의 오른쪽으로 선창(船艙)이 있으며 배가 정박해있는 것이 보인다. 선창의 밑에는 지금은 없어진 용미산(龍尾山)이 그려져 있으며 남쪽 바다에 향해하고 있는 배도 보인다. 관수가 옆으로 신당(神堂)과 붉은 색으로 칠해진 도리이(鳥居)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인들을 위한 신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용두산을 넘어가면 동관보다 비교적 작은 서관이 있다(도 1-5). 서관은 일본에서 건너온 외교 사절이 방문했을 때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공간이었다. 장기 체류자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관에

55) 초량왜관 내 건물 명칭은 조선과 일본 측이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조선 내에서도 한 건물을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건물 명칭에 대하여 <왜관도>에 적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비해 서관의 건물은 비교적 간단하다. 서관은 세 개의 대청(大廳)과 여섯 개의 행랑(行廊)으로 그려져 있는데 각 대청에 두 개의 행랑이 배치되어 있는 형식이다. 각 건물들은 남쪽부터 동대청(東大廳), 중대청(中大廳), 서대청(西大廳)으로 통칭 서관 삼대청(西館三大廳)으로 불리었다. 그 위쪽으로 연향대청(宴享大廳)으로 통하는 내북문(內北門)과 외북문(外北門)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다.

초량왜관 밖으로 넘어가면 산 주변에 대일 관계 시설과 일본인 출입 통제를 위한 통제책들이 보인다(도 1-6). 그림 우측 상단에서 내려오면 동래 지역민과 일본인들의 접촉을 통제할 목적으로 세운 설문(設門)이 있다(도 1-7). 이 설문은 1709년에 동래부사 권이진에 의해 설치되었다.⁵⁶⁾ 원래는 이곳에 조선인 마을인 초량촌(草梁村)이 있었는데 설문이 만들어지면서 초량촌을 문 밖으로 옮겼다. 이 때 새로 생긴 초량촌을 신초량촌(新草梁村)이라고 하였다. 설문은 초량왜관에 거주하거나 조선을 방문한 일본인이 문 밖으로 출입이 불가능함을 상징했던 문이었다. 또한 지역민이 무역을 위해서 초량왜관으로 가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지역민 또한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었다. 설문 아래에 임진왜란 후 상경이 금지되면서 일본 사신들이 조선에 방문할 경우 조선 국왕의 전패(殿牌) 앞에 숙배(肅拜)했던 초량객사(草梁客舍)가 있다(도 1-7). 초량으로 왜관이 이건하기 이전에는 부산진(釜山鎭)에 있었던 객사(客舍)에서 숙배를 했으나 초량왜관이 중건되면서 초량객사 또한 같이 건립되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조선 측 왜학역관(倭學譯官)인 훈도(訓導)와 별차(別差)의 근무처였던 성신당(誠信堂)과 빈일헌(賓日軒)이 보인다(도 1-8). 성신당과 빈일헌 외에 부속 건물들도 보이는데 초량왜관 업무와 관련된 각종 조선 측 건물들이다. 이곳은 임소(任所)라고도 불렸다. 아래쪽의 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면 꼬불꼬불한 고갯길이 보이는데 영선(營繕)고개이다. 영선고개가 있는 산이 영선산(瀛仙山)으로 이 해안에 초량왜관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에게 제공된 땔감을 보관했던 시탄고(柴炭庫)가 있다(도 1-9). 반대편 산을 넘어 초량왜관 서관

56) 『邊例集要』, 卷 11, 「館宇」, 己丑(1709年).

담장 위에 일본 사절을 접대했던 장소인 연향대청(宴享大廳)이 있다(도 1-10). 연향대청은 1607년(宣祖 40)에 두모포왜관 안에 있었으나 초량왜관이 1678년 중건 될 때 같이 신축되었다.

초량왜관 내에 있는 일본인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할 목적으로 세워졌던 복병막도 보인다(도 1-2). 그림에 5개의 복병막이 보이는데 당시 설치된 복병막은 총 6개였다. 『증정교린지』에 따르면 복병막은 1716년(肅宗 33)에 초량왜관의 동, 서, 남쪽에 처음 설치되었다. 이후 동래부사 정형복(鄭亨復, 1686-1769)이 1739년(英祖 15)에 세 곳을 증설(增設)하였다. 1760년에 영남 어사 이담이 남2복병을 성신당 북쪽으로 옮겨 북복병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왜관도>가 제작될 무렵 초량왜관 주변에 있었던 복병막은 동1복병, 동2복병, 서1복병, 서2복병, 남1복병, 북복병이다. 그러나 그림에 서2복병을 제외한 5곳의 복병막만 보이며 서2복병은 그려지지 않았다.

<왜관도>를 전체적으로 볼 때 건축물과 함께 두드러진 시각적 표현은 산이다(도 1-6). 산이 많은 지역임을 알 수 있듯이 <왜관도>에도 산을 경계로 각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산이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다. 초량왜관 또한 용두산을 경계로 동관과 서관으로 나뉘어 배치되었다. 용두산은 일본 사람들에게 중산(中山)으로 불렸는데 산 전체에 소나무가 빼곡하게 그려져 있다. 서관 담장에도 겹겹이 표현되어 있는 소나무가 보인다. 한편 북쪽 담장 밖으로 복병막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복병산(伏兵山)이 있다. 그 위로는 엄광산(嚴光山)과 구봉산(龜峰山)을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산은 손을 깎지 낀 형상으로 가는 선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산 정상은 미점으로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산의 모습은 소나무로 뻗뻗하게 그려져 있는 용두산과 대조적이다.

<왜관도>에는 주변의 지형과 초량왜관 및 그 일대 건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물들도 그려져 있다. 그림에 묘사된 인물들은 거의 모두 일본인이며 초량왜관 안과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도 1-4, 1-5). 그림의 관기인 ‘歲癸卯夏寫’와 같이 그림의 계절적 배경을 보여주는 부채를 들고 있는 인물도 보인다(도 1-11). 이들은 초량왜관 내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교 업무로 방문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 인물 표현은 초량왜관이 일본과의 외교 및 무역을 위한 공적인 장소이자 동시에 거주 공간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⁵⁷⁾

많은 인물들 중에서 영선고개를 지나는 지계를 진 인물은 동래부에 살고 있던 동래부 지역민으로 보인다(도 1-12). 이 지역은 원래 지역민이 살던 곳이었는데 초량왜관을 중건하면서 마을을 설문 밖으로 옮겼지만 전답(田畠)은 그대로 두었다. 따라서 이곳에 전답이 있었던 지역민은 예외적으로 농사를 위해 설문 안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 그림에 지계를 지고 가는 인물 또한 이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⁵⁸⁾

3) 초량공해(草梁公廨)의 시각화와 그 의미

<왜관도>에 그려진 요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무엇보다도 이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은 초량왜관을 비롯한 대일 관계 시설들이 모두 그려진 점이다. 그림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그림 하단에는 초량왜관이 있으며 상단에는 있는 산 곳곳에 대일 관계 시설이 그려져 있다. 즉 그림에 초량왜관의 동관 및 서관 이외에도 연향대청, 초량객사, 성신당과 빈일헌 등 대일 관계 시설들과 설문, 복병막과 같은 출입 통제 시설이 함께 표현되어 있다.

그림에 초량왜관이 그려진 부분을 자세히 보면 공간의 부족으로 초량왜관 서관과 항만 시설 일부가 잘려져 있다. 그림이 표현된 공간상의 배치를 볼 때 설문부터 그림을 그리다 보니 초량왜관 전체를 다 그릴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화면에 설문에서 초량왜관이 있는

57) 일본 본토 내에서는 검약령(儉約令)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무명옷을 입도록 규제하였다. 그러나 초량왜관 내에서는 본토의 규정과는 달리 독자적인 규정이 있었는데 초량왜관 내에 거주했던 일본인은 비단옷의 착용이 허용되었다. 일본은 조선과 일본의 교류가 이루어진 초량왜관이 특별한 공간임을 의복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에 그려진 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의 소재를 규명할 수는 없지만 본토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었던 곳에서 초량왜관에 방문했던 일본인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옷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조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초량왜관 동관에 염가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초량왜관 내에서도 일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옷을 지어서 유통했을 것으로 보인다. 鄭銀志, 「草梁倭館にみる日本人の服飾」, 『アジア文化研究』33(2007), pp. 249-250.

58) 양흥숙, 「조선후기 왜관 통제책과 동래 지역민의 대응」, 『역사와 세계』37(2010), p. 140.

영역만 묘사된 점으로 보아 이는 변박이 의도적으로 초량왜관과 대일 관계 시설만을 시각화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왜관도>에 나타난 각 요소들은 조선 후기 일본과 외교와 무역을 위한 장소들의 시각화를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장소들이 당시부터 별도로 인식되었다. 1740년에 당시 동래부사 박사창(朴師昌, 1739.8-1741.1 재임)에 의해 편찬된 『동래부지(東萊府誌)』를 보면 ‘초량공해(草梁公廨)’라는 표현이 보인다. 『동래부지』의 ‘초량공해’ 항목에 따르면 ‘성신당(誠信堂), 별차청(別差廳), 출사청(出使廳), 통사청(通事廳), 훈별사령청(訓別使令廳), 급왜시탄막(給倭柴炭幕), 객사(客舍), 설문(設門), 왜관(倭館), 수문(守門), 연향대청(宴享大廳), 동마구(東馬廐), 동북병막(東伏兵幕), 서북병막(西伏兵幕), 남북병막(南伏兵幕), 서이북병막(西二伏兵幕) 남이북병막(南二伏兵幕)이 나열되어 있으며 각각의 중건 연대와 규모가 적혀 있다.⁵⁹⁾

초량공해 조(條)에 나열되어 있는 각각의 건물들을 분류해보면 성신당과 별차청, 출사청, 통사청, 훈별사령청은 임소(任所)에 있었던 건물들이다. 급왜시탄막은 <왜관도>의 시탄고이다. 왜관은 초량왜관이며 수문은 초량왜관의 수문이다. 연향대청과 동마구는 연향대청과 그 부속 건물로 생각되며 객사는 초량객사를 지칭한다. 설문은 그림과 동일하며 각 북병막은 1739년에 세 곳이 증설된 6개의 북병막으로 1760년에 남2북병이 북북병으로 이전하기 전의 북병막에 해당된다. 『동래부지』와 같은 읍지에 이러한 시설이 따로 분류된 것으로 보아 초량왜관과 그 일대 건물들은 초량공해라는 별도로 관리된 공간으로 이해되었다고 여겨진다.

초량공해는 대일 외교 및 무역을 위해 조성된 공간들의 집합을 뜻한다. 각 공간들을 각 성격에 따라 교류와 통제의 공간이라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⁶⁰⁾ 초량왜관은 임진왜란 후 단절된 국교가 재개

59) 『東萊府志』, 「草梁公廨」. 번역은 동래구지편찬위원회, 『東萊府志』(부산광역시 동래구, 1995), pp. 110-111.

60) 초량왜관의 장소적 의미에 대해 통제와 교류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를 참조. 김동철, 「조선후기 통제와 교류의 장소, 부산 왜관」, 『한일관계사연구』37(2010), pp. 3-36.

되면서 무역 및 외교 업무를 위해 동래 지역에 설치된 공간이었다. 초량왜관은 교류의 공간이지만 조선의 입장에서 일본은 경계의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조정은 초량왜관 내에 거주했던 일본인이 지역민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 한편 외교 업무를 위해 초량왜관 밖에 설치된 초량객사와 연향대청 또한 조선의 이중적인 입장을 잘 보여준다. 초량객사는 일본 사절의 상경이 금지된 이후 국왕의 전패 앞에 숙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조선 국왕의 권위를 상징했던 공간이었다. 연향대청은 조선에 방문한 사절을 접대하기 위한 장소로 외교적인 의미가 큰 공간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초량공해의 경계를 규정했던 설문은 지역민과 일본인의 출입을 차단했던 장소였다. 따라서 조선 후기 초량공해는 남쪽의 관방(關防)이자 선린(善隣) 외교의 장소인 동래부의 이중적인 위치를 잘 보여주는 곳이었다.

『동래부지』의 ‘초량공해’ 기록과 <왜관도>를 비교해보면 이 그림에 초량공해로 분류된 건물들이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왜관도>는 초량공해를 시각화한 그림이며 초량공해의 이중적인 성격이 반영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조선 후기 대일 관계에 대한 조선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왜관도>에 나타난 초량공해의 시각화는 동래지역 군현지도(郡縣地圖)에서도 확인된다. 아래의 [표 3]은 18세기부터 19세기에 편찬된 동래부 지도들 중에서 초량공해가 있었던 지역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표의 각 군현지도를 살펴보면 초량왜관을 비롯하여 설문, 초량객사, 임소, 연향대청이 함께 그려져 있다. 설문의 석축과 초량왜관의 담장 및 수문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눈에 띈다. 『동래부지』의 기록처럼 초량공해는 동래부 군현지도가 작성될 때에도 함께 표현되었던 중요한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왜관도>에 그려진 건축물을 비롯한 시각적 요소들을 분석해보았다. <왜관도>는 1783년 당시의 초량왜관을 중심으로 한 일대의 모습이 비교적 균형감 있게 그려진 것이 돋보이는 그림이다. 즉 <왜관도>는 변박이 상당한 지식을 바탕으로 꼼꼼한 필치로 그려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에 나타난 초량왜관과 그 주변에 있었던

대일 관계 시설들은 별도로 관리된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왜관도>
는 이러한 초량공해를 시각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변박(卞璞)의 서화(書畫) 작품

작품명	제작 시기	재질	크기 (cm)	소장처	관기(款記)	인장
東萊府殉節圖	1760년	絹本 彩色	145.0 x96.0	육군박물관		
釜山鎮殉節圖	1760년	絹本 彩色	145.0 x96.0	육군박물관		
松下虎圖	1764년 3월	紙本 水墨	123.3 x54.5	오사카 역사박물관	述齋/ 寶曆十三甲 申三月相州 大越宿御畫 休之節朝鮮 人上々官畫 之	述齋
題淸見寺用前韻	1764년 여름	紙本 墨書	33.5 x53.0	일본 시미지시 (淸水市) 세이켄지 (淸見寺)	歲甲申暮春 東華述齋卞 璞琢之走稿	述齋 卞璞 琢之
墨梅圖	1764년	絹本 水墨	101.0 x35.0	부산박물관	歲甲申孟夏 東華述齋寫/ 雪後寒梅雨 後山, 看時用 易畫時難, 早 知不入時人 眼, 多買臙脂 畫牧丹	神通/ 精金終躍 / 小窓明明 / 述齋/ 天生我才 心有用日 月
東萊獨鎮大衙門	1765년			부산 금강공원	歲乙酉冬書	
柳下馬圖	1779년	紙本 水墨	53.1 x27.8	일본 타카마쓰시 (高松市) 호넨지 (法然寺)	歲己亥初夏 東華述齋寫	述齋

四處石橋碑	1781년 3월			부산박물관	崇禎三辛丑 三月日幼學 卞璞書	
倭館圖	1783년 여름	紙本 彩色	131.8 x58.4	국립중앙 박물관	倭館圖 歲癸卯夏寫	述齋 卞璞
臨水雅集圖		紙本 水墨	28.2 x38.7	국립중앙 박물관		卞璞

[표 2] <왜관도(倭館圖)>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대비

왜관도	증정교린지	왜관도	증정교린지	왜관도	증정교린지
館守家	館守倭家	餅家	餅家	宴享大廳	宴大廳
東向寺	書僧倭家(東向寺)	船人家	船格倭主人家	供需	公須開
裁判家	裁判倭家	麵家		沙器庫	
傳語官家	通事倭家	糖家	白糖家	馬房	馬房
假傳語官家		藁索家	藁索貿易家	北伏兵	北伏兵
姻代家		神堂	神堂	東一伏兵	東一伏兵
鷹房	鷹房	三大廳	三大廳	東三伏兵	東三伏兵
開市大廳	開市大廳	六行廊	六行廊	西一伏兵	西一伏兵
所任廳	公代官倭家, 別代官倭家會計廳	外北門	北門	南一伏兵	南一伏兵
一代官家	公一代官倭家	內北門	內北門	設門	設門
代官家	公代官倭家	守門	守門	草梁客舍	客舍
醫家	醫倭家	別禁徒家	別禁徒倭家	誠信堂	
知掌官家	知掌官倭家 判掌官倭家	都禁徒家	都頭禁徒倭家	賓日軒	賓日軒
新二代官家	公三代官倭家 公下代官倭家	禁徒家	都禁徒倭家 中禁徒倭家 小禁徒倭家	柴炭庫	柴幕
舊二代官家		船倉禁徒家			雜物貿易家
新酒房	酒房	物禁徒家			
舊酒房		庫舍	公代官倭庫 別代官倭庫 送使倭庫藁索庫物貨庫		捕盜幕
藥材代官家	藥材貿易家	搜檢廳	搜檢廳		
燒酒家	燒酒家	船倉	船倉		
簞席家	簞席家	造泡家	造泡家		
多々味家	登每家	染家			

[표 3] 동래 군현지도(郡縣地圖)에 표현된 초량공해(草梁公廨)

<p><경주도회(慶州都會)>, 18세기 초, 규장각</p>	<p><해동지도(海東地圖)>, 18세기 중엽, 규장각</p>	<p><영남지도(嶺南地圖)>, 18세기 중엽, 규장각</p>
<p><광여도(廣輿圖)>, 19세기 초, 규장각</p>	<p><동래부산고지도(東萊釜山古地圖)>, 19세기, 국립중앙도서관</p>	<p><동래부(東萊府)>, 《군현지도(郡縣地圖)》, 1872년, 규장각</p>

III. <왜관도(倭館圖)>의 회화적 특징

II장에서는 동래부(東萊府) 화가 변박(卞璞, 18세기 중·후반 활동)의 활동을 살펴본 뒤 <왜관도(倭館圖)>에 당시의 모습이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본 장에서는 다른 그림과의 비교를 통해 <왜관도>가 초량공해(草梁公廨)를 시각화한 그림으로서 어떠한 회화적 특징이 나타나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18세기 초에 제작된 동래부를 그린 그림과의 비교는 이전의 동래부 회화 전통에서 볼 수 없었던 정선(鄭敼, 1676-1759)의 화풍을 변박이 적극적으로 구사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왜관도>가 초량왜관을 주제로 한 그림이라는 점에서 조선과 일본에 의해 제작된 다른 초량왜관(草梁倭館) 그림들과도 비교될 수 있다. 이는 조선과 일본이 초량왜관을 시각화하는 방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선에서 제작된 초량공해 시각화한 유일한 그림인 <왜관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봉래수창록(蓬萊酬昌錄)』의 동래부(東萊府) 그림과 <왜관도(倭館圖)>

<왜관도>는 초량공해를 주변 지형과 함께 세밀하게 그린 점이 큰 특징이다. 화면의 북쪽에는 산이 배치되어 있으며 남쪽과 동쪽에는 바다가 둘러싸고 있다. 이러한 자연 경관 속에 초량왜관 및 대일 관계 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건물을 그려내는 방식에서 <왜관도>는 <규장각도(奎章閣圖)> 및 <동궐도(東闕圖)>와 같은 궁궐 계획(界畵)에서 많이 사용된 기법인 평행사선부감도법이 사용되었다.⁶¹⁾ <왜관도>의 화면 구성 방식은 회화식 지도(繪畵式地圖)로 논의되고 있는 <전주지도(全州地圖)>(규장각 소장)⁶²⁾와 <진주성지도(晉州城地圖)>(국립진주

61) 박정혜, 「19세기 궁궐 계획과 <동궐도>의 건축 표현」, 『동궐』(동아대학교박물관, 2012) p.254-263.

62) <전주지도>는 전주부(全州府)를 그린 그림으로 지역 일대의 생략과 강조가 돋보이는 그림이다. 이 그림은 전라감사(全羅監司) 조현명(趙顯命, 1690-1752)이 읍성의 사문(四門)을 개축하여 초루와 웅성(甕城)을 새로 만든 이후의 그려진 것으로

박물관 소장⁶³⁾와 유사하다. 두 그림은 축(軸)으로 제작된 그림으로 산 또는 강이 주변을 둘러싸고 그 안에 도시 일대가 표현되어 있는 안정적인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왜관도>는 위와 같은 그림들보다는 비교적 좁은 지역을 그렸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화면 구성과 관련해서 참고할만하다.

뿐만 아니라 <왜관도>에 건물들과 함께 표현된 산수들은 기존의 동래 지역 회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8세기 초에 제작된 동래 지역을 그린 그림과 비교는 <왜관도>의 이러한 특징이 더욱 잘 나타난다.

1) 『봉래수창록(蓬萊酬唱錄)』의 동래부(東萊府) 그림

2016년 6월 제 140회 서울 옥션 미술품 경매에서 처음 공개된 『봉래수창록(蓬萊酬唱錄)』에 수록되어 있는 동래부를 시각화한 그림은 <왜관도>와 함께 동래 지역 화단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도 10). 이 그림은 동래부 일대가 중점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왜관

보인다. 또한 경기전(慶基殿) 북쪽에 조경묘(肇慶廟)가 1771년(英祖 47)에 건립되었는데 조경묘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1771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을 그린 화가와 관련해 김희성(金禧誠, 1710년대-1763년 이후)으로 논의된 바 있다. 바깥에 산과 성에 의해 이중으로 둘러싸인 전주 일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관청 건물들은 강조되어 그려져 있는 반면에 일반 민가는 작게 그려져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산수 표현에 공을 들였으며 만개한 나무에 꽃이 피어 있어 봄의 전주를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성 안 우측 하단에 있는 경기전 위로 학이 날고 있는 모습을 그려 상서로움을 더했다. 그 아래 오목대(梧木臺)에 전라도 관찰사 전주부윤(全州府尹)의 행차로 보이는 인물들의 모습을 그려 풍속적인 장면을 더했다. 박은순, 「문화 : 정보와 권력, 그리고 기억 : 19세기 회화지도(繪畫地圖)의 기능(機能)과 화풍(畫風)」, 『溫知論叢』40(2014), pp. 43-46.

63) <진주성지도>는 산으로 둘러싸인 진주성(晉州城) 일대가 그려져 있다. 관아 건물이나 향교(鄕校) 등은 푸른색을 더하여 일반 민가와 구분되어 표현되었다. 또한 남강에는 배를 타고 유람하는 선비들과 빨래하는 아낙들, 배로 뿔감을 나르는 인물들과 같은 풍속 장면이 가미되어 있다. “丙午二月 晉州城地圖”라는 기록으로 보아 선행 연구에 따르면 1786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안휘준은 이 그림의 제작연대에 대해 1846년으로 편년하였다. 정은주는 지도 위 민가와 관아, 성루 등의 옥우법이 일정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평행투시도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1786년으로 보았다. 안휘준, 「옛지도와 회화」,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효형, 1999), p. 213; 정은주, 「조선후기 繪畫式 郡縣地圖 연구」, 『문화 역사 지리』 23(2011), pp. 131-132.

도>가 제작되기 전 동래 지역의 회화 전통을 잘 보여준다. 이 그림은 서울 옥션에서 경매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서울 옥션 홈페이지와 『봉래수창록』과 관련된 연구에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지의 크기가 작아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그림과 관련하여 최근에 발표된 이현주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림을 살펴본 뒤 <왜관도>와 비교해보도록 하겠다.⁶⁴⁾

『봉래수창록』은 동래부 객사(客舍)인 봉래관(蓬萊館)에서 당시 동래부사(東萊府使)였던 조석명(趙錫命, 1724.8-1725.5 재임)을 중심으로 정석유(鄭錫儒, 1689-1756), 홍성(洪晟, 1702- 1778), 조준명(趙駿命, 1677-1732), 존각(存覺)이 모여 시문을 주고받은 내용을 그림과 함께 엮은 첩이다. 45.0x32.4cm 크기의 서화첩에 그림과 정석유가 지은 「봉래수창록서(蓬萊酬唱錄序)」, 조석명이 동래부의 동헌(東軒)인 충신당(忠信堂)에서 쓴 「제사(題詞)」, 시문 55수와 홍성이 쓴 「후기(後記)」가 실려 있다.⁶⁵⁾ 「서문」과 「후기」에 따르면 이 서화첩의 제작 목적을 알 수 있다. 1724년(景宗 4) 8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한 조석명과 가까운 사이였던 동래를 방문한 정석유와 조준명, 일본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동래부에 파견된 접위관(接慰官) 홍성, 범어사(梵魚寺) 승려였던 존각이 1725년(英祖 1) 3월에 봉래관에 모여 시문을 주고받았다. 『봉래수창록』은 홍성이 후기를 4월 상순(上旬)에 썼는데 이 무렵에 장황된 것으로 보인다.⁶⁶⁾ 조석명은 훗날 『봉래수창록』을 보면서 동래에서 보냈던 시절을 추억하기 위하여 이 서화첩을 제작하였으며 교유했던 네 집안의 자제들이 뒷날 볼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⁶⁷⁾

이 서화첩에 시문만이 아니라 동래부 일대를 그린 그림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봉래수창록』에 있는 이 그림에 대해 이현주는 동래부 객사인 봉래관을 중심으로 한 동래부 관아시설과 그 주변 경관을 그

64) 이현주, 「『봉래수창록』(附 「동래부치도」)에 관한 일고찰」, 『文物研究』30(2016), pp. 117-157.

65) 이현주, 위의 글(2016), p. 121.

66) 이현주, 위의 글(2016), pp.123-124.

67) 이현주, 위의 글(2016), p. 126.

린 것이라고 하였다. 이현주는 그림에 1731년에 동래읍성(東萊邑城)이 개축되기 이전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동래읍성이 묘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래부치도(東萊府治圖)>라 명명하였다.⁶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면 중앙에 동래부 관아(官衙) 건물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주변으로 민가(民家)가 뺏뺏하게 들어차 있다. 관아 시설과 민가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중 객사인 봉래관과 동래부사의 집무소인 충신당, 식파루(息波樓), 동래향교(東萊鄉校), 충렬별사(忠烈別祠) 등은 동래부의 중심 건물로 건물기둥에 주칠(朱漆)을 하였다. 또한 이 때 읍성이 없었던 관계로 남쪽에 홍살문(紅箭門)을 높게 세워 성문을 대신했던 것으로 보인다.⁶⁹⁾

그 주변으로 산과 모내기를 한 논이 그려져 있다. 그림에 논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동래 지역 곳곳에 위치한 산과 다리 등을 함께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하면 좌측 하단에 그려져 있는 다리는 아치형의 목교로 표현되어 있는데 광제교(廣濟橋)라고 한다. 이 다리는 1781년에 돌다리로 바뀌었으며 당시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사처석교비(四處石橋碑)>의 글씨를 쓴 인물이 변박이다. 동래부 건물들 사이로 곳곳에 수목이 표현되어 있는데 3월의 계절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우측 하단에 짐을 메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왜관도>보다는 작은 크기지만 건물들을 비롯하여 자연 경관을 비교적 정확히 나타내었다.

『봉래수창록』의 동래부 그림에 동래부 경관이 상세하게 재현된 점으로 보아 이현주는 이 그림을 동래부의 지형과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그렸다고 보았다.⁷⁰⁾ 즉 변박과 같이 동래에 거주하던 무임화사가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동래 지역 화단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이름이 확인되는 화가는 변박이다. 이 그림이 1725년에 그려진 점과 변박의 작품 중 마지막 작품이 1783년의 <왜관도>라는 점을

68) 이현주, 앞의 글(2016), p. 119 각주 2 참조.

69) 이현주, 위의 글(2016), p. 134.

70) 이현주, 위의 글(2016), pp. 133-139.

고려할 때 58년의 시간적 차이가 난다. 긴 시간적 차이 때문에 변박이 이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그림을 그린 사람은 변박 이전에 활동했던 무임화사로 생각된다. 이현주는 서문에서 이중관(李仲寬)이라는 인물에게 글씨를 부탁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중관이 그렸을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그림과 관련된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⁷¹⁾

2) <왜관도(倭館圖)>에 나타난 정선(鄭敼)의 산수화풍

『봉래수창록』의 동래부 그림은 임진왜란 당시의 전투를 그린 전쟁 기록화들을 제외한다면 1725년의 동래부 일대를 묘사한 이른 시기의 동래 지역 회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그림은 동래부 건물들을 화면 중앙에 배치하여 관아 건물들을 비교적 자세히 그렸다는 점에서 <왜관도>와 비교해 볼만하다. 평행사변형 구도를 차용한 <왜관도>와는 달리 동래부 그림은 정면에서 바라본 시점이 적용되었다. 건물을 그려냄에 있어서 <왜관도>가 비교적 더 정교하다.

두 그림의 가장 큰 차이는 산수 표현이다. 이현주는 『봉래수창록』에 수록되어 있는 동래부 그림에 정선의 수지법(樹枝法)이 적극적으로 구사되지는 않았지만 민가들 사이로 그려진 나무들 사이에서 정선의 스타일이 조금씩 나타난다고 보았다.⁷²⁾ 이미지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구체적인 수목의 표현 방식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왜관도>와는 산수 표현이 다를 수 있다. 동래부 그림이 그려졌던 시기는 동래 지역에 정선의 산수화풍이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정선의 화풍은 18세기 중반 이후 변박에 의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관도>는 산수를 그려냄에 있어 변박의 세심함이 엿보이는 그림으로 산과 소나무의 표현에서 정선의 영향이 간취된다. 이는 정선(鄭敼, 1676-1759)의 산수화풍이 지방에도 전해졌음을 시사하는 사례라

71) 이현주, 앞의 글(2016), p. 139.

72) 이현주, 위의 글(2016), p. 137.

고 할 수 있다.⁷³⁾ 변박이 정선의 화풍을 언제 배웠는지에 대해 그 시기와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의 활동을 통해서 추정이 가능하다. 동래 지역과 중앙의 접촉은 동래부사의 부임과 일본에서 사신이 와서 접위관(接慰官)이 내려올 때가 일반적이다. 그 중에서 회화가 유입된 가장 명확한 경로는 통신사(通信使) 사행 때 수행화원이 동행했던 경우이다. 통신사 수행화원은 에도까지 가는 과정에서 정사(正使) 등의 명령이나 일본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그림을 그렸다. 1763-64년 통신사 때 김유성(金有聲, 1725-?)이 수행화원으로 변박과 함께 일본으로 갔다. 김유성도 정선 화풍을 구사한 화가인데 도일(渡日) 과정에서 그린 <낙산사도>에서 그 영향을 엿볼 수 있다(도 11).⁷⁴⁾ 변박의 통신사 참여는 김유성과의 교류를 통해 중앙의 화풍을 배우며 시험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변박은 통신사 사행뿐만 아니라 동래 지역을 방문한 중앙 인물들과의 만남에서도 정선의 화풍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변박이 활발히 활동할 즈음에 동래를 방문한 김윤겸(金允謙, 1711-1775)에게서 찾을 수 있다. 김윤겸 또한 정선의 화풍을 수용하여 다양한 작품을 남긴 인물이다.⁷⁵⁾ 그는 진주목(晉州牧) 소촌찰방(召村察訪)으로 부임한 뒤 1770년 영남 지역을 여행하였다. 그는 부산과 함양, 합천 등 경남 일대를 담은 14폭의 《영남기행화첩(嶺南紀行畫帖)》을 제작하였다. 이 화첩에 영남 지역의 명소와 함께 동래 지역 명소인 태종태(太宗臺), 영가대(永嘉臺), 몰운대(沒雲臺)의 풍경이 그려져 있다.⁷⁶⁾

《영남기행첩》에 있는 부산 지역 그림 중 <몰운대>에 구사된 언덕과 나무 표현은 <왜관도>의 산수 표현과 상당히 유사하다(도 12). 겹겹이

73) 이성훈,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소장의 두 점의 <동래부사접왜사도> 연구」, 『東萊府使 : 충과信的 목민관』(부산박물관, 2009), p. 222.

74) 서윤정, 앞의 글(2005), pp. 10-11.

75) 김윤겸의 진경산수화에 관한 연구는 이태호, 「진재 김윤겸의 진경산수」, 『美術史學研究』152(1981) pp. 1-23 참조.

76)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영남기행화첩>>에 대한 연구는 동아대학교박물관, 『산수화·화조화』(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2014) 참조.

이어지는 산과 언덕을 중심으로 소나무와 나뭇가지는 담묵으로 처리되어 있다.⁷⁷⁾ 그러나 <왜관도>에 보이는 좀 더 짙게 칠해진 담묵과 잔 필선의 사용 및 소나무의 밀도는 두 그림의 차이를 보여준다.⁷⁸⁾ 변박과 김윤겸의 구체적인 만남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변박은 김윤겸이 영남 지역을 여행했을 때 교류하여 중앙의 화풍을 배울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봉래수창록』의 동래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정선의 화풍은 <왜관도> 이전 작품들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 화풍은 당시 동래 지역에서 최신 화풍이었다고 생각되며 <왜관도>에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되었다. 변박의 작품들 중에서도 작품의 주제와 그 성격으로 인해 변박이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왜관도>에 보이는 표현력은 이 때 변박이 정선 화풍에 대해 상당히 숙련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변박이 <왜관도> 산수 표현에서 사용한 방법들은 변박 이후에 동래 지역에서 활동했던 화가들에게서도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동래부사접왜사도(東萊府使接倭使圖)>가 있다(도 13). <동래부사접왜사도>는 산수 표현에서 변박과 유사한 점이 많아 화풍상의 특징으로 인해 변박의 작품으로 전칭되기도 했다.⁷⁹⁾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동래부사접왜사도>에서 드러나는 산수 표현을 살펴보면 양손을 모아 겹친 듯 보이는 산의 모습과 미점의 구사 및 소나무의 표현 방식은 <왜관도>와 유사하다.

19세기에 제작된 동래부 지도에서도 변박의 영향이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래부산고지도(東萊釜山古地圖)>와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래고지도(東萊古地圖)>를 그 예로 들 수 있다.⁸⁰⁾ 두 지도는 일반 동래부 군현지도와는 달리 산수 표현

77) 이성훈, 앞의 글(2009), p. 223.

78) 이성훈, 앞의 글(2009), p. 223.

79) 이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동래부사접왜사도>는 정선의 작품으로 전칭되어 왔는데 이후 진행된 연구들로 인해 19세기에 제작된 작품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영희, 「鄭敼의 東萊府使接倭使圖」, 『고고미술』129·130(1976), pp. 168-174.

80) 김성희, 「조선후기 회화식 지도와 회화」, 『미술사와 문화유산』5(2016), pp.

이 가미된 회화식 지도이다(도 14). 그 중 <동래고지도>를 살펴보면 깎지 낀 듯이 솟아오른 산과 미점의 사용이 산의 형세를 돋보이게 한다. 따라서 변박이 <왜관도>에 사용한 산수 표현 방식은 지속적으로 동래 지역 내에서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왜관도>는 초량공해가 있었던 지역을 산수와 함께 세밀하게 나타낸 그림이다. 1725년에 제작된 『봉래수창록』의 동래부 그림과는 달리 정선의 산수화풍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변박의 산수화풍은 19세기까지 지역 내에서 유행하였다.

2. 초량왜관(草梁倭館)을 그린 조일(朝日) 양국의 그림

<왜관도>의 시각적 특징은 초량왜관을 시각화한 조선과 일본의 다른 그림들과 비교할 때에도 나타난다. 초량왜관을 그린 그림은 군현 지도를 비롯하여 다수 전해지고 있다. 조선과 일본의 외교 및 무역 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양 국가에서 모두 초량왜관과 관련된 그림을 제작하여 소장하였다. 초량왜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삼포왜관(三浦倭館)과 두모포왜관을 그린 그림들도 남아 있다.⁸¹⁾ 1876년 개항 이전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한국과 일본에 현전하는 초량왜관 그림은 군현지도 및 전국 지도를 제외하면 14점 가량이 확인된다.⁸²⁾ 초량왜관은 1678년 준공 이후부터 1876년 개항 이전까지 약

122-124; 박은순, 앞의 글(2014), pp. 47-53.

81) 삼포왜관(동래 부산포, 웅천 제포, 울산 염포)이 그려진 그림은 신숙주(申叔舟, 1417-1475)가 저술한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래부산포도>는 왜관 건물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은 아니지만 왜관이 위치했던 장소를 그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왜관이 그려진 그림으로 언급되고 있다. 두모포왜관이 그려진 그림은 <부산포조감도>(75.0x99.0cm)이다. 당시 부산 지역 일대와 함께 구봉산(龜峯山) 아래 해안에 돌담으로 둘러싸인 곳이 현재 고관(古館)으로 불리는 두모포왜관이다. 조선 전기 왜관 지도 및 그림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 참조. 국립중앙박물관, 『朝鮮時代 通信使』(三和出版社, 1986); 이진희, 「釜山浦를 그린 朝鮮朝時代의 그림에 대하여」, 『韓國史學論叢』(探求堂, 1987), pp.870-876 김기혁, 앞의 책(2008), p. 222.

82) 초량왜관 그림은 동일한 이름이어도 서로 다른 작품이거나 한 작품이 여러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어떤 그림은 작품명은 있지만 도판이 제시되지 않아 다른 그림과 중복되는지 확인이 어려웠다. 이 외에도 개인 소장 등으로 인해 미확인된 작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작품 수를 제시하는

200여 년 간 존속하였기 때문에 초량왜관을 그린 그림이 가장 많다. 이 그림들 중에서도 변박의 <왜관도>는 조일 양국이 제작한 초량왜관 그림 중에서 가장 자세하며 정교하다.

1) 조선에서 제작된 초량왜관(草梁倭館) 그림

조선에서 초량왜관이 단독 주제로 표현된 그림은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세 점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왜관도>를 포함하여 국립진주박물관에 소장된 <동래부사접왜사도(東萊府使接倭使圖)>와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의 <왜관지도(倭館地圖)>가 있다(도 15). 18세기 중·후반에 그려진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왜관지도>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도별도인 《조선팔도지도》의 첫 부분에 <해운대>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림의 상태가 좋지 않아 구체적인 표현 방식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초량왜관과 그 주변만을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용두산(龍頭山)으로 생각되는 산과 초량왜관의 부속 건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위로 보이는 여러 개의 바위는 오륙도(五六島)로 보인다.⁸³⁾ 조선시대 지도의 경우 동래부 군현지도 내에 초량왜관이 그려졌던 것이 일반적이는데 <왜관지도>는 초량왜관이 따로 그려져 있어 예외적인 사례이다. 이 그림이 《조선팔도지도》에 왜 <해운대>와 함께 첫 부분에 수록되어 제작되었는지 불분명하다.

<동래부사접왜사도>의 경우 현재 세 점이 전하고 있는데 두 점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진주박물관에 나머지 한 점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東京國立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⁸⁴⁾ 세 점 모두 10폭 병풍으로

것 보다는 폭 넓은 가능성을 남겨두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도판이 확인되는 경우만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83) 김기혁, 앞의 책(2008), p. 354.

84) <동래부사접왜사도>와 관련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찾을 수 있다. 미술사는 물론 복식사, 대일 외교사, 음악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래부사접왜사도>와 관련한 미술사 연구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 최영희, 「鄭澈의 東萊府使接倭使圖」, 『고고미술』129·130(1976), pp. 168-174; 崔相振, 「東萊府使接倭使圖」의 再考-景觀描寫의 分析と年代推定の限界性を 中心に-, 『韓國言語文化研究』12(2006, pp. 39-64; 신남민, 「東萊府使接倭使圖屏 研究」(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성훈,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소장의 두

조선을 방문한 일본 사신 접대 장면이 그려져 있다. 세 작품에서 공통적인 장면은 동래부사의 행렬과 일본 사신의 초량객사(草梁客舍) 숙박 및 연향대청(宴享大廳)의 연향이다. 장면 구성에서 약간의 차이도 나타나는데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진주박물관에 소장된 두 작품의 제 1폭에는 동래읍성이 그려져 있다. 또한 국립진주박물관 소장본에만 유일하게 제 10폭에 초량왜관이 추가로 시각화되어 있다(도 13-1).

국립진주박물관에 소장된 <동래부사접왜사도>의 작품 연대는 제 1폭에 그려져 있는 동래읍성의 경관을 통해 알 수 있다. 1832년(純祖 32)에 편찬된 『동래읍지(東來邑誌)』에 따르면 동래향교(東萊鄉校)에 대하여 “옛날에는 성안 안령(鞍嶺) 아래에 있었으나 1813년(純祖 13)에 서쪽 성 밖으로 이건(移建)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⁸⁵⁾ 이 기록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동래부사접왜사도>의 제 1폭에 동래향교는 모두 동래읍성 밖 서쪽에 그려져 있다. 따라서 동래향교의 위치 변화로 인해 이 그림은 적어도 1813년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생각된다.⁸⁶⁾

국립진주박물관 소장본에 그려진 초량왜관은 작품 제작 연대에 근거할 때 19세기의 초량왜관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10폭에 그려져 있는 장면은 연향대청이 있는 뒷산에서 초량왜관을 내려다 본 모습이다. 조선 측이 연향대청에서 일본 사절을 접대하면서 산에 올라 내려다 본 경관이 제 10폭에 표현된 것일 수도 있다. 이는 남쪽 바다에서 내려다 본 초량왜관을 담은 <왜관도>와는 반대 시점이다. <동래부사접왜사도> 제 10폭은 <왜관도>보다 화면이 조금 작지만 비교적 정확히 초량왜관의 모습을 담아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초량왜관과 용두산이 보인다. 향만 시설에 배가 정박해 있으며 초량왜관 안과 밖에 일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이 그림에 표현된 인물의

점의 <동래부사접왜사도> 연구』, 『東萊府使 : 충과信的 목민관』(부산박물관, 2009), pp. 217-231; 김동철, 「'東萊府使接倭使圖'의 기초적 연구」, 『역사와 세계』(2010), pp. 69-103.

85) 김동철, 앞의 글(2010), pp. 74-75.

86) 신남민, 앞의 글(2007), p. 27-46. 이성훈, 앞의 글(2009), pp. 220-221.

수는 <왜관도>에 비해 적으며 인물 표현 또한 정적인 느낌을 준다. 그러나 제 10쪽에 주요 건물에 명칭이 병기되어 있는 점은 <왜관도>와 유사하지만 <왜관도>가 더 자세하다.

2) 일본에서 제작된 초량왜관(草梁倭館) 그림

현재까지 확인되는 초량왜관 그림은 대다수 일본에서 제작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한 작품만 제외하면 그림들은 대마도(對馬島) 및 일본 각지에 소장되어 있다. 개인 소장의 그림을 고려할 때 초량왜관 그림이 더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초량왜관이 일본 전관거류지(日本專管居留地)로 바뀌어서도 계속 그 일대를 그린 그림들이 제작되었다. 초량왜관이 개발 공사를 통해 부산항으로 바뀐 후에도 이곳은 지도로 제작되어 유포되었다.

일본에서 제작된 초량왜관 그림들은 초량왜관이 준공될 무렵부터 꾸준히 제작되었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의 형태 또한 배치도, 지도, 두루마리, 병풍 등 형식이 다양하다. 이 외에도 각 건물을 수리할 때 그려진 것으로 생각되는 평면도(平面圖) 또한 존재한다. 작품들이 여러 형태로 제작된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초량왜관은 일본인들이 외교 및 무역을 위해 일본에서 건너와 단기 또는 장기간 체류했던 곳이기 때문에 초량왜관 내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본인이 초량왜관을 방문한 후 돌아갈 때 기념의 목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다. 일본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11점의 초량왜관 그림은 이전에 독립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본 장을 빌어 제작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일본의 초량왜관 지도들과 <왜관도>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서로 비교해 본 뒤 <왜관도>의 특징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지도(地圖)

초량왜관이 그려진 그림들 중에서 지도가 가장 많이 남아 있다.

<초량지회도(草梁之繪圖)>, <부산화관준공도(釜山和館竣工圖)>(『宗家と朝鮮』), <부산화관준공도(釜山和館竣工圖)>(『(신편) 부산대관』), <초량왜관회도(草梁倭館繪圖)> 3점, <부산포초량화관대회도(釜山浦草梁和館大繪圖)>가 일본에서 제작된 초량왜관 지도들이다. 이 일곱 작품은 변박의 <왜관도>와 같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 본 초량왜관의 전경이 그려져 있다. 측량 지도인 <초량지회도>와 <초량왜관회도> 배치도 1점을 제외하면 두 가지 유형으로 지도들을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들을 살펴보면 우선 <초량지회도>는 초량왜관이 준공될 무렵 초량왜관의 규모와 그 경계를 측량한 지도로 여겨진다(도 16). 이 그림은 초량(草梁)으로 왜관(倭館)의 이건(移建)이 논의 되면서 그려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확인되는 초량왜관 그림들 중에서 가장 일찍 제작된 초량왜관 지도로 보인다. 지도의 제작 시기를 준공 이전으로 가정한다면 이 지도는 초량왜관 이전 논의가 처음 제기된 1640년에서 초량왜관이 준공된 1678년 사이에 만들어 졌다고 생각된다.

지도에 적색 선으로 초량왜관 부지(敷地)가 표시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에 용두산이 그려져 있다.⁸⁷⁾ 초량왜관 밖 주변 장소에 대한 설명들 또한 적혀 있다. 초량왜관이 위치한 육지에서 반대편 바다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내려다보듯이 지도가 그려졌다. 이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섬의 존재가 뚜렷하게 인식된다. 섬에 ‘牧ノ島’라 적혀 있는데 이 섬은 현재 부산 영도(影島)이다. 지도의 ‘瀬戸口二百間程’라는 기록을 볼 때 초량왜관과 영도 사이의 넓이는 200칸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 초량왜관을 조성할 당시 초량왜관과 영도 사이를 왕래하려 했던 계획을 세웠음을 의미한다.⁸⁸⁾

<초량지회도>를 제외한 나머지 그림들에는 모두 동쪽에서 바라본 초량왜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왜관도>가 남쪽에서 바라본 모습으

87) 佐賀県立名護屋城博物館 編, 앞의 책(2000), p. 72.

88) 양흥숙, 「조선후기 영도의 공간적 특성과 경관의 조성」, 『한국민족문화』 56(2015), p. 254.

로 표현된 점과 다른 부분이다. <왜관도>에 초량왜관 주변의 대일 관계 시설 및 통제책들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면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들은 주로 초량왜관 내부를 그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에서 제작된 초량왜관 지도들은 건물 명칭과 함께 그 규모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기도 하다. 이러한 지도들은 동일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비슷한 시기에 여러 개가 제작 되었거나 하나의 모본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모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도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는 <초량왜관회도(草梁倭館繪圖)>(260.2x162.4 cm)이다(도 17). 이 그림은 초량왜관 내부를 도식화 하여 간단하게 건물의 배치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각 건물의 배치와 함께 명칭이 기입되어 있으며 방위 및 길이가 적혀 있다. 용두산 및 용미산도 그려져 있는데 그 범위 내에 나무를 그리고 채색하여 산을 표시하였다. 또한 초량왜관 곳곳에 나무가 표현되어 있다. 그 밖의 대일 관계 시설들은 그려져 있지 않다. 이 그림은 배치도로 스케치에 가깝다. 초량왜관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는 담장이 석축인 것으로 보아 1709년 이후에 제작된 지도로 생각된다.

위의 <초량지회도>와 <초량왜관회도>(260.2x162.4cm)를 제외하면 나머지 다섯 작품은 각각 <부산화관준공도> 계열과 <초량왜관회도> 계열로 나눌 수 있다(도 18-도 23). 초량왜관 동관에 그려진 건물 수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두 계열의 지도들은 거의 같은 형태이다.

이 지도들은 그림에 그려진 요소들까지 동일하여 제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1709년에 돌담으로 개축된 담장이 그림에 나타나고 있어 지도의 제작연대는 1709년 이후이다. 초량왜관 밖에 설치된 5개의 북병막이 있는데 1716년에 처음 3개의 북병막이 설치된 후 1739년에 추가로 세 곳이 증설되었다. 또한 <부산화관준공도>를 보면 지도에 1742년(英祖 18)에 만들어진 오인통사옥(五人通詞屋)이 그려져 있다(도 18). <초량왜관회도> 계열 지도에도 오인통사옥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도들은 모두 1742년 이후에 제작된 지도로 생각된다.⁸⁹⁾

하한 연대와 관련해서 항만 시설에 보이는 빈번소(濱番所)가 <왜관도>에 1층으로 그려져 있지만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들에는 2층으로 표현되어 있다. 개항기 사진에서도 이 건물은 1층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들은 1783년 이전에 그려진 그림으로 생각된다.⁹⁰⁾ 이후에 언급할 19세기에 제작된 <조선도회>에도 항만 시설은 1층으로 그려져 있다. 즉 초창기에 빈번소는 2층으로 지어졌으나 이후 1층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에서 제작된 초량왜관 지도들은 18세기 중엽의 초량왜관이 묘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대 추정에 근거하여 일본에서 제작된 초량왜관 지도들 중에서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인 <부산화관준공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부산화관준공도>라는 명칭이 있는 그림의 경우 『宗家と朝鮮』과 『(신편) 부산대관』에서 각각 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宗家と朝鮮』은 1918년에 다카하시 쇼노스케(高橋章之助)가 경성에서 간행한 책이다. 또한 『宗家と朝鮮』에 수록되어 있는 지도는 『조선사학(朝鮮史學)』 제 2호(1926)에 <부산화관준공도>(26.0x18.0cm, 국립중앙도서관 영인본)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다(도 18, 19).⁹¹⁾ 『(신편) 부산대관』에 수록되어 있는 지도는 이 책에 초량왜관의 역사와 함께 <초량왜관 준공도(草梁倭館竣工圖)>라고 되어 있다⁹²⁾(도 20).

두 지도는 동시에 제작되었거나 먼저 한 작품이 그려진 뒤 그것을 베껴서 또 다른 그림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⁹³⁾ 그림의 중앙에

89) 田代和生, 앞의 책(2005), p. 70.

90) 三宅理一, 夫学柱, 앞의 글(1999), pp. 271-272.

91) 김기혁, 앞의 책(2008), p. 233.

92) 『(신편) 부산대관』은 1926년과 1934년에 각각 출판된 『釜山大觀』과 『新釜山大觀』을 번역 및 편집하여 발간한 책이다. 『釜山大觀』은 부산항 개항 50주년을 기념하여 당시 부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사진을 수록한 책이다. 그리고 『釜山大觀』에서 내용을 추가하여 출판된 것이 『新釜山大觀』이다. 『(신편) 부산대관』은 1934년에 간행된 『新釜山大觀』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문화교섭학연구단 편, 『(신편) 부산대관』(선인, 2010), p. 8.

93) 田代和生은 『宗家と朝鮮』에 수록된 <부산화관준공도>에 대해 제목에 왜관의 일본식 명칭인 화관(和館)을 사용하고 있는 점과 지형 및 건물의 묘사 방법 등을 볼 때 대마도 내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 田代和生, 정성일 옮김, 앞의 책(2005), p. 70. 『(신편) 부산대관』에 수록된 <부산화관준공도>는 흑백이므로 판단이 어렵지만 『宗家と朝鮮』에 수록된 지도와 동일한 그림이라는 점에서 대마도에

보이는 관수옥(館守屋)의 명칭 표기 방식과 같은 사소한 차이만 없다면 두 그림을 동일한 그림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지도의 좌측 상단에 ‘延寶六年七月 釜山和館竣工圖’라는 기록 때문에 두 지도는 초량왜관이 준공된 1678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석축과 오인통사옥 보이는 것으로 보아 1742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으로 생각된다.

두 지도는 제목이 적힌 방향을 기준으로 하면 북쪽 방향이 아래쪽에 위치하며 일부 건물에 적힌 명칭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동쪽이 아래쪽에 놓인다. 초량왜관의 동관(東館)과 서관(西館)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방위 표시와 함께 초량왜관의 범위가 기록되어 있다. 용두산과 용미산(龍尾山)의 모습도 보이며 항만 시설 옆에 초량왜관 건물에 대한 설명이 있다. 산과 나무의 표현이 지도처럼 간략한 기호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 밖으로 연향대청과 복병막(伏兵幕)도 그려져 있다.

다음은 두 번째 지도 유형인 <초량왜관회도>이다. 앞서 언급한 동명의 배치도를 제외하면 두 점이 있는데 크기는 각각 145.7x102.7cm, 155.0x105.0cm이다. 두 그림은 거의 동일한 그림이며 크기도 비슷하다. 전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조선시대 통신사 전시 도록에 <초량왜관도>로 『조선통신사회도집성(朝鮮通信使繪圖集成)』(1985)에는 <초량왜관지도(草梁倭館地圖)로 소개되었다(도 21).⁹⁴⁾ 후자는 개인 소장자의 그림이다(도 22).⁹⁵⁾

두 점의 <초량왜관회도>는 그림에 별도의 설명과 지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일본에서 제작된 초량왜관 지도들 중에서 가장 회화성이 높은 그림이다. <왜관도>에 비해 소략하지만 초량왜관과 함께 용두산과 용미산 주변의 산수가 비교적 잘 묘사되어 있다. 초량왜관 밖에 연향대청과 복병막이 그려져 있다. 두 지도에 모두 별지(別紙)를 덧대

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94)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1986), p. 78; 辛基秀, 『朝鮮通信使繪圖集成』(東京: 講談社, 1985), p. 106.

95)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朝鮮時代 通信使』에 개인소장 <초량왜관회도>에 대해서 소장자는 松浦英夫로 언급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위의 책(1986), p. 78.

어 용두산을 그렸는데 이 별지는 초량왜관을 그린 그림들 중에서 특이한 부분이다(도 21-1).⁹⁶⁾ <초량왜관회도> 지도들은 <부산화관준공도>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산화관준공도>보다 동관에 더 많은 건물이 그려진 점이 다르다.

지도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림은 도쿄대학교(東京大學) 사료편찬소(史料編纂所)에 소장되어 있는 <부산포초량화관대회도>이다(도 23). 그림에 ‘文政三庚辰正月高尾直応増補之大繪図, 正令在館時文政十二年己丑八月廿三日写之者也’, ‘明治十九年三月借陸軍省所藏図写之’라고 하는 주기(註記)와 ‘修史局’이라고 하는 인(印)이 있다. 1820(純祖 20)년에 증보(增補)하여 새롭게 작성된 것을 1829년(純祖 29)에 베키 육군성(陸軍省)이 소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886년(高宗 23)에 1월에 설치되었던 내각임시수사국 관계자가 같은 해 3월에 모사한 것이 본 지도로 생각된다.⁹⁷⁾ 그 후 이 지도는 1891년(高宗 28) 3월에 내무성에서 이관되어 ‘內務省引繼地圖292’로 현재까지 도쿄대학교 사료편찬소에 소장되어 있다.⁹⁸⁾ 지도에 용두산을 그린 종이가 덧대어져 있으며 두 점의 <초량왜관회도>(145.7x 102.7 cm, 155.0x105.0cm)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그 사본이거나 같은 모본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량왜관의 동관과 서관 및 그 주변이 묘사되어 있으며 초량왜관과 내부 시설의 규모와 설명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2) 두루마리(繪卷)

초량왜관이 시각화된 두루마리는 한국과 일본에서 제작된 초량왜관 그림을 통틀어 가장 상세하다. 두루마리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부산포초량화관지도(釜山浦草梁和館之圖)>와 교토대학(京都大學) 도서관 타니무라 문고(谷村文庫) 소장 <조선도회(朝鮮圖繪)>이다. <부산초포

96) 長崎県立対馬歴史民俗資料館 編, 『対馬宗家文庫史料絵図類等目録』(長崎: 長崎県教育委員会, 2012), p. 30.

97) 佐賀県立名護屋城博物館 編, 앞의 책(2000), p.75.

98) 佐賀県立名護屋城博物館 編, 앞의 책(2000), p.75.

량화관지도>의 경우 용두산에서 내려다본 초량왜관의 전경이 가로 폭으로 확대하여 그려져 있으며 바다를 마주하여 오륙도의 모습까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한편 <조선도회>는 부산 지역 일대 및 초량왜관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다. 이 두 그림들은 일본에서 제작된 다른 그림들에서 볼 수 없는 일본 및 조선 사람들과 관련된 풍속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포초량화관지도>는 일본에서 제작된 초량왜관 그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소장되어 있다(도 24).⁹⁹⁾ 이 그림의 주된 시점은 초량왜관 서쪽에서 내려다 본 초량왜관과 바다의 모습이다.¹⁰⁰⁾ <부산포초량화관지도>는 초량왜관을 가로로 길게 펼친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초량왜관의 선창(船艙)이 비중 있게 표현되어 있다. 그 바다 건너 보이는 섬들은 영도와 오륙도이다. 화면에 바다의 오른쪽 끝에 있는 섬은 부산의 명승지인 물운대이다. 그림이 시작되는 초량왜관 밖 평지에 손에 채를 쥐고 매의 먹이를 잡는 일본인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일본에서 매를 요청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초량왜관 내에 이와 관련된 응방(鷹坊)이 있었다.

그림의 초량왜관을 살펴보면 돌담장이 둘러져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 겹겹이 기와가 그려져 있는 곳은 서관이다. 그 옆으로 동관의 생활 시설과 일본인이 죽었을 때 시체를 운반했던 수문(水門)이 있다. 그 앞으로 향만 시설과 용미산이 있다. 가운데에 있는 것이 용두산이

99) 대마번과 관련된 전근대 문서들이 대마도역사민속자료관을 비롯하여 일본 전국 각지와 한국국사편찬위원회에 산재되어 있다. 그 중 대마도 번청(藩廳)에서 작성한 기록은 대마도 종가문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조선총독부가 1926년과 1938년에 구입하여 일부가 조선사편수회로 옮겨졌다. 조선사편수회로 넘어간 자료는 주로 조선과의 통교·무역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조선사편수회의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종가문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 참조. 이훈, 「전근대 한일교류사 자료로서의 대마도종가문서(對馬島宗家文書)」, 『역사와 현실』28(1998), pp. 313-331; 田代和生, 『新・倭館 : 鎖國時代の日本人町』(東京: ゆまに書房, 2011), pp. 117-122; 九州国立博物館, 長崎県立対馬歴史民俗資料館 編, 『日朝交流の軌跡 : 重要文化財新指定記念 : 対馬宗家文書 8万点の調査を終えて』(太宰府: 九州国立博物館, 2012).

100) 김동철, 「초량왜관 그림과 그 속에 담긴 부산의 이모저모」, 『조선시대 통신사행렬』(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 국사편찬위원회, 2005), pp. 22-25.

고 그 안 독립 건물이 관수가(館守家)이다. 그 옆에 동향사(東向寺)를 비롯한 외교 실무 시설로 생각되는 건물들이 보이며 초량왜관의 공식 출입문인 수문(守門)이 나타나 있다. 그 곳을 나오면 있는 작은 건물은 북병막이다. 북병막을 지나 꼬불꼬불한 길이 영선(營繕)고개이며 역관(譯官)의 근무처인 성신당(誠信堂)과 빈일헌(賓日軒) 등의 임소(任所)가 있다. 길을 따라 더 올라가면 일본 사신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 국왕의 전패에 예를 올리는 초량객사가 보인다. 초량객사 옆에 있는 작은 문이 설문이다. 그 밖에 동래 지역민의 마을인 신초량촌(新草梁村)이 있으며 해안선을 따라가면 옛 왜관이 있는 두모포(豆毛浦)가 나온다. 두모포를 따라 다시 부산진(釜山鎭)으로 시선이 이어져 초량왜관으로 돌아가게 된다.

또 다른 그림인 <조선도회>는 당시 동래 지역을 중심으로 조일(朝日) 양국과 관계된 경관과 에피소드를 간단한 설명과 함께 그려낸 작품이다(도 25). 이 그림은 절영도(絶影島)에서 시작하여 표류민 송환소가 있었던 현재 부산 우암동(牛岩洞)과 일본 사절 행렬¹⁰¹⁾, 두모포 왜관(豆毛浦倭館), 조선인 마을, 초량객사, 임소, 동래부사 행렬, 초량왜관 동관, 용두산 호랑이 사냥, 연향대청, 일본의 대차왜(大差倭) 행렬, 초량왜관 서관, 초량원(草梁原)¹⁰²⁾, 관수가 다례연(茶禮宴)으로 끝난다. 부산포(釜山浦) 일대와 초량공해의 내부 모습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초량왜관 동관에 수문(守門) 밖에서 열렸던 조시(朝市)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관련 그림들 중 유일하게 조시가 표현된 그림이다.¹⁰³⁾ <조선도회>는 자연 및 인문 경관 외에도 조선과 일본의 양국의 사절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이

101) 이 행렬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최경국은 이 행렬이 일본의 대명행렬(大名行列)과 유사하며 대마도 참판사가 초량왜관을 떠나는 모습일 것이라 하였다. 양흥숙은 표류민 송환소와 함께 그려진 것으로 보아 표류민들을 송환하기 위한 일본 행렬로 보았다. 양흥숙, 앞의 글(2015), p.257; 최경국, 「교토대학(京都大學) 다니무라문고(谷村文庫) 소장본 『朝鮮図絵』 속의 초량왜관」, 『日本研究』 60(2014), p. 213.

102) 현재 부산 부민동.

103) 양흥숙, 앞의 글(2015), p. 257.

용되고 있다.

이 작품은 타니무라 이치타로(谷村一太郎, 1871-1936)가 소장했던 그림으로 이후 교토대학으로 기증되었다.¹⁰⁴⁾ 타니무라 이치타로는 1871년(高宗 8)에 토야마현(富山縣)에서 태어나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学)을 졸업한 뒤 1906년 후지모토 비르부로커은행(藤本ビルプロ-カ-證券株式會社)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고서적에 관심이 많아 <조선도회> 이외에도 많은 서적과 그림을 수집했다. 그가 소장하고 있던 자료는 장남의 장인인 교토대학(京都大学) 부속도서관장이었던 신무라이즈루(新村出 1876- 1967)의 권유로 교토대학에 기증되었다.

한편 <조선도회>의 시작 부분에 1930년 『대판매일조선판(大阪毎日朝鮮版)』 10월의 신문 기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 그림과 관련된 유일한 정보이다. 부산부윤(釜山府尹) 미야자키 마타시치로(宮崎又治郎, 1929-1931 부산부윤 재임)가 10월 21일 밤, 부산에 온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朝香宮鳩彦, 1887-1981)에게 120년 전에 그려진 이 그림을 베끼도록 한 것 40매를 관람하게 하였다고 기사에 적혀있다.¹⁰⁵⁾ 신문 기사에 이 그림은 1810년(純祖 10)에 제작되었다고 설명되어 있다. 초량왜관 복원 연구에 따르면 <조선도회>에 그려진 관수가가 1802년(純祖 2) 수리 이후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이 그림은 1802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논의되었다.¹⁰⁶⁾ 이 그림은 또한 1937년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에 『조선사료집진(朝鮮史料集眞) 下』에 수록되기도 했다(도 26). 『조선사료집진』에 <부산포왜관회도(釜山浦倭館繪圖)>라는 명칭으로 소개되었는데 수록된 부분은 그림 전체가 아닌 초량왜관 부분만 포함되어 있다.

(3) 병풍(屏風)

초량왜관 일대를 그린 개인 소장의 6곡(曲) 1쌍의 병풍이 존재한다.

104) 다니무라 문고에 대한 소개는 笹本光世, 「資料紹介(2) : 谷村文庫」, 『静脩』 20(1983), pp.5-6 참조.

105) 양흥숙, 앞의 글(2015), pp. 256-257; 최경국, 앞의 글(2014), pp. 209-210.

106) 夫学柱, 앞의 글(2006), pp. 148-149.

조선통신사 관련 도록에서 실려 있는데 병풍의 두 폭만 확인이 가능하다(도 27).¹⁰⁷⁾ <부산포초량화관지도>와 같이 초량왜관에서 바다를 바라본 풍경이 그림에 묘사되어 있다. 서관의 모습도 보이고 있어 서쪽 바깥에서 내려다 본 모습을 이 병풍에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부산포초량화관지도>의 시점과 유사하다. 그림의 중앙에 용두산이 위치해 있다. 용두산을 경계로 그림의 상단에는 동관 일대와 항만 시설이 배치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서관 삼대청(西館三大廳) 육행랑(六行廊) 일부가 그려져 있다. 동관과 서관 내에 초량왜관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도 표현되어 있다. 바다에는 배가 항해하고 있으며 영도에 말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림이 일부만 공개되어 그림의 내력 및 제작 연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다. 제목이 ‘倭館圖屏風’이기는 하지만 병풍의 두 폭만 도록에 실려 있어 이 병풍에 초량왜관의 모습만 그려져 있는지 혹은 병풍에 초량왜관이 있는 부분만 도록에 실은 것인지는 그림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4) 삽화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크기 미상의 <왜관도(倭館圖)>가 있다(도 28). 이 그림은 초량왜관 동관과 항만 시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묘사된 그림이다. 용두산 일부와 용미산이 그려져 있으며 그림 좌측에는 서관의 모습 또한 볼 수 있다. 건물 옆에 건물명이 아닌 기호를 써 넣었으며 그림의 하단에 각 기호에 해당하는 건물명이 나열되어 있다. 이 그림은 『(부산요와) 일본 다완』(2012)에서는 ‘부산 왜관의 도면’으로 소개되어 있다.¹⁰⁸⁾ 『부산고지도』(2008)에는 채색필사본

107) <초량왜관도병풍>이 수록되어 있는 도록은 다음과 같다. 辛基秀, 앞의 책(1985)에는 <왜관도병풍(倭館圖屏風)>으로 되어 있다. 東京国立博物館, 『朝鮮通信使 : 近世200年の日韓文化交流』(東京: 国際交流基金, 1985)에는 <초량왜관도병풍(草梁倭館圖屏風)>으로 기록되어 있다. 두 도록 모두 초량왜관이 있는 두 폭만 수록되어 있다. 이 그림의 소장처와 관련해서 夫學柱의 논문에는 ‘長崎県下県郡厳原町岡部虎男’로 되어 있다. 夫學柱, 앞의 글(2006), p. 154.

108) 浅川伯教, 최자호 옮김, 『(부산요와) 일본 다완』(어드북스, 2012), p. 97.

으로 되어 있으나 『(부산요와) 일본 다완』에서 이 그림과 유사한 <왜관 가마 판화>가 실려 있어 위 그림 또한 판화인 것으로 생각된다.¹⁰⁹⁾

일본에서 제작된 초량왜관 그림들을 보면 다양한 작품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그림이 제작된 배경에는 초량왜관이 양국의 외교 및 무역을 위한 공간이자 일본인이 바다를 건너와 체류했던 공간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초량왜관을 그린 일본 그림들 중 초량왜관 지도들은 <왜관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들과 <왜관도>의 비교를 통해 양국이 초량왜관을 시각화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왜관도>만의 특징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도 21-도 28).

<왜관도>와 일본에서 제작된 초량왜관 지도는 공통적으로 돌담으로 둘러싸인 초량왜관이 묘사되어 있으나 표현 방식, 공간의 범위 그려진 시점과 같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공간의 범위와 시점과 관련하여 <왜관도>에 남쪽에서 바라본 시점이 적용되어 초량왜관을 비롯한 대일 관계 시설이 모두 시각화되어 있다. 지역민과 일본인의 출입의 경계인 설문에서 시작하여 초량왜관에 이르기까지 보다 넓은 지역을 <왜관도>가 그려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제작된 초량왜관 지도들은 초량왜관을 그리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측의 지도들은 동쪽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배가 들어가는 항만 시설이 초량왜관만큼 중요하게 그려져 있다.

양국 그림 모두 초량왜관 내부를 꼼꼼하게 그렸지만 표현 방식에서도 차이가 보인다. <왜관도>는 건물 및 산수 표현에서 회화성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 <왜관도>는 산수와 건물 모두를 꼼꼼한 필치로 그렸으며 모든 건물에 명칭을 병기하여 어떤 건물이 위치하는지 명백히 하였다. 반면 일본 초량왜관 지도들은 건물과 산수 표현이 <왜관도>

109) 浅川伯教, 최자호 옮김, 위의 책(2012), pp. 93-95.

보다는 간략하여 기호적인 느낌이 강하다. 일본 지도들에 일부 건물들에만 명칭이 표기되어 있으며 주로 초량왜관의 규모가 기록되어 있다.

이상으로 <왜관도>를 조선과 일본에서 제작된 그림들과 비교해보았다. <왜관도>에는 초량왜관과 그 일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건물들이 명칭과 함께 꼼꼼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촘촘한 산수의 표현에서 변박이 이 그림을 매우 공을 그렸음 알 수 있다. 따라서 <왜관도>는 산수를 곁들여 초량공해를 시각화한 그림으로 조선과 일본에서 제작된 초량왜관 그림들 중에서 가장 상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조선에서 제작된 초량왜관(草梁倭館) 그림

제목	제작년도	크기 (cm)	형태	소장처
조선팔도지도 中 왜관 (朝鮮八道地圖 倭館地圖)	1785 -1800년	35.7x21.2	지도	규장각
왜관도 (倭館圖)	1783년	132.0x58.0	회화(축)	국립중앙 박물관
동래부사접왜사도 中 제 10폭 (東萊府使接倭使圖)	19세기	82.0x462.0	회화(병풍)	국립진주 박물관

[표 5] 일본에서 제작된 초량왜관(草梁倭館) 그림

제목	연대	재질	크기 (cm)	형태	소장처
부산화관준공도 (釜山和館竣工圖)	18- 19세기	彩色 筆寫	미상	지도	일본 개인
부산화관준공도 (釜山和館竣工圖)	18- 19세기	미상	미상	지도	
초량지회도 (草梁之繪圖)	17세기 중·후반	紙本 墨書	99.0x 64.0	지도	일본 쓰시마 역사민속자료관 (長崎縣立對馬歷史 民俗資料館)
초량왜관회도 (草梁倭館繪圖)	18- 19세기	紙本 著色	145.7x 102.7	지도	일본 쓰시마 역사민속자료관 (長崎縣立對馬歷史 民俗資料館)
초량왜관회도 (草梁倭館繪圖)	18- 19세기	미상	155.0x 105.0	지도	일본 개인

초량왜관회도 (草梁倭館繪圖)	18- 19세기	紙本 著色	260.2x 162.4	지도	일본 쓰시마 역사민속자료관 (長崎縣立對馬歷史 民俗資料館)
부산포초량화관대회도 (釜山浦草梁和館大繪圖)	1886년	紙本	78.4x 50.0	지도	일본 토쿄대학교 사료편찬소 (東京大學史料編纂 所)
부산포초량화관지도 (釜山浦草梁和館之圖)	19세기 말	紙本 淡彩	58.8x 1003.0	두루 마리	한국 국사편찬위원회
조선도회 (朝鮮圖繪)	19세기	미상	30.8x 1463.0	두루 마리	일본 쿄토대학 타니무라문고 (京都大學谷村文庫)
왜관도병풍 (倭館圖屏風)	미상	미상	69.4x 171.6/ 69.4x 194.0	병풍	일본 개인
왜관도 (倭館圖)	19세기 말	판화	미상	삽화	일본 개인

IV. 1783년 <왜관도(倭館圖)>의 제작과 그 의의

Ⅲ장에서는 <왜관도(倭館圖)>를 조선과 일본에서 제작된 그림들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왜관도>는 조선 땅에서 유일한 일본인 거주 구역인 초량왜관(草梁倭館)을 중심으로 초량공해(草梁公廨)를 꼼꼼한 필치로 그린 그림이다. 무엇보다도 조선에서 제작된 초량왜관 그림들 중 유일하게 초량왜관을 단독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므로 1783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그림이 제작되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관도>의 주제인 초량공해가 위치했던 동래부(東萊府)의 역사를 파악하는 것은 이 그림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 놓여 있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왜관도>의 제작 의도에 대해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그림의 제작에 대해 두 가지 견해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개인보다는 조정이나 동래부의 필요에 의해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이다.¹¹⁰⁾ 또한 수리 및 증축(增築)을 통해 가장 번성하고 짜임새를 갖춘 시기의 초량왜관이 <왜관도>에 묘사되어 있다고 논의되었다.¹¹¹⁾ 즉 초량왜관의 조영(造營) 공사가 마무리되어 정비된 모습을 기념하기 위해 그림이 제작되었다는 것이다.¹¹²⁾ 그러므로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100여 년 간의 공사를 통해 조영된 초량왜관이 <왜관도>에 시각화되어 있으며 관(官)의 주도로 그림이 제작되었다고 보았다.

18세기 후반 동래부와 초량왜관을 둘러싼 역사적 상황은 그림의 제작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1783년 그림이 제작될 무렵 영남어사(嶺南御史)의 파견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시기를 전후로 동래부를 둘러싼 문제의 발생은 중앙의 초량왜관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이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특수한 공간을 그린 <왜관

110) 김동철, 앞의 글(2003), p. 60; 서윤정, 앞의 글(2005), p. 39; 이현주, 앞의 글(2010), p. 144; 조행리, 앞의 글(2010), p. 29.

111) 김순일, 정예정, 앞의 글(2001), p.38.

112) 조행리, 위의 글(2010), p. 29; 서윤정, 위의 글(2005), p. 39.

도>는 영남어사가 파견되었을 때 제작되어 중앙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1789년에 동래를 중심으로 잇따른 문제가 생겨 중앙에서 정조(正祖)의 명으로 화원이 파견되었던 경우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1. 초량왜관(草梁倭館)의 화재와 초량공해(草梁公廨)의 시각화

<왜관도>는 1783년 당시의 초량공해가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초량왜관 준공 이후 105년의 변화상이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변례집요(邊例集要)』와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에 있는 수리 기록과 <왜관도>를 대조할 때 역사적 사실과 그림이 어긋나는 부분이 발견된다. 이는 그림의 초량왜관 내 서관(西官)에 배치된 삼대청(三大廳) 육행랑(六行廊)이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그려진 점이다. 수리 기록에 따르면 서관의 동대청(東大廳) 서행랑(西行廊) 56칸이 불에 타 1780년(正祖 4)에 수리가 요청되었다.¹¹³⁾ 수리 요청은 1785년(正祖 9)에 승인되어 1786년(正祖 10) 6월부터 1787년(正祖 11) 3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수리되었다.¹¹⁴⁾ 즉 <왜관도>가 제작된 1783년에는 서관 동대청 서행랑이 아직 수리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림에 화재로 소실된 부분이 그려져야 했다.

<왜관도>에 보이는 서관 건물에서 이러한 화재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서관은 삼대청 육행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림과 같이 하나의 대청(大廳)에 두 개의 행랑(行廊)이 배치되어 있었다. 각 대청과 행랑의 배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변박(卞璞, 18세기 중·후반 활동)은 서관의 동대청 서행랑이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림을 그리기에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가 초량왜관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서행랑을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관이 그리기 쉬운 요소라는 것과 상관없이 변박이

113) 『正祖實錄』 卷 10, 正祖 4年(1780) 12月 26日 庚午, 1번째 기사; 『邊例集要』 卷 11, 「館宇」, 庚子(1780年); 『增正交隣志』, 卷 3, 「監董」.

114) 『邊例集要』 卷 11, 「館宇」, 乙巳(1785年)·丁未(1787年); 『增正交隣志』, 卷 3, 「監董」.

서관을 온전한 모습으로 그렸다는 점은 그림의 제작이 당시 화재의 발생과는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즉 주문자가 당시의 상황보다 초량왜관을 완전하게 그리려고 한 별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왜관도>의 제작과 관련하여 조선에서 제작된 초량왜관과 그 주변 대일(對日) 관계 시설을 그린 그림의 수가 적어 그림의 제작 목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초량왜관은 조선 사람에게 외국인이 거주했던 특수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대일 무역과 외교를 위한 중요한 장소라는 점 이외에도 지역민과 동래를 방문한 외부인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특히 동래부의 여러 명소(名所)와 함께 동래 지역을 여행한 사람들이 노정 중에 방문했던 장소에 초량왜관이 포함되어 있었다.¹¹⁵⁾

동래 지역을 여행한 인물들의 유람기(遊覽記)에 초량왜관을 들렀다는 기록은 보이지만 그것이 초량왜관의 시각화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래부의 오랜 명소였던 태종대(太宗臺)와 몰운대(沒雲臺)는 김윤겸(金允謙, 1711-1775)의 《영남기행화첩(嶺南紀行帖)》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이 여러 점 남아 있다. 한편 조선에서 제작된 초량왜관 그림들의 제작 배경을 생각해보면 <동래부사접왜사도(東萊府使接倭使圖)>는 동래부사(東萊府使) 혹은 부산첨사(釜山僉使)와 관련하여 논의되었다.¹¹⁶⁾ 《조선팔도지도》의 <왜관지도(倭館地圖)>는 그림의 손상으로 인해 그림의 제작 목적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림의 시각적 특징을 고려할 때 변박의 작품들 중 주문용 그림이 많은 점으로 보아 <왜관도> 또한 주문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왜관도>는 변박이 매우 공들여 그린 그림이며 동래 지역에서 제작된 그림 중 그가 그린 <동래부순절도(東萊府殉節圖)> 혹은 <부산진순절도(釜山鎭殉節圖)>와 같이 크기가 큰 편이다. 따라서 <왜관도>는 지역 내에서 쉽게 그려질 수 있었던 그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한편 그림에 나타난 초량공해는 대일 무역과 외교의 중심지이자 일본에 대

115) 정경주, 「부산·동래 유기 자료에 대하여(1)-조선후기 부산동래 기행시문을 중심으로-」, 『항도부산』28(2012), pp. 271-313; 「부산·동래 유기 자료에 대하여(2)-조선후기 부산 동래 기행시문을 중심으로-」, 『항도부산』29(2013), pp. 299-343.

116) 이성훈, 앞의글(2009), pp. 217-231.

한 조선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공간으로 통제와 교류라는 이중적인 입장이 반영된 공간이었다. 또한 <왜관도>는 무역 및 외교적으로 중요한 건물들과 함께 초량왜관 내에 있었던 일반 생활 시설들도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초량공해의 성격과 모든 건물이 명칭을 병기하여 꼼꼼하게 묘사된 점을 고려할 때 이 그림은 초량왜관 및 그 일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으며 따라서 단순한 감상용 그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관도>는 동래부 이상의 관의 명령을 받아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유력한 주문자로는 동래부사와 일본에서 외교 사절이 방문했을 때 동래로 파견되었던 접위관(接慰官) 또는 별도로 중앙의 명령을 받아 내려왔던 인물들이 있다. 이 그림이 그려진 1783년에 동래에 부임한 동래부사(東萊府使)는 2명으로 이양정(李養鼎, 1782.7-178.6 재임)과 이의행(李義行, 1783.7-1784.8 재임)이다. 그림에 적힌 ‘歲癸卯夏寫’를 고려할 때 <왜관도>는 1783년 여름까지 동래부사 직을 맡고 있었던 이양정이 재임하던 시기에 그려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당시 이 그림이 그려질 무렵 동래부와 초량왜관을 둘러싼 역사적 상황은 <왜관도>의 제작과 관련하여 실마리가 될 수 있다.

2. 1783년 영남어사(嶺南御史)의 파견과 동래부(東萊府)

1783년 영남 지역은 1781년(正祖 5)부터 연이어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기근(飢饉)으로 고생하였다.¹¹⁷⁾ 그 해 2월 20일에 정조는 홍문관(弘文館) 부교리(副校理) 심기태(沈基泰, 1728-?)를 암행어사(暗行御史)로 명하여 영남 지역을 염찰(廉察)하게 하였다.¹¹⁸⁾ 정조는 심기태에게 영남을 염탐하라고 이르면서 암행의 조건을 기록한 봉서(封書)를

117) 『正祖實錄』 卷 15, 正祖 7年(1783) 1月 18日 庚戌, 5번째 기사.

118) 『日省錄』, 正祖 7年(1783) 2月 20日 辛巳, 「行召對于誠正閣 承旨 洪明浩 玉堂 李太亨 沈基泰 閣臣 李崑秀 假注書 沈晉賢 兼春秋 金星甲 金健修」, “……教曰禮房承旨入侍李在學進伏予曰講官先退閣臣 史官仍留玉堂下番亦勿退去也予曰予欲遣人廉察者久矣固難其人矣今玉堂庶幾稱其職矣如或不善爲之則反貽朝廷之羞豈不憫哉且此行雖不草草往還亦不宜曠日持久也因以封書親授基泰承命先退…….”

주었다. 이 봉서에 암행어사로서의 책임감과 영남 지역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에 대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초량왜관과 관련된 언급이 있어 주목된다. 동래 지역은 근래에 극도로 해이해져 일본인이 간사한 짓을 하고 있으며 역관(譯官)들이 법을 범하고 있어 단속해야함이 이 봉서에 기록되어 있다.¹¹⁹⁾ 즉 변방으로 중요한 위치였던 동래부에서 일본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정조의 명을 받은 심기태는 약 3개월간의 암행어사 임무를 수행한 후 6월 8일에 암행의 결과를 적은 서계(書啓)와 별단(別單)을 올리자 정조가 그를 소견(召見)하였다.¹²⁰⁾

심기태가 8일에 서계를 올린 후 정조가 그를 소견하는 과정에서부터 동래와 관련된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이는 9일에 차대(次對)에서도 논의되었다. 이는 모두 초량왜관에 지급했던 품목들과 관련하여 하급 관리들에 의해 폐단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었다.¹²¹⁾ 그 중 하나는 일본인과 무역 과정에서 지급된 공작미(公作米)와 초량왜관에 들어가는 왜료미(倭料米)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쌀을 지급할 때 하급 관리들

119) 『正祖實錄』卷 15, 正祖 7年(1783) 6月 8日 戊辰, 2번째 기사, “…… 一. 東萊邊禁, 自有條法, 近來解弛莫甚, 倭人巧詐百出, 雖曰無奈, 象譯先自犯禁, 在所當戢. 軍需戎器之虛實、利鈍, 竝須詳察, 而防禁等事, 亦十分廉探, 發姦用法, 以爲立威禦侮之一助也…….”

120) 『日省錄』, 正祖 7年(1783) 6月 8日 戊辰, 「召見承旨 李在學及嶺南御史 沈基泰于誠正閣」.

121) 『正祖實錄』卷 15, 正祖 7年(1783) 6月 9日 己巳, 1번째 기사. “己巳/次對. 上命吏、兵曹堂上, 覆奏嶺南御史書啓. 左道水軍節度使李喆運, 以倉廩未察, 東萊府使李養鼎, 以邊門不嚴, 昌原府使趙升鉉、漆谷府使金衡柱、寧海府使李鎮復、咸安郡守鄭義誠、草溪郡守曹憂彬、清道郡守李宜耆、比安縣監金翼均、眞寶縣監李琇, 俱以不治, 勘罪有差. 省峴察訪金宗敬, 以治績行誼, 特命陞品. 又命大臣覆奏, 御史別單. 領議政鄭存謙啓言: “其一. 論東萊公作倭料魚價米 爲一萬六千九百三十七石零, 黃豆爲二千四百餘石, 而因倭獻之愆期, 留儲夥多, 反爲奸吏幻弄之資, 自今不計進貢物種出來與否, 每於年終, 盡數入給事也. 交隣之道, 惟當謹守前例, 不宜猝創新規. 臣意則不如令道伯, 往復萊府, 隨所入先運, 餘者留置各邑, 次次運用之爲便.” 上詢于諸臣. 右議政李福源、備邊司提調李命植等, 皆謂不可創出無前之例, 命議于道臣稟處. 存謙又啓言: “其. 論釜山給倭炭雇布, 一依當初定式, 以一疋七石相準, 而專委訓導、別差事也. 雇布之屬之釜山, 本自優厚, 而該鎮聊賴, 專在於此, 末流之弊, 漸致繁滋. 此係道臣按例董飭而已. 至於移給訓別, 則反生他弊. 上曰: “炭軍, 亦民也. 不宜嫌於煩瑣, 任其宿弊之自如. 嚴飭道伯, 申復當初式例, 俾無如前掊剋之.”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아 이를 저지할 새로운 규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조정에서 논의되었다. 이러한 공작미를 비롯한 쌀 지급 문제는 양국의 무역 과정에서 담당 관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폐해들이었다. 특히 18세기 중반 이후 공무역에서 쌀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았으며 조정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느 한 시점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후기 대일 무역 재개와 그 절차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¹²²⁾

임진왜란 이후 1609년(光海君 1)에 조선이 일본과 기유약조(己酉約條)를 체결하면서 양국의 무역이 재개되었다. 조선과 일본 사이의 무역은 1678년 초량왜관이 중건되기 이전에는 고관(古館)인 두모포왜관(豆毛浦倭館)에서 그 이후에는 초량왜관에서 이루어졌다. 일본 막부(幕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마번(對馬藩)은 조선의 여러 주체와 무역을 하였는데 조선과 대마번의 사이의 무역은 대마번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그 무역의 형태로는 조선 조정과 대마번 사이에서 이루어진 공무역(公貿易), 조선 상인과 대마번 사이의 사무역(私貿易)과 불법적인 밀무역(密貿易)이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공작미와 관련된 문제는 조선 조정과 대마번 사이에서 이루어진 공무역에서 비롯되었다.

양국 사이의 공무역은 대마번이 동(銅), 납(鉛), 흑각(黑角, 물소뿔), 단목(丹木) 등의 물품을 주면 그 대가로 비율에 따라 공목(公木)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처음에 무역의 대가로 조선에서 질 좋은 목면을 제공했으나 점차 질이 떨어지게 되자 일본은 질이 떨어진 목면을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양국은 전체 공목 중 일부 300동을 쌀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 방법을 바꾸었다. 이 때 지급했

122) 조선 후기 대일 무역 공작미 제도의 성립과 그 폐해와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 참조. 김경란, 「조선후기 동래부의 공작미(公作米) 운영실태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72(2009), pp. 103-129; 김동철, 「17-18세기 대일공무역에서의 공작미 문제」, 『항도부산』10(1993), pp. 101-146; 「18세기 중엽 이후 대일무역의 변화와 節目의 제정」, 『동양한문학회연구』33(2011), pp. 175-214; 양홍숙, 「조선후기 東萊 지역과 지역민 동향: 倭館 교류를 중심으로」(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이승민, 「조선후기 대일무역상의 폐해와 己巳約條(1809)의 체결」, 『한일관계사연구』22(2005), pp. 81-121. 본 논문에서 공작미 제도의 성립과 절차에 대해 위의 논문들을 참고하여 요약하였음을 밝힌다.

던 쌀을 공작미(公作米)라고 하며 공작미 제도는 1651년(孝宗 2)부터 시행되었다.

조선은 5년을 기한으로 정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대마번은 기한연장을 원하여 공작미연한재판(公作米年限裁判)을 파견하였다. 대마번은 쌀 생산량이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쌀을 충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외지에 의존하고 있었다. 조선은 대마번의 중요한 쌀 수입 통로였기 때문에 대마번은 조선과 교섭하여 공작미 제도를 연장해야만 했다. 1660년(顯宗 1) 대마번에서 다시 공목의 질에 대해 항의하자 공목 100동을 추가하여 400동에 해당하는 쌀을 공작미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것 또한 5년 기한이었기 때문에 대마번에서는 때에 맞춰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다. 조선은 은혜를 베푼다는 입장에서 대마번의 요청에 대해 수락해 주었다.¹²³⁾ 따라서 1660년 이후 조선은 공무역의 위해 16,000석에 달하는 쌀을 대마번에 지급해야 했다.

공목과 공작미는 경상도 지역의 읍(邑)에서 조달되었는데 이 읍을 하납읍(下納邑)이라 하였으며 이 때 공작미를 하납미(下納米)라 칭하였다. 하납읍에서 징수된 하납미는 동래 부산진(釜山鎭)에 있는 부창(釜倉)으로 운송되어 공작미고(公作米庫)에 보관되었다. 공작미는 공무역의 대금을 결제할 때 운미감관(運米監官)에 의해 왜관으로 운송되어 지불되었다. 그러나 하납미가 징수되어 왜관으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폐단이 발생하여 조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이유는 공작미가 운송될 때 관련된 관리들이 중간에서 포흠(逋欠)하였기 때문이다. 하납읍의 수령 및 이서(吏胥)층부터 동래부의 수령(守令), 군관(軍官), 운미감관, 훈도(訓導), 별차(別差)까지 포흠을 저지르거나 이에 관여되어 있었다.¹²⁴⁾

18세기 중엽에도 이미 공작미 포흠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조정은 1738년에 「변문절목(邊門節目)」과 1750년에 「동래접왜절

123) 김동철, 앞의 글(1993), pp. 108-109.

124) 김동철, 위의 글(1993), p. 120.

목(東萊接倭節目)」을 각각 제정하여 제재를 가하고자 했다.¹²⁵⁾ 대내외적으로 문란을 일으킬 수 있는 포흠 문제는 교린과 변방에 관계된 중요한 사안으로 중앙에서 통제가 필요했다. 포흠이 적발될 때마다 관리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이 문제는 줄어들지 않았다. 정조 대에 들어서도 공작미 포흠은 계속 발생했다.

정조가 즉위 후 당시 동래부사였던 유당(柳巖, 1776.7-1777.9 재임)에 의해 동래부와 관련된 네 가지 걱정거리가 상소로 올라왔다.¹²⁶⁾ 그 중 수표미(手標米)와 관련된 항목이 주목되는데 수표(手標)로서 왜인(倭人)과 무역하여 혼단(糶端)을 일으킨다고 하였다.¹²⁷⁾ 수표미 또한 중간 관리들에 의해 발생했던 공작미 포흠의 일종이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진행된 공무역의 대금 결제는 수입품을 받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말에 왜학역관인 훈도와 별차가 교체될 때 공작미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일본인이 필요에 따라 공작미를 기한 전에 지급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때 쌀을 정액보다 낮게 지급하면서 정가의 수표를 받아 두었다가 연말에 결제할 때 정액으로 받았다. 관리들이 중간에서 그 차액을 취하여 이익을 남겼는데 이 때 공작미를 수표미라고 하였다.¹²⁸⁾

이러한 수표미의 폐단은 공작미 포흠의 주된 문제 중 하나였다. 동래부가 이를 주도하여 수표를 매입하다보니 관에서 막대한 이익을 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수표미를 통한 관의 식리(殖利) 활동으로 인해 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1781년(正祖 5)에 동래부사 조영진(趙英鎭, 1781.2-1781.12 재임)은 관이 하급 관리로 하여금 이익을 남기는 행위 때에 민들이 피해를 당한다고 조정에 보고 하였다.¹²⁹⁾

125) 김동철, 앞의 글(1993), pp. 121-123; 김동철, 앞의 글(2011), pp. 179-191.

126) 『正祖實錄』 卷 2, 卽位年(1776) 9월 22일 己巳, 2번째 기사, “東萊府使柳巖上疏曰:本府有四大憂焉, 一曰立本之害民也, 二曰手標倭貿之生糶也, 三曰軍兵之疊役也, 四曰關防之失宜也…….”

127) 『正祖實錄』 卷 2, 卽位年(1776) 9월 22일 己巳, 2번째 기사, “所謂手標倭貿之生糶云者, 公作米料魚價米, 倭人或有緊急所需, 則商譯輩限前減價, 以某物給本直, 預受手標, 以爲待限出米, 發賣取剩, 便爲本官所犯, 歲輒爲二千餘石, 反致商譯輩之失利呼冤”

128) 김동철, 앞의 글(1993), pp. 136-137; 양흥숙, 앞의 글(2009), p. 84.

관이 주도했던 수표미의 포획이 심화되자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1782년에 「수표미방금절목(手標米防禁節目)」이 제정되었다.¹³⁰⁾ 이 절목(節目)의 내용은 관의 수표미 매매를 금지하자는 것이었다.¹³¹⁾ 그러나 이 절목이 만들어진 후에도 여전히 공작미 지급 과정에서 발생했던 포획은 제대로 통제되지 못했다.

1783년에 심기태가 암행어사로 파견되면서 공작미와 관련된 문제가 다시 지적되었다.¹³²⁾ 주지하듯이 대마번과 공무역할 때 대마번이 물품을 지급해야 그 대가로 공작미를 주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대마번에서 물품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때는 공작미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급되지 못한 쌀이 창고에 계속 쌓이면서 관리들이 그 쌀을 이용하여 입본취식(立本取殖)했던 경우가 있었다. 창고에 저장된 쌀을 민들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쳐서 돌려받는 형식으로 관에서 식리 활동을 하였는데 1783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심기태는 대안책으로 기존의 방식을 바꾸어 대마번의 물품 지급 유무와 상관없이 쌀을 입급(入給)하자고 하였다.¹³³⁾ 그러나 대신들은 심기태의 대안에 대해 반대했다.¹³⁴⁾ 공공연하게 쌀을 입급한다면 명목 없이 주는 것이며 일본인이 교역품을 바칠 리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또한 모든 쌀을 한꺼번에 초량왜관으로 운반하지 말고 일부만 먼저 운반한 뒤 나머지는 각 고을에 유치해 두었다가 차례로 옮기자고 하였다. 조정은 심기태가 제시한 대안이 일본과의 교

129) 『承政院日記』 1500冊, 正祖 5年(1781) 12月 28日. 김동철, 위의 글(1993), pp. 137-138.

130) 이 절목은 『동래향청향교고주록(東萊鄉廳鄉校考往錄)』에서만 유일하게 확인되는 사료이다. 원문과 번역은 김무조 외, 『동래향청향교고주록(東萊鄉廳鄉校考往錄)』(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 1989) 참조. 이와 관련한 연구는 김동철, 위의 글(1993), pp. 99-145 참조.

131) 김동철, 위의 글(1993), pp. 139-142.

132) 『正祖實錄』 卷 15, 정조 7年(1783) 6月 9日 己巳, 1번째 기사: 『日省錄』, 正祖 7年(1783) 6月 9日 己巳, 「領議政 鄭存謙以嶺南御史別單覆啓」.

133) 『日省錄』, 正祖 7年(1783) 6月 9日 己巳, 「領議政 鄭存謙以嶺南御史別單覆啓」.

134) 『日省錄』, 正祖 7年(1783) 6月 9日 己巳, 「領議政 鄭存謙以嶺南御史別單覆啓」.

린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전례를 새로이 하는 것이므로 훗날 폐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심기태가 보고한 공작미 입본취식에는 하급관 리뿐만 아니라 동래부사도 관련되어 있었다.¹³⁵⁾ 따라서 정조는 이 시기 전후에 동래부사로 재임했던 조영진, 이문원(李文源, 1780.1-1780.8 재임), 이병모(李秉模, 1782.1-1782.7)를 파직하였다.¹³⁶⁾

한편 영남 어사의 서계와 별단에 올라온 초량왜관과 관련된 두 번째 문제는 초량왜관에 거주했던 일본인에게 지급되었던 탄고포(炭雇布)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조정은 탄고포의 지급을 당초에 정한 규칙대로 하되 이 일을 훈도와 별차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¹³⁷⁾ 초량왜관에 지급되었던 탄고포는 부산진에서 관리하였다. 1783년에 부산 첨사(釜山僉使)가 탄고포를 굶어모아 폐단이 심해짐에 따라 이 업무를 훈도와 별차에게 위임하자는 대안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비변사(備邊司) 당상들을 비롯한 대신들은 새로운 규례를 만들어서 훈도와 별차에게 위임할 필요가 없으며 또 다른 폐단이 생길 수 있다고 반대하였다.¹³⁸⁾

결국 동래부에서 발생했던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당시 재임하고 있던 동래부사 이양정도 문책을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록 기사와 『일성록(日省錄)』에도 기록되어 있다. 1783년 6월 9일에 조정에서 심기태가 올린 서계를 심리해서 논의하던 중에 이양정에 대해 변방의 ‘금령(禁令)이 해이하고 관문의 수비가 엄하지 않았습시다’라고 하였다.¹³⁹⁾ 따라서 정조는 이양정을 영남의 다른 지역의 수령들과 함께 공작미와 탄고포 문제로 먼저 파직한 뒤에 나처(拿處)하도록 하였다.¹⁴⁰⁾ 이후에 정조는 6월 9일에 바로 신대승(申大升, 1731-?)을 동

135) 『日省錄』, 正祖 7年(1783) 6月 8日 戊辰, 「召見承旨 李在學及嶺南御史 沈基泰于誠正閣」; 『日省錄』, 正祖 7年(1783) 6月 9日 己巳, 「行次對于誠正閣」.

136) 『日省錄』, 正祖 7年(1783) 6月 9日 己巳, 「領議政 鄭存謙以嶺南御史別單覆啓」; 『正祖實錄』 卷 15, 정조 7年(1783) 6月 9日 己巳, 3번째 기사.

137) 『正祖實錄』 卷 15, 정조 7年(1783) 6月 9日 己巳, 1번째 기사; 『日省錄』, 正祖 7年(1783) 6月 9日 己巳, 「領議政 鄭存謙以嶺南御史別單覆啓」.

138) 『日省錄』, 正祖 7年(1783) 6月 9日 己巳, 「領議政 鄭存謙以嶺南御史別單覆啓」.

139) 『正祖實錄』 卷 15, 정조 7年(1783) 6月 9日 己巳, 1번째 기사; 『日省錄』, 正祖 7年(1783) 6月 9日 己巳, 「吏曹判書 徐浩修以嶺南御史書啓覆啓」.

래부사로 삼아 수일 안으로 하직 인사를 하라 명하였다.¹⁴¹⁾ 그러나 신대승이 신병(身病)을 이유로 정장(呈狀)하자 그 다음날 이의행(李義行, 1783.7-1784.8 재임)을 동래부사로 삼았다.¹⁴²⁾

18세기 중반부터 조정은 공작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조가 즉위한 이후에도 끊이지 않은 공작미 폐단은 「수표미방금 절목」의 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1783년 심기태의 암행어사 파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제는 일시에 해소되지 못했다. 이전부터 관련 절목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되지 못했던 공작미 폐단을 포함한 초량왜관과 관련된 문제는 조정이 이 지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는 계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대일 무역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 초량왜관은 더욱 관심 대상이었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무렵에 <왜관도>가 제작되었다. 동래부 이상의 명령을 받아 <왜관도>가 제작되었음을 생각해본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주문자로 논의될 수 있는 인물은 동래부사이다. 초량왜관 일대가 대일 외교 및 무역 공간이자 특수한 장소라는 점에서 동래부 내에서 중요한 곳이었다. 동래부사에게 초량왜관은 외교력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래부사에 의해 여러 차례 초량왜관 그림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관도>를 제외한 다른 예들은 보이지 않는다. 『봉래수창록』의 <동래부치도> 또는 <동래부사접왜사도>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동래읍성(東萊邑城)이 우선시되어 그려졌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왜관도>의 제작에 관여할 수 있었던 동래부 이상의 관에 속한 인물들 중에서 암행어사로 파견된 심기태가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이 제작된 1783년 여름은 그가 암행했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

140) 양흥숙, 앞의 글(2009), p. 52; 김강일, 앞의 글(2012), p. 51.

141) 『日省錄』, 正祖 7年(1783) 6月 9日 己巳, 「以申大升爲東萊府使 洪檢爲水原府使 并備薦也」; 『日省錄』 『日省錄』, 正祖 7年(1783) 6月 11日 辛未, 「罷東萊府使 申大升職」.

142) 『日省錄』, 正祖 7年(1783) 6月 11日 辛未, 「罷東萊府使 申大升職」; 『日省錄』, 正祖 7年(1783) 6月 12日 壬申, 「以李義行爲東萊府使 備薦也」.

에서도 <왜관도>의 제작과 심기태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왜관도(倭館圖)>의 제작과 그 의미

조선시대 어사제도(御使制度)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조정은 원활한 지방 통치를 위해 조선 초부터 어사제도를 마련하였다. 중종(中宗) 대에 들어 일반 어사들에게 암행 규찰을 허용함에 따라 암행어사가 파견되었다.¹⁴³⁾ 중종 이후의 어사제도는 암행권이 없는 일반어사와 특정한 임무를 받아 별도로 파견했던 별견어사(別遣御史) 및 암행어사로 운영되었다. 별견어사들 또한 일반어사와 같이 암행이 허용되지 않아 일반어사와 구별 없이 호칭되었다.¹⁴⁴⁾ 16세기 초 까지만 해도 별견어사를 포함한 일반어사와 암행어사는 암행권의 유무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이후 점차 별견어사 및 일반어사에게도 암행이 허용되어 1760년대에 이르러서는 암행어사와 일반어사의 구분이 없어졌던 것으로 보인다.¹⁴⁵⁾ 또한 어사의 염찰의 범위 또한 확대되어 어사의 권한이 점차 강화되었다. 암행어사 제도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방 통치를 위해 조선의 왕들은 어사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의 사정을 살피며 규찰하고자 했다.

지방을 감찰했던 어사 본연의 임무 외에도 어사가 그림을 제작해 바친 경우가 있어 주목된다. 실록에서 세 건의 기사가 확인된다. 첫 번째는 1706년(肅宗 32)에 강원도감진어사(江原道監賑御史)로 파견된 오명준(吳命峻, 1662-1723)이 진휼(軫恤)을 감독한 뒤 <진민도(賑民圖)>를 만들어 바친 것이다.¹⁴⁶⁾ 그림에 대해 “모두 곡식을 운반하여 분배해 진휼하는 일과 유민(流民)이 돌아와 모여 살면서 늙고 파리한

143) 『中宗實錄』 中宗 4年(1509), 11月 9日 丁卯, 2번째 기사.

144) 이희권, 「朝鮮後期 暗行御史制를 통한 중앙정부의 지방통제정책」, 『전북사학』 17(1994), p. 60.

145) 이희권, 위의 글(1994), pp. 74-75.

146) 『肅宗實錄』 卷 43, 肅宗 32年(1706) 6月 18日 癸卯, 1번째 기사, “癸卯/江原道監賑御史吳命峻復命, 進賑民圖. 時, 關東大饑, 命峻承命監賑, 及歸作此圖以獻, 而所畫者, 皆運粟分賑之事, 及流民還集, 老羸攢祝之狀, 或謂命峻曰: “君之畫誠美矣, 殆與鄭俠流民圖異意.” 命峻有慙色.”

사람이 떴 지어 찬축(攢祝)하는 형상”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진흙의 장면을 그린 그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1733년(英祖 9) 제주(濟州) 운수를 감독하는 위유어사(慰諭御史)로 파견된 심성희(沈聖希, 1684-1747)가 “탐라(耽羅) 세 고을의 구령 산천도(九嶺山川圖)와 제주 백성의 팔간도잠(八艱圖箴)을 바쳤다”고 하였다.¹⁴⁷⁾ 세 번째는 1784년(正祖 8)네 독운어사(督運御史) 김재인(金載人, 1735-?)이 진구(賑救)할 곡식을 배로 운반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¹⁴⁸⁾

이 세 어사 모두 특별한 임무를 맡아 파견된 별견어사였는데 임무와 관련된 사항 또는 파견 지역과 관련하여 그림을 그려 바쳤다. 실록기사에서는 이 세 건만 보이지만 어사들이 왕명을 받거나 또는 업무 과정에서 그림을 그려 중앙으로 가져간 사례는 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암행어사들 또한 임무를 수행하며 그림을 그려 가져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조선의 왕들 중에서 정조는 지방에 대한 관심으로 어사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왕이었다.¹⁴⁹⁾ 정조는 수차례 지방으로 어사를 파견하여 엄찰하게 하였는데 1783년에 영남 지역에 암행어사로 심기태가 파견되었다. 심기태의 서계와 별단에서 대일 무역 관련 문제가 지적되었다는 점에서 그가 동래부를 방문했을 때 초량왜관에 대해 정보를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이전부터 조정이 지속적으로 공작미 문제를 통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도 초량왜관은 18세기 중엽 이후 조정의 관심 대상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어사들이 그림

147) 『英祖實錄』 卷 34, 英祖 9年(1733) 7月 13日 壬辰, 1번째 기사, “壬辰/濟州督運慰諭御史沈聖希入來, 獻耽羅三邑《九嶺山川圖》及濟民《八艱圖箴》.”

148) 『正祖實錄』 卷 17, 正祖 8年(1784) 3月 3日 戊子, 3번째 기사, “督運御史金載人, 以賑穀船運之狀, 繪畫作障子以進…….”

149) 정조는 어사의 엄찰 범위를 대상 지역인 생읍(生邑)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연로읍(沿路邑)까지 확대하여 지방 속사정을 파악하고 수령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어사의 감찰을 확대했으며 어사의 책무 또한 강화하였다. 한상권, 「역사 연구의 심화와 사료이용의 확대 : 암행어사 관련자료의 종류와 사료적 가치」, 『역사와 현실』6(1991), p. 375; 이상엽, 「정조의 지방통치관련 개혁정책에 관한 연」, 『東方學』10(2004), pp. 194-195.

을 그려 바친 위의 사례들을 고려한다면 초량왜관은 심기태의 파견 임무와 관련된 장소였으며 조정의 관심 대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각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심기태가 <왜관도>의 주문자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심기태가 그림을 주문했다면 그가 <왜관도>를 제작한 목적은 개인을 위함인지 혹은 조정에 보고하기 위함인지는 위의 사실로만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심기태가 『봉래수창록』과 같이 영남어사로 파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인 소장용으로 <왜관도>를 주문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암행어사는 기본적으로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활동하였지만 때에 따라 신분을 드러낸 채 활동했던 사례도 있었다.¹⁵⁰⁾ 또한 암행 과정에서 명승을 유람하거나 기생을 만나 시를 짓거나¹⁵¹⁾ 암행어사 출도 후에는 융숭하게 대접받기도 하였다.¹⁵²⁾ 그러므로 심기태가 개인 소장을 위해 변박으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하여 가져갔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공적인 목적으로 그림을 그려 중앙에 가져갔을 수도 있다. 이는 1783년처럼 동래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그 시기를 전후로 하여 그림이 제작된 사례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1789년에 중앙에서 김응환(金應煥, 1676-1759)과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이후)가 영남지역을 방문했다. 『김씨가보(金氏家譜)』와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에 의하면 김홍도가 김응환과 함께 이 해에 영남 지역을 두루 다니며 명산을 그린 화첩이 궁중에 있었다고 한다.¹⁵³⁾ 또한 정조의 명으로 김응환과 김홍도가 대마도(對馬島)에 가서 지도를 그리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⁵⁴⁾ 그러나 김응환이 부산에

150) 암행어사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암행어사가 조정에 올린 서계와 별단 외에도 암행의 과정을 기록한 일기가 있어 주목된다. 관련 연구로는 황재문, 「사환일기와 관직생활 : 암행어사 일기를 중심으로」, 『大東漢文學』30(2009), pp. 41-78; 박동욱, 「문학 : 박래겸의 암행어사 일기 연구」, 『溫知論叢』33(2013), pp. 7-34.

151) 황재문, 위의 글(2009), p. 58; 박동욱, 위의 글(2013), pp. 17-26.

152) 황재문, 앞의 글(2009), pp. 64-65.

153) 국립중앙박물관, 『檀園 金弘道』(통천문화사, 1990), pp. 236-237.

154)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1990), pp. 237.

서 객사(客死)하자 김홍도가 그 치상(治喪)을 하고 혼자서 지도를 그려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동래부를 중심으로 안팎으로 나타났던 문제는 중앙에서 화원의 파견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우선 대일 무역과 관련하여 1787년 삼남암행어사(三南暗行御史)로 파견된 김이성(金履成, 1739-?)이 올린 서계와 별단을 보면 동래부와 관련된 보고가 유독 많다. 그 중에서도 여전히 동래부의 공작미 포함과 관련된 것이 눈에 띈다.¹⁵⁵⁾ 하납된 공작미가 부창에 보관된 이후 이를 관리한 부창의 색리(色吏)와 초량왜관으로 공작미 운반을 담당한 운미감관이 포함했다고 지적되었다. 정조는 전임 동래부사와 논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¹⁵⁶⁾ 그 결과 사목(事目)을 만들어 엄격히 단속하고자 하였다. 1788년(正祖 12) 9월 9일 동래부사에게 비변사 관문(關文)이 내려갔는데 그것이 이 때 제정된 「하납미개규정 신반사목(下納米改糾正新頒事目)」이다. 이 사목은 하납미가 왜관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폐단을 방지하고자 했던 개선책이었다. 이후 이 하납미와 관련된 사목의 제정에 더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비 작업이 진행되었다. 1789년(正祖 13)에 공작미를 포함한 대일무역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접왜절목(接倭節目)」이 제정되었다. 「접왜절목」은 공작미의 포함을 포함하여 대일 공무역 및 사무역과 관련된 사항을 재정비하기 위한 개선책이었다.¹⁵⁷⁾

정조가 재위 기간 동안 1780년대에 3건의 사목과 절목이 제정되었는데 모두 공작미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목과 절목에는 1609년에 기유약조 체결에 의해 조선과 일본의 무역이 재개된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된 무역 양상이 반영되었다.¹⁵⁸⁾ 조선과 일본의 무역 과정에서 문제 또는 변화가 생겼을 때 양국이 수시로 약조를 체결하여 이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므로 사안에 따라

155) 『正祖實錄』 卷 24, 正祖 11年(1787) 9月 30日 甲午, 1번째 기사.

156) 『備邊司謄錄』 174冊, 正祖 11年(1787) 9月 30日 甲午.

157) 김동철, 앞의 글(2011), pp. 197-208.

158) 김동철, 위의 글(2011), pp. 177-178.

왕 또는 동래부, 비변사와 같은 관청에서 내부적으로 절목과 사목을 만들어 변화에 대응하였다.¹⁵⁹⁾ 조선과 일본이 단절되었던 외교 관계를 회복한 시점에서 양국의 관계 유지는 조선으로서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10년 동안 3건의 대일 무역과 관련된 사목 또는 절목의 제정은 공작미 포함을 포함하여 끊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조정에서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대일 외교 문제와 관련하여 1786년에 동래부사 홍문영(洪文泳, 1786.2-1786.12재임)이 일본 막부 쇼군(將軍) 도쿠가와 이에하루(德川家治, 1737-1786)가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올렸다.¹⁶⁰⁾ 새로운 관백(關白)이 취임하게 되면 3년 안에 통신사 파견이 관례였기 때문에 조정은 통신사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의 통신사 파견과 달리 이 때 통신사는 3년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788년 10월 막부는 흥작으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통신사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다.¹⁶¹⁾ 이러한 상황 속에서 1791년(正祖 15) 막부는 에도통신(江戸通信)이 아닌 대마도 역지통신(易地通信)을 추진했다. 대마도 역지 통신은 정례(定例)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선과 일본 양측의 교섭이 길어졌다. 통신사는 지연되어 결국 1811년(純祖 11)에 에도로 가지 못한 채 대마도까지만 파견되었다.

정조 대에 동래부와 관련하여 꾸준히 제기되었던 관방(關防)의 중요성은 중앙에서 동래부에 대한 관심을 갖는 또 하나의 계기였다. 동래 지역은 일본과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방(邊防)으로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남방 제일의 관방이라 일컬어진 것에서 이를 잘 알 수 있다.¹⁶²⁾ 사실 임진왜란 이후 금정산성(金井山

159) 김동철, 앞의 글(2011), p. 178.

160) 『正祖實錄』卷 22, 正祖 10年(1786) 10月 6日 丙午, 2번째 기사, “日本關白源家治死。東萊府使洪文泳馳啓言: “訓導鄭思鈺等手本謂: ‘館守倭言: ‘弊邦無祿, 今年八月初八日, 關白源家治身死。弊邦之八月, 卽貴國之閏七月。開市限來月初一日, 勿爲下送, 各送使宴, 則限來月初五日停止, 監董則限來月初七日撤役.’”云.”

161) 岩方久彦, 「19세기 朝鮮의 對日 易地通信 研究」(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4), p. 52.

162) 윤용출, 「조선후기 동래부의 축성역과 동래부사」, 『東萊府使 : 忠과 信의 목민관』(부산박물관, 2009), p. 196.

城)은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1703년(肅宗 29)에 축조되지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1714년(肅宗 40)에 이르러 산성은 폐기되었다.¹⁶³⁾ 1731년(英祖 7)에 동래읍성만 재건되었다. 동래부는 일본과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변방이었으나 금정산성이 폐기된 이후 방어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정조 즉위한 1776년에 동래부사 유당이 올린 네 가지 걱정거리가 상소 중 하나가 동래부 관방의 필요성이었다. 그는 ‘관방의 마땅함을 잃었다’고 하면서 중요한 방어 전략으로 금정산성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¹⁶⁴⁾ 그 이후에도 금정산성 축성은 꾸준히 조정에서 논의되었다.¹⁶⁵⁾ 김이성이 1787년 삼남암행어사 수행 후 조정에 보고할 때에도 금정산성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정조가 재위한 기간에 금정산성 축조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순조가 즉위한 이후 1807년(純祖 7)에 동래부사 오한원(吳翰源, 1806.2-1809.2 재임)에 의해 금정산성은 재건되었다.¹⁶⁶⁾

1780년대 후반에 동래부는 변방이자 대일 외교 및 무역의 중심지로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일들을 겪고 있었다. 이는 1789년의 김응환과 김홍도의 파견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정조는 수도 밖의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두었던 왕이었다. 정조가 지방에 많은 어사를 파견하여 그 실태를 보고받았듯이 화원을 지방에 보내 그림을 그려오도록 한 여러 사례가 발견된다.

163) 김숙경, 「朝鮮後期 東萊地域の 官營工事に 관한 研究」(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p. 53-55.

164) 『正祖實錄』 卷 15, 正祖 7年(1783) 6月 8日 戊辰, 2번째 기사, “……所謂關防失宜云者, 本府初設金井山城, 後築本府城, 金井去本府十里, 而東臨大路, 南壓海門, 敵之由水陸來者, 無不憂過城外五里之內, 雖本府萬一失守, 敵不敢捨金井而經過, 中間以闊大棄廢, 與蜀漢之棄上庸, 皇明之撤廣寧一何似也? 城下各邑, 限五十里糶糴, 皆令設倉城內, 梁山之甘同, 金海之赫山, 儲米近萬石, 去城皆十里, 臣謂移此兩倉於城內, 使本官依前主管, 梁、機、彥、密等邑, 限三千束伍, 付之臣府, 合城內外僧軍及倉底民人, 則不虞其不能守也…….”

165) 『正祖實錄』 卷 6, 正祖 2年(1778), 7月 20日 丁未, 3번째 기사; 『正祖實錄』 卷 24, 正祖 11年(1787) 9月 30日 甲午, 1번째 기사.

166) 『純祖實錄』 卷 10, 純祖 7年(1807) 9月 16日 甲寅, 1번째 기사; 『純祖實錄』 卷 11, 純祖 8年(1808), 6月 1日 乙未, 1번째 기사.

이 시기 전후로 끊임없는 대일 외교 및 무역과 관련된 문제들과 동래부 관방의 중요성은 조정의 관심을 끌었던 요소였다. 따라서 대내외적인 사건들 속에서 동래부와 초량왜관은 조정의 이목이 집중된 장소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일본 막부는 대마도를 통해서 외교 및 무역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때 막부로부터 전달된 통신사 연기 요청은 정조가 대마도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정조가 화원을 파견하여 대마도를 그려오라고 명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1789년에 김응환이 사망한 뒤 김홍도가 혼자 대마도에 가서 대마도 지도를 그려왔을 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김응환과 김홍도의 대마도 파견은 이러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1789년에 있었던 김홍도와 김응환의 파견 사례 고려할 때 <왜관도>의 제작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중반부터 조정은 연이은 공작미 문제와 금정산성의 필요성으로 인해 동래부와 초량왜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정조가 즉위한 이후에도 잇따른 공작미 문제로 1782년에 「수표미방금절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783년에도 문제는 여전했다. 따라서 동래부와 초량왜관에 대해 조정의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1783년에 심기태가 암행어사로 파견된 시점에 <왜관도>가 제작된 점은 그림의 제작에 심기태가 관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왜관도>에는 일본과 관련된 외교 및 무역 시설인 초량공해가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초량공해의 시각화는 조선 후기 대일 외교와 무역에서 중요한 공간들을 그린 것인 동시에 조선의 일본에 대한 통제와 교류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림에는 조선과 일본의 외교와 무역을 위한 공간들은 물론 생활 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물에 명칭이 병기되어 있다. 초량공해의 성격과 모든 건물에 명칭이 병기된 점을 고려할 때 이 그림이 정보 전달의 성격이 강하며 단순한 기념 또는 감상 이상의 그림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림이 지도와 같이 상세하다는 점은 <왜관도>의 제작이 심기태 개인

보다는 중앙과 관련된 공적인 목적임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심기태가 이 그림을 위의 별건어사들의 사례처럼 별도로 제작하여 중앙으로 가져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는 김응환과 김홍도의 경우처럼 정조의 명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기록이 없어 확인은 어렵다.

<왜관도>가 정보성이 강하며 지도와 같이 상세하다는 점에서 이 그림은 초량왜관과 그 주변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속적으로 초량왜관에서 대일 외교 및 무역과 관련된 문제의 발생과 동래부 관방의 중요성은 초량공해가 시각화되는 자극제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김홍도와 김응환의 경우와 달리 <왜관도>를 변박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그가 지역 내에서 화명이 있는 인물로 동래부와 초량왜관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왜관도>가 제작된 전후로 하여 동래부의 상황을 살핀 뒤 이를 통해 그림이 그려진 배경을 추정해보았다. 정조는 원활한 지방 통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왕이었다. 영남 지역 암행어사 심기태가 파견된 후 동래부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초량왜관과 그 일대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관도>의 제작에 대해 심기태의 개인적인 주문인지 혹은 중앙의 관 또는 그 이상의 인물의 주문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건물과 산수 표현이 상세하며 건물 명칭이 꼼꼼하게 병기된 점은 이 그림이 단순한 감상용 그림은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왜관도>는 중앙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초량왜관과 그 주변 즉 초량공해를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동래부는 대일 외교의 중심지이자 남쪽 변방의 관문이라는 점에서 이중적인 입장에 놓여있는 곳으로 <왜관도>는 이러한 이해관계가 반영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은 <왜관도(倭館圖)>의 성격과 제작 맥락을 미술사적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왜관도>는 조선 땅에서 유일하게 일본인의 거주가 허용된 공간인 초량왜관(草梁倭館)과 대일(對日) 관계 시설을 시각화한 그림이다. 변박은 동래(東萊) 지역 화가로 동래무청(東萊武廳)에 소속되어 다양한 성격의 서화(書畫) 작품들을 제작했다. 그의 작품은 <왜관도>를 포함하여 현재 10점이 남아있다. 그는 취미보다는 관(官)의 명령 또는 일본의 요청에 응하여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렸다.

변박(卞璞, 18세기 중·후반 활동)의 작품들 중 <왜관도>는 그의 회화적 역량이 가장 돋보이는 그림이다. <왜관도>에 묘사된 18세기 초량왜관과 그 일대는 1802년에 편찬된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와 거의 일치할 정도로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왜관도>는 설문(設門)을 경계로 하여 초량왜관과 대일 관계 시설들만 묘사되어 있다. 이 점은 <왜관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조선 후기 일본과의 외교와 무역을 위한 장소들만 그림에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740년에 편찬된 『동래부지(東萊府誌)』에 따르면 초량왜관, 연향대청(宴享大廳), 초량객사(草梁客舍), 임소(任所), 설문, 복병막(伏兵幕), 시탄고(柴炭庫)는 ‘초량공해(草梁公廨)’로 분리되어 기록되어 있다. 초량공해는 초량왜관 및 대일 관계 시설이 별도로 인식된 공간이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왜관도>는 초량공해를 시각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왜관도>는 건물뿐만 아니라 산수 또한 꼼꼼한 필치로 그려져 있다. 1725년에 제작된 『봉래수창록(蓬萊酬唱錄)』에 수록되어 있는 동래부를 그린 그림과 비교해보면 <왜관도>에 정선(鄭敼, 1676-1759)의 화풍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변박은 1763-64년 통신사(通信使) 사행 때 만났던 인물이나 동래 지역을 방문한 인물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선의 화풍을 습득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관도>에 보이는 변박의 산수 표현은 이후 동래 지역에서 활동한 화가들의

작품에도 나타나고 있어 이 화풍이 19세기까지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왜관도> 이외에도 초량왜관을 그린 그림이 남아 있다. 조선과 일본 양국에서 초량왜관과 관련된 그림이 제작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조선에서 제작된 초량왜관 그림은 전국 및 군현지도(郡縣地圖)를 제외할 경우 <왜관도>를 포함하여 세 점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일본에서 제작된 초량왜관 그림은 지도, 두루마리, 병풍 등 형식이 다양하다. 일본에서 제작된 초량왜관 지도들과 <왜관도>를 비교해보면 초량왜관을 시각화하는 방식에서 양국의 차이가 엿보인다. 변박의 <왜관도>는 초량왜관을 중심으로 초량공해가 그려져 있는데 건물의 배치와 산수 표현에서 꼼꼼함이 느껴진다. 그러나 일본에서 제작된 초량왜관 지도들은 초량왜관이 중점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건물과 산수 표현은 비교적 간단하다. 따라서 <왜관도>는 변박이 건물과 산수를 표현함에 있어서 매우 공들인 그림임을 알 수 있다.

<왜관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1780년 화재로 소실된 초량왜관 서관(西館)의 동대청(東大廳) 서행랑(西行廊)이 그림에는 온전하게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주문자가 당시의 상황보다는 초량왜관을 완전하게 그리려고 한 별도의 목적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그림이 제작될 무렵 정조는 심기태(沈基泰, 1728-?)를 영남(嶺南) 지역에 암행어사(暗行御史)로 파견하였다. 심기태가 올린 서계(書啓)와 별단(別單)을 보면 초량왜관과 관련된 문제들도 보이는데 이 기록들을 통해 공작미(公作米)와 탄고포(炭雇布)를 이용하여 관리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작미 포함(逋欠)은 이미 18세기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난 문제였다. 조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으나 18세기 후반까지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 대일 외교의 중심지에서 벌어진 폐단은 조정의 입장에서 매우 불편한 것이었다. 정조가 즉위한 뒤 1782년에 절목(事目)까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문제로 인해 동래부는 중앙으로부터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초량왜관이 연관된 점에서 <왜관도>가 제작되도록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에 초량공해가 상세하게 표현된 점은 <왜관도>가 단순한 감상이 아닌 공적인 목적을 위해 제작된 그림임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1783년 심기태의 파견과 <왜관도>의 제작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관도>의 제작과 관련하여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1789년에 정조가 김응환(金應煥, 1676-1759)과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이후)에게 대마도(對馬島) 지도를 그려오라고 명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동래부가 중앙의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되는 기록들이 보인다. 1787년에 김이성(金履成, 1739-?)이 삼남암행어사(三南暗行御史)로 파견되었다. 1786년에 일본 막부(幕府)의 쇼군(將軍)이 사망한 후 일본은 1788년에 통신사 파견을 늦춰줄 것을 조선에 요청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사건의 발생은 정조가 김홍도와 김응환을 파견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왜관도>의 제작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1783년에 초량왜관을 둘러싼 동래부의 문제로 인해 <왜관도>가 제작되어 중앙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초량왜관을 비롯한 주변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심기태가 <왜관도>를 주문해 중앙으로 그림을 가져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관도>는 지금은 사라진 초량왜관과 그 일대를 담아낸 중요한 작품이다. 그림에 그려진 초량공해는 조선 후기 조일(朝日) 교류의 중심지였다. 당시 동래부는 관방(關防)이자 선린(善隣) 외교의 장소라는 점에서 통제와 교류라는 이중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특수한 위치에 놓인 공간이었다. <왜관도>에 표현된 복병막과 설문은 동래부가 일본인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었으며 초량객사는 대일 외교에서 조선 국왕의 권위를 상징했던 곳이었다. 반대로 초량왜관과 연향대청은 조선과 일본의 외교 및 무역을 위한 공간이었다. 따라서 <왜관도>에서 초량공해의 시각화는 이러한 조선의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변박의 <왜관도>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그림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문헌자료

『邊例集要』

『備邊司謄錄』

『朝鮮王朝實錄』

『日省錄』

『承政院日記』

김건서 저, 하우봉, 홍성덕 역, 『(국역)增正交隣志』,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98.

新山退甫, 허경진 옮김, 『한객인상필화』,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동래구지편찬위원회, 『東萊府志』, 부산광역시 동래구, 1995.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 刊, 『朝鮮史料集眞』, 1936(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충렬사안락서원 편, 정중환, 김석희 역, 『忠烈祠志』, 민學社, 1978.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문화교섭학연구단 편, 『(신편) 부산대관』, 선인, 2010.

*국문논저

단행본

국립중앙박물관, 『朝鮮時代 通信使』, 삼화출판사, 1986.

_____, 『國立中央博物館韓國書畫遺物圖錄6집』, 국립중앙박물관, 1996.

김기혁, 『釜山古地圖』, 부산광역시, 2008.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산수화·화조화 :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소장 품도록』,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2014.

부산박물관, 『東萊府使 : 忠과 信의 목민관』, 부산박물관, 2009.

- _____, 『조선시대 통신사와 부산』, 부산박물관, 2015.
- _____, 『書畫 = Paintings and Calligraphy from Busan Museum's Collection : 부산박물관 소장』, 부산박물관, 2016.
- 손숙경, 이훈상, 『조선후기 동래의 武廳先生案과 武任 總攬』,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2009.
- 田代和生, 정성일 옮김, 『왜관: 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논형, 2005.
-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시대 통신사 행렬』,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 국사편찬위원회, 2005.
- 淺川伯教, 최자호 옮김, 『(부산요와) 일본 다완』, 어드북스, 2012.
- 한영우 외,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 1999.

논문

- 김강일, 「조선후기 倭館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김경란, 「조선후기 동래부의 공작미(公作米) 운영실태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72, 2009, pp. 103-129
- 김기혁, 「지역연구 자료로서의 부산 지역 고지도 기초 연구」, 『釜山地理』9, 2000, pp. 23-51.
- _____, 「자료소개: 부산지역 고지도 연구」, 『항도부산』18, 2002, pp. 391-454.
- 김동철, 「倭館圖를 그린 卞璞의 대일 교류 활동과 작품들」, 『한일관계사연구』19, 2003, pp. 47-71.
- _____, 「17·18세기 대일공무역에서의 공작미 문제」, 『항도부산』10, 1993, pp. 99-145.
- _____, 「'東萊府使接倭使圖'의 기초적 연구」, 『역사와 세계』37, 2010, pp. 69-103.
- _____, 「조선후기 통제와 교류의 장소, 부산 왜관」, 『한일관계사연구』37, 2010, pp. 3-36.

- _____, 「18세기 중엽 이후 대일무역의 변화와 節目의 제정」, 『동양한문학연구』33, 2011, pp. 175-214.
- 김성희, 「조선후기 회화식 지도와 회화」, 『미술사와 문화유산』5, 2016, pp. 122-124.
- 김숙경, 「朝鮮後期 東萊地域의 官營工事に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김순일, 정예정, 「草梁倭館의 創建, 修理 및 重修에 관한 研究」, 『건축역사연구』10, 2001, pp. 35-54.
- 민선희, 「朝鮮後期 東萊의 鄉班社會와 武廳: 朝鮮後期 鄉班社會의 支配構造와 社會移動問題에 대한 -試論」, 『역사학보』139, 1993, pp. 95-148.
- 박동욱, 「문학 : 박래겸의 암행어사 일기 연구」, 『溫知論叢』33, 2013, pp. 7-34.
- 박성희, 「朝鮮 後期 對日交易用 繪畫 研究 : 東萊 倭館 輸出畫를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박은순, 「19世紀 繪畫式 郡縣地圖와 地方文化」, 『한국고지도연구』1, 2009, pp. 31-61.
- 부학주, 김정동, 「초량왜관 건축과 역사적 경관 재현 연구」, 『건축역사연구』15 No.3, 2006, pp. 81-98.
- 박정혜, 「19세기 궁궐 계획과 <동궐도>의 건축 표현」, 『동궐』, 동아대학교박물관, 2012, p.254-263.
- 박현모, 「正祖의 聖王論과 지방통치 방식」, 『정신문화연구』23, 2000, pp. 125-151.
- 相沙希子, 「부산항 일본인 거류지 연구 : (1876~1883)」,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서운정, 「1764년 通信使의 繪畫活動과 그 交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손숙경, 「조선후기 동래(東萊) 지역 무임(武任)집단의 조직과 운영」, 『사회와 역사』74, 2007, pp. 251-290.

- 신남민, 「東萊府使接倭使圖屏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7.
- 岩方久彦, 「19세기 朝鮮의 對日 易地通信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양보경, 「18세기 지리서·지도의 제작과 국가의 지방지배」, 『應用地理』20, 1997, pp. 21-42.
- 양흥숙, 「조선후기 東萊 지역과 지역민 동향: 倭館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_____, 「조선후기 왜관 통제책과 동래 지역민의 대응」, 『역사와 세계』37, 2010.6, pp. 105-148.
- _____, 「조선후기 영도의 공간적 특성과 경관의 조성」, 『한국민족문화』56, 2015, pp. 235-265.
- 윤용출, 「조선후기 동래부의 축성역과 동래부사」, 『東萊府使 : 忠과 信의 목민관』, 부산박물관, 2009, pp. 196-206.
- 윤참근, 강동진, 「도시적 맥락에서의 초량왜관 흔적 분석」,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15, 2014, pp. 125-147.
- 이미야, 「十八世紀 朝鮮後期 眞景山水-부산지방을 중심으로-」, 『釜山 廣域市立博物館 年報』13, 1990, pp. 113-121.
- _____, 「釜山·慶南地域 書畫家에 대한 一考察」, 『博物館研究論集』2, 1993, pp. 207-214.
- 이상엽, 「정조의 지방통치관련 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東方學』10, 2004, pp. 183-208.
- 이성훈, 「海夫 卞持淳과 19세기 전반 동래 지역 화단」, 『美術史學研究』278, 2013, pp. 97-123.
- 이승민, 「조선후기 대일무역상의 폐해와 己巳約條(1809)의 체결」, 『한일관계사연구』22, 2005, pp. 81-121.
- 이태호, 「眞宰 金允謙의 眞景山水」, 『美術史學研究』152, 1981, pp. 1-23.
- 이현주, 「조선후기재지화원소고(朝鮮後期在地畫員小考) -18세기 동래

- 재지화원변박(東萊在地畫員卞璞)의 관수회화(官需繪畫) 연구, 『文物研究』14, 2008, pp. 165-211.
- _____, 「朝鮮後期 慶尙道地域 畫員 研究」, 동아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 _____, 「조선후기 동래지역 화원 활동과 회화적 특성」, 『역사와 경계』83, 2012, pp. 37-70.
- 이훈, 「전근대 한일교류사 자료로서의 대마도종가문서(對馬島宗家文書)」, 『역사와 현실』28, 1998, pp. 313-331.
- 이훈상, 「조선후기 지방 파견 화원들과 그 제도, 그리고 이들의 지방형상화」, 『동방학지』144, 2008, pp. 305-366.
- 이훈상, 민선희, 「조선후기 동래의 지배 엘리트와 이에 관한 고문헌 자료」, 『항도부산』10, 1993, pp. 147-189.
- 이희권, 「朝鮮後期 暗行御史制를 통한 중앙정부의 지방통제정책」, 『전북사학』17, 1994, pp. 53-98.
- 장순순, 「朝鮮時代 倭館變遷史 研究」, 전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_____, 「近世 東아시아 外國人 居住地의 특징 - 부산의 草梁倭館과 長崎의 出島를 중심으로」, 『전북사학』27, 2004, pp. 45-76.
- _____, 「草梁倭館의 폐쇄와 일본 租界化과정」, 『일본사상』7, 2004, pp. 115-149.
- 정경주, 「부산·동래 유기 자료에 대하여(1)-조선후기 부산동래 기행시문을 중심으로-」, 『항도부산』28, 2012, pp. 271-313.
- _____, 「부산·동래 유기 자료에 대하여(2)-조선후기 부산 동래 기행시문을 중심으로-」, 『항도부산』29, 2013, pp. 299-343.
- 정예정, 「草梁倭館의 造營에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정은주, 「조선후기 繪畫式 郡縣地圖 연구」, 『문화 역사 지리』23, 2011, pp. 119-140.
- _____, 「계미(1763)통신사행의 화원(畫員) 활동 연구」, 『정신문화연구』

구』34, 2011, pp. 333-369.

조행리, 「朝鮮時代 戰爭記錄畫 研究 : <東萊府殉節圖> 作品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최경국, 「교토대학(京都大學) 다니무라문고(谷村文庫) 소장본 『朝鮮凶繪』 속의 초량왜관」, 『日本研究』60, 2014, pp.205-225.

최영희, 「鄭敎의 東萊府使接倭使圖」, 『美術史學研究』129·130, 1976, pp. 168-174.

한상권, 「역사 연구의 심화와 사료이용의 확대 : 암행어사 관련자료의 종류와 사료적 가치」, 『역사와 현실』6, 1991, pp. 374-397.

홍선표, 「조선후기 韓·日間 畫蹟의 교류」, 『미술사연구』11, 1997, pp. 3-22.

_____, 「近世韓日會畫交流史研究」,九州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9.

황재문, 「사환일기와 관직생활 : 암행어사 일기를 중심으로」, 『大東漢文學』30, 2009, pp. 41-78.

*일문 논저

단행본

九州国立博物館, 長崎県立対馬歴史民俗資料館 編, 『日朝交流の軌跡 : 重要文化財新指定記念 : 対馬宗家文書 8万点の調査を終えて』, 太宰府:九州国立博物館, 2012.

長崎県立対馬歴史民俗資料館 編, 『対馬宗家文庫史料絵図類等目録』, 長崎:長崎県教育委員会, 2012.

辛基秀, 『朝鮮通信使繪圖集成』, 東京:講談社, 1985.

辛基秀, 仲尾宏, 『(大系)朝鮮通信使 : 善隣と友好の記録』, 東京:明石書店, 1993.

_____, 『(大系)朝鮮通信使 : 善隣と友好の記録 . 第7卷 , 甲申·寶曆度』, 東京 : 明石書店, 1994.

佐賀県立名護屋城博物館 編, 『日韓交流の窓 : 釜山・蔚山・慶尙南道 歴史と風土の旅』, 佐賀縣: 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 2000.

悦話堂 編, 『韓日交流二千年』, 悦話堂, 1984.

高橋章之助, 中村金城, 『宗家と朝鮮/朝鮮風俗畫譜』, 東京: 龍溪書舎, 1996.

田代和生, 『新・倭館 : 鎖国時代の日本人町』, 東京: ゆまに書房, 2011.

東京国立博物館, 『朝鮮通信使 : 近世200年の日韓文化交流』, 東京: 国際交流基金, 1985.

논문

三宅理一, 夫学柱, 「倭館における港湾施設群の復元的研究」, 『学術講演梗概集. F-1, 都市計画, 建築経済・住宅問題 1999』, 1999, pp. 271-272.

夫学柱, 「近世釜山における草梁倭館の復元的研究 : その3 開市大庁指図の比較と編年(韓国・朝鮮・台湾, 建築歴史・意匠)」, 『学術講演梗概集. F-2, 建築・歴史 2001』, 2001, pp. 209-210.

_____, 「近世日朝通交拠点「草梁倭館」に関する指図の比較とその編年」,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609, 2006, pp. 147-154.

市川真光, 夫学柱, 「近世釜山における草梁倭館の復元的研究 : その4 館守家および開市大庁の位置的考察(東洋 韓国・中国, 建築歴史・意匠)」, 『学術講演梗概集. F-2, 建築・歴史 2004』, 2004, pp. 575-576.

_____, 「近世釜山における草梁倭館の復元的研究 : その5 館守家の空間構成について(東洋 韓国・中国, 建築歴史・意匠)」, 『学術講演梗概集. F-2, 建築・歴史 2004』, 2004, pp. 577-578.

鄭銀志, 「草梁倭館にみる日本人の服飾」, 『アジア文化研究』33(2007), pp. 245-262.

崔相振, 「「東萊府使接倭使圖」の再考-景觀描寫の分析と年代推定の限

界性を中心に」, 『韓國言語文化研究』12, 2006, pp. 39-64.
笹本光世, 「資料紹介(2) : 谷村文庫」, 『静脩』20, 1983, pp. 5-6.
鶴智子 外, 「近世釜山における草梁倭館の復元的研究 : その1 館守家
指図の比較と編年」, 『学術講演梗概集. F-2, 建築・歴史 2000』,
2000, pp. 357-358.
_____, 「近世釜山における草梁倭館の復元的研究 : その2 西館指
図の比較と編年」, 『学術講演梗概集. F-2, 建築・歴史 2000』, 2000,
pp. 359-360.

*기타 온라인 자료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e-kyujanggak.snu.ac.kr)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library.snu.ac.kr)

한국고전종합 DB(db.itkc.or.kr)

도판 목록

- 도 1) 변박(卞璞), <왜관도(倭館圖)>, 1783년, 紙本彩色, 132.0x58.0cm, 국립중앙박물관
- 도 1-1) <왜관도> 中 인장(印章) 및 관기(款記)
- 도 1-2) <왜관도> 中 복병막(伏兵幕)
- 도 1-3) <왜관도> 中 초량왜관(草梁倭館)
- 도 1-4) <왜관도> 中 초량왜관 동관(東館)
- 도 1-5) <왜관도> 中 초량왜관 서관(西館)
- 도 1-6) <왜관도> 中 초량왜관 밖
- 도 1-7) <왜관도> 中 초량객사(草梁客舍) 및 설문(設門)
- 도 1-8) <왜관도> 中 임소(任所)
- 도 1-9) <왜관도> 中 시탄고(柴炭庫)
- 도 1-10) <왜관도> 中 연향대청(宴享大廳)
- 도 1-11) <왜관도> 中 부채를 든 인물
- 도 1-12) <왜관도> 中 지계를 진 인물
- 도 2) 변박, <동래부순절도(東萊府殉節圖)>, 1760년, 絹本彩色, 145.0x96.0cm, 육군사관학교박물관
- 도 3) 변박, <부산진순절도(釜山鎭殉節圖)>, 1760년, 絹本彩色, 145.0x96.0cm, 육군사관학교박물관
- 도 4) 변박, <송하호도(松下虎圖)>, 1764년, 紙本淡彩, 123.3x54.5cm, 오사카역사박물관
- 도 5) 변박, <묵매도(墨梅圖)>, 1764년, 絹本淡彩, 108.0x34.6cm, 부산박물관
- 도 6) 변박, 「제정견사용전운(題淸見寺用前韻)」, 五言律詩, 紙本墨書, 33.5x54.0cm, 일본 세이켄지(淸見寺)
- 도 7) 변박, <유하마도(柳下馬圖)>, 1779년, 재질미상, 53.1x27.8cm, 일본 타카마쓰시(高松市) 호넨지(法然寺)
- 도 8) 변박, <임수아집도(臨水雅集圖)>, 《화원별집(畫苑別集)》 中, 紙本

水墨, 28.2x38.7cm, 국립중앙박물관

도 9) 사처석교비(四處石橋碑)와 탁본, 부산박물관

도 10) <동래부치도(東萊府治圖)>, 『봉래수창록(蓬萊酬唱錄)』, 1725년, 紙本彩色, 38.5x26.0 cm, 개인

도 11) 김유성(金有聲), <낙산사도(洛山寺圖)>, 《산수화조도(山水花鳥圖)》, 1764, 紙本淡彩, 165.7x69.9cm, 일본 세이켄지

도 12) 김윤겸(金允謙), <몰운대(沒雲臺)>, 《영남기행화첩(嶺南紀行畫帖)》, 18세기, 紙本淡彩, 33.7x54.5 cm,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도 13) <동래부사접왜사도(東萊府使接倭使圖)>, 19세기, 紙本彩色, 61.5x417.0cm, 국립중앙박물관

도 13-1) <동래부사접왜사도(東萊府使接倭使圖)> 中 제 10쪽 초량왜관

도 14) <동래고지도(東萊古地圖)>, 19세기, 紙本淡彩, 132.5x78.5cm,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도 15) <왜관지도(倭館地圖)>,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 1785-1800년, 紙本彩色, 35.7x 21.2cm, 규장각

도 16) <초량지회도(草梁之繪圖)>, 17세기 중·후반, 紙本墨書, 99.0x64.0cm, 일본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對馬歷史民俗資料館)

도 17) <초량왜관회도(草梁倭館繪圖)>, 18-19세기, 紙本著色, 260.2x162.4cm, 일본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

도 18) <부산화관준공도(釜山和館竣工圖)>, 18-19세기, 彩色筆寫, 크기 미상, 개인

도 19) <부산화관준공도>, 『조선사학(朝鮮史學)』, 1926년, 26.0x18.0c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영인본

도 20) <부산화관준공도(釜山和館竣工圖)>, 『(신편) 부산대관』 18-19세기, 크기·재질·소장처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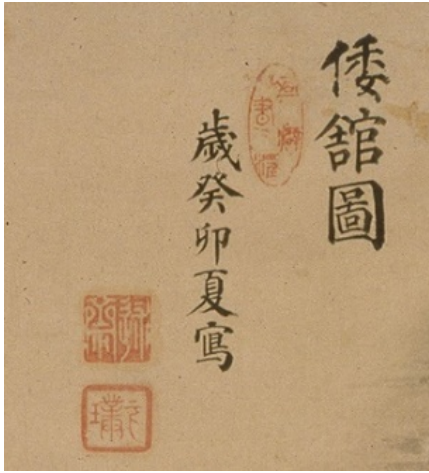
도 21) <초량왜관회도(草梁倭館繪圖)>, 18-19세기, 紙本著色, 145.7x102.7cm, 일본쓰시역사민속자료관

도 21-1) <초량왜관회도> 中 용두산(龍頭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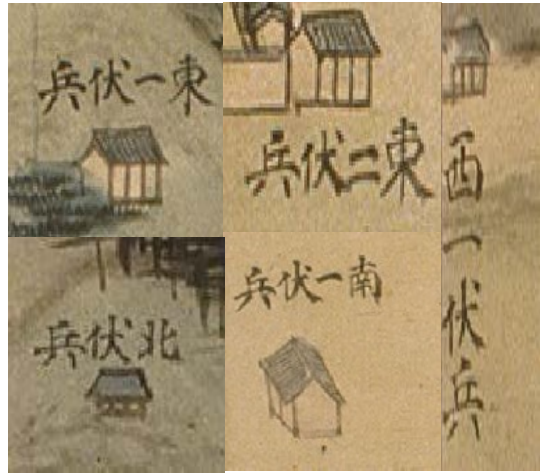
- 도 22) <초량왜관회도(草梁倭館繪圖)>, 18-19세기, 재질 미상, 155.0 x105.0cm, 개인
- 도 23) <부산포초량화관대회도(釜山浦草梁和館大繪圖)>, 1886년, 紙本, 78.4x50.0 cm, 도쿄대학교 사료편찬소(東京大学史料編纂所)
- 도 24) <부산포초량화관지도(釜山浦草梁和館之圖)>, 18-19세기, 紙本淡彩, 58.8x 1003.0cm, 국사편찬위원회
- 도 24-1) <부산포초량화관지도> 中 초량왜관
- 도 25) <조선도회(朝鮮圖繪)>, 19세기, 재질 미상, 30.8x1463.0cm, 쿄토대학교(京都大學) 타니무라 문고(谷村文庫)
- 도 26) <부산포왜관회도(釜山浦倭館繪圖)>, 『조선사료집진(朝鮮史料集眞) 下』, 1936년, 39.7x29.8cm,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도 27) <왜관도병풍(倭館圖屏風)>, 연대 미상, 6曲 1雙, 재질 미상, 69.4x171.6/ 69.4x194.0cm, 개인
- 도 28) <왜관도(倭館圖)>, 19세기 말, 판화, 크기 미상, 개인



도 1) 변박(卞璞), <왜관도(倭館圖)>, 1783, 紙本彩色, 132.0x58.0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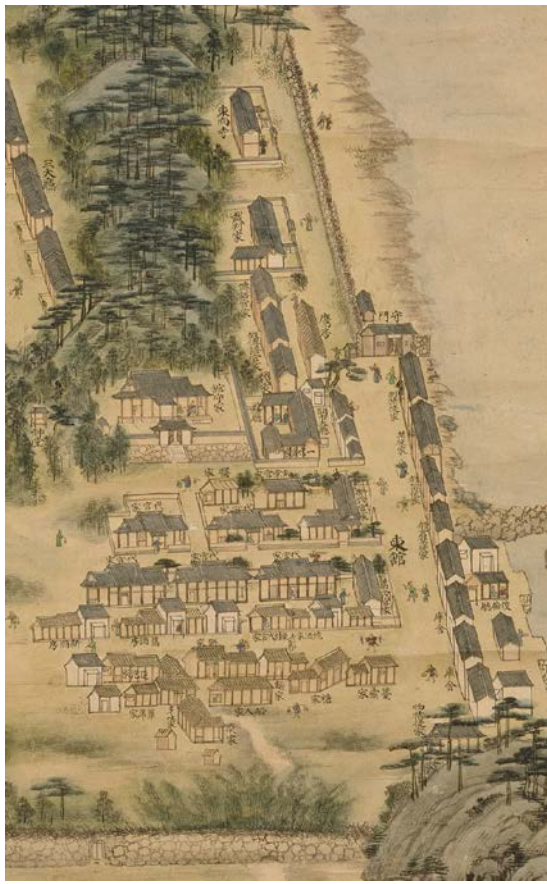
도 1-1) <왜관도> 中
인장(印章) 및 관기(款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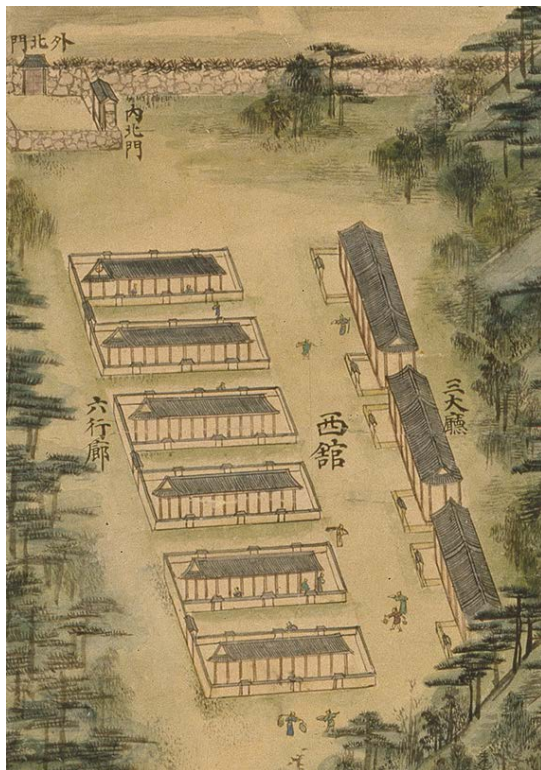
도 1-2) <왜관도> 中 북병막(伏兵幕)



도 1-3) <왜관도> 中 초량왜관(草梁倭館)



도 1-4) <왜관도> 中
초량왜관 동관(東館)



도 1-5) <왜관도> 中
초량왜관 서관(西館)



도 1-6) <왜관도> 中
초량왜관 밖



도 1-7) <왜관도> 中
초량객사(草梁客舍)
및 설문(設門)



도 1-8) <왜관도> 中 임소(任所)



도 1-9) <왜관도> 中 시탄고(柴炭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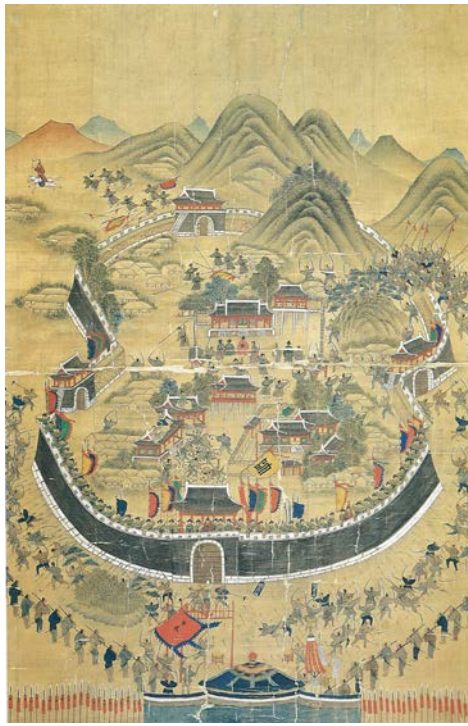
도 1-10) <왜관도> 中 연향대청(宴享大廳)



도 1-11) <왜관도> 中 부채를 든 인물



도 1-12) <왜관도> 中 지계를 진 인물



도 2) 변박, <동래부순절도(東萊府殉節圖)>, 1760년, 絹本彩色, 145.0x96.0cm, 육군사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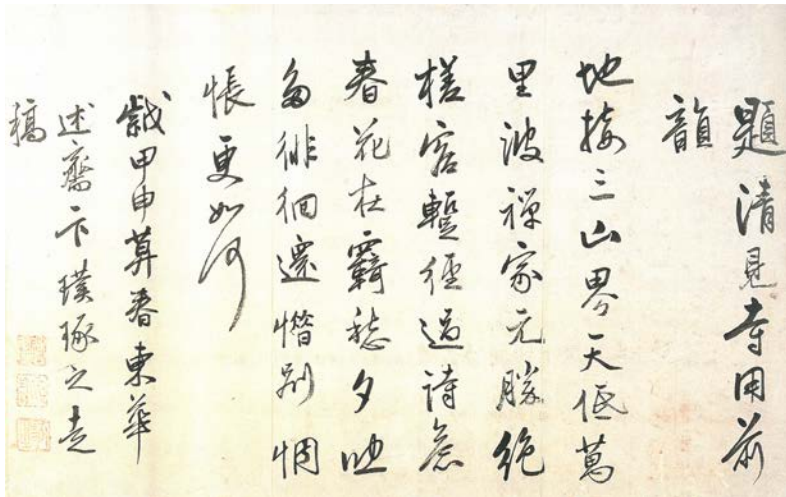
도 3) 변박, <부산진순절도(釜山鎭殉節圖)>, 1760년, 絹本彩色, 145.0x96.0cm, 육군사관학교박물관



도 4) 변박, <송하호도(松下虎圖),
1764년, 紙本淡彩, 123.3x54.5cm,
오사카역사박물관



도 5) 변박, <묵매도(墨梅圖)>,
1764년, 絹本淡彩,
108.0x34.6cm, 부산박물관



도 6) 변박, 「제청견사용전운(題淸見寺用前韻)」, 五言律詩, 紙本墨書,
33.5x54.0cm, 일본 세이켄지(淸見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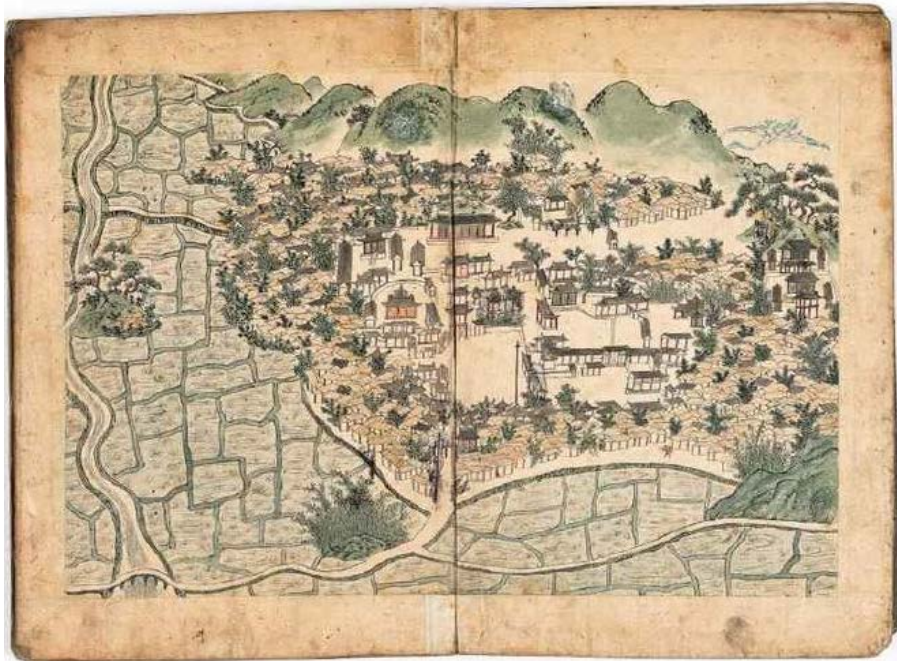
도 7) 변박, <유하마도(柳下馬圖)>, 1779년, 재질미상, 53.1x27.8cm,
일본 타카마쓰시(高松市) 호넨지(法然寺)



도 8) 변박, <임수아집도臨水雅集圖>, <<화원별집(畫苑別集)>> 中,
紙本水墨, 28.2x38.7cm, 국립중앙박물관



도 9) 사처석교비(四處石橋碑)와 탁본, 부산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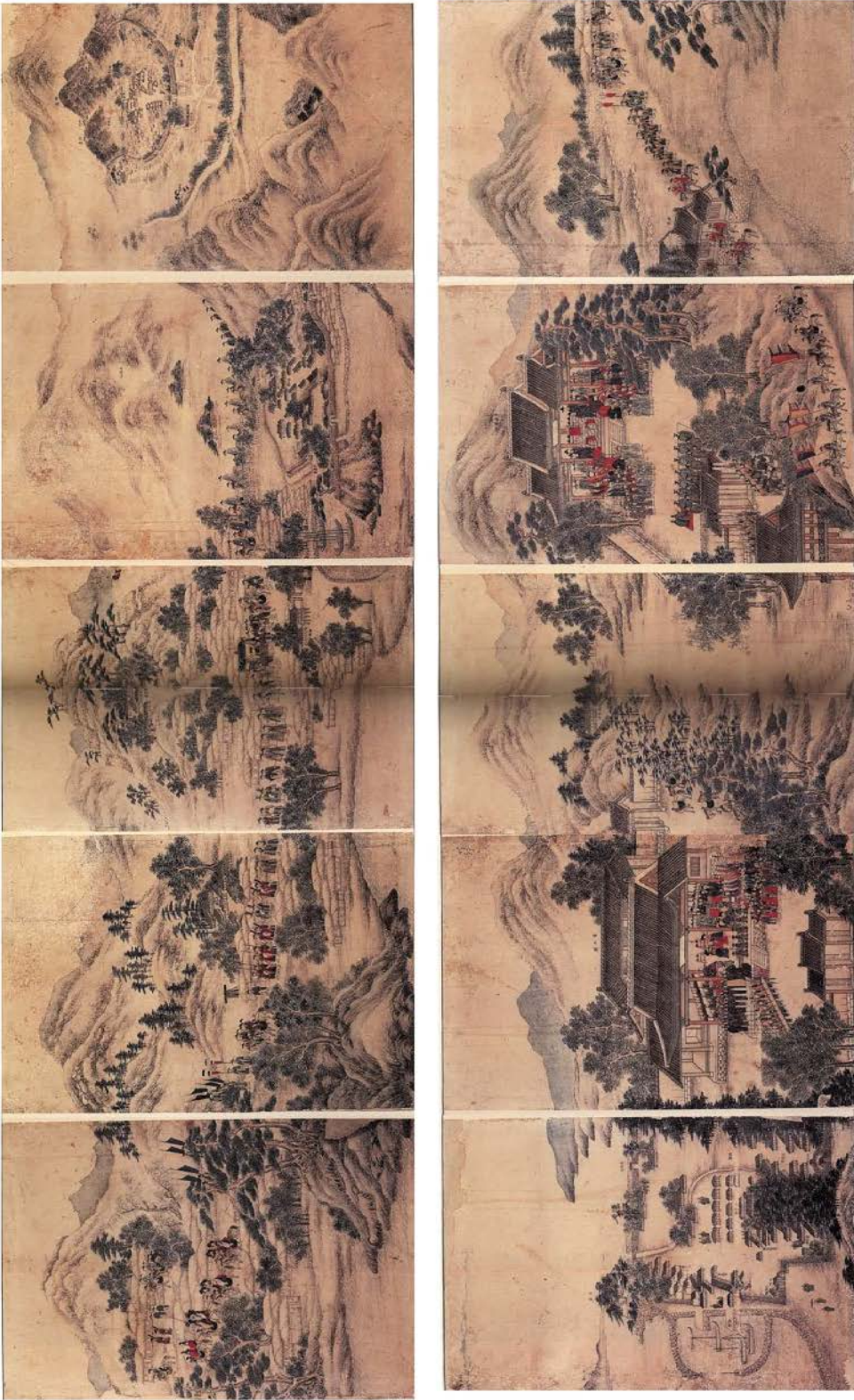
도 10) <동래부치도(東萊府治圖)>, 『봉래수창록(蓬萊酬唱錄)』, 1725년, 紙本彩色, 38.5x26.0 cm, 개인



도 11) 김유성(金有聲), <낙산사도(洛山寺圖)>, 《산수화조도(山水花鳥圖)》, 1764, 紙本淡彩, 165.7x69.9cm, 일본 세이켄지(淸見寺)



도 12) 김윤겸(金允謙), <몰운대(沒雲臺)>, 《영남기행화첩(嶺南紀行畫帖)》, 18세기, 紙本淡彩, 33.7x54.5 cm,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도 13 <동래부사점외사도(東萊府使接倭使圖)>, 19세기, 紙本彩色, 61.5x417.0cm, 국립진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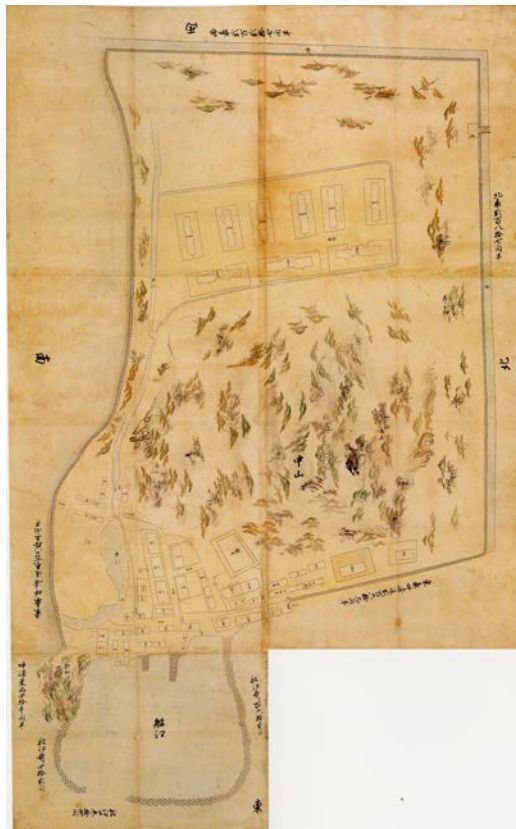
도 13-1) <동래부사접왜사도
(東萊府使接倭使圖)> 中
제 10쪽 초량왜관



도 14) <동래고지도(東萊古地圖)>, 19세기, 紙本淡彩, 132.5x78.5cm,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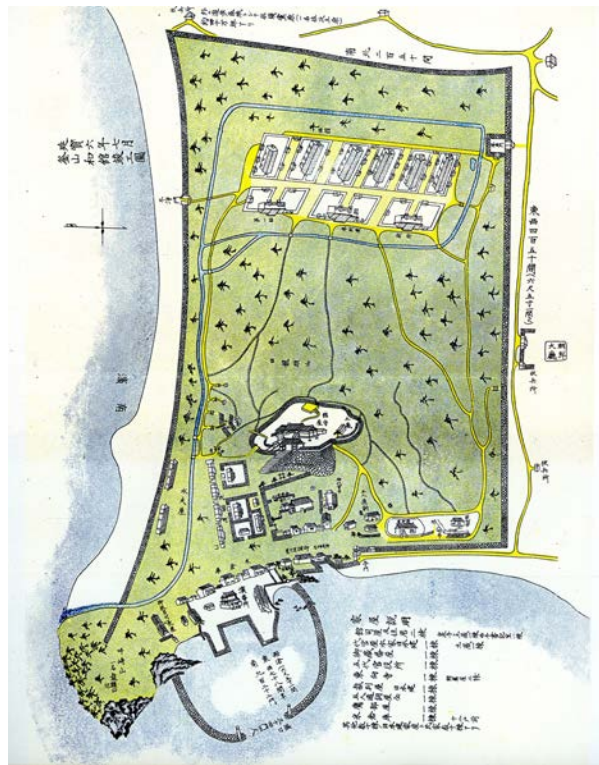
도 15) <왜관지도(倭館地圖)>,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 1785-1800년, 紙本彩色, 35.7x21.2cm, 규장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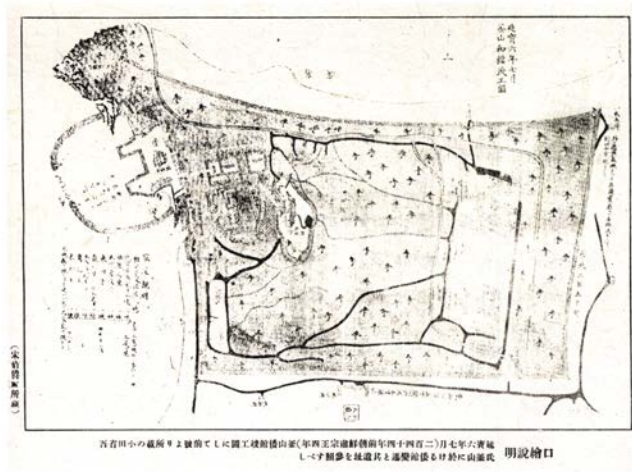
도 16) <초량지회도(草梁之繪圖)>, 17세기 중후반, 紙本墨書, 99.0x64.0cm, 일본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對馬歷史民俗資料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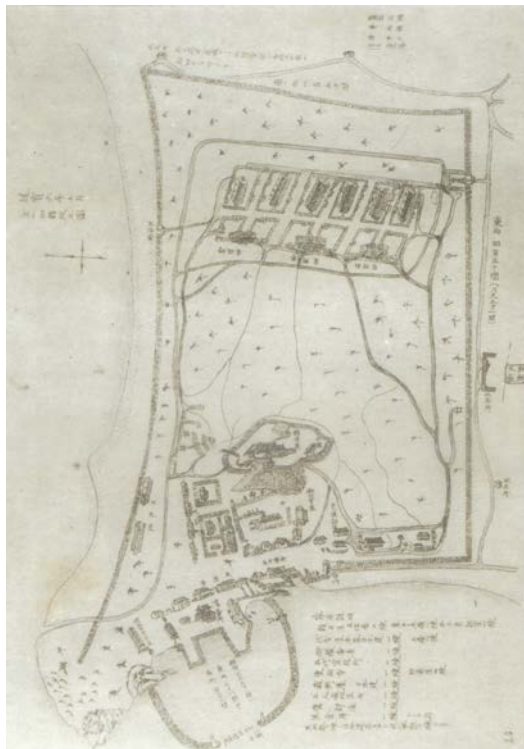
도 17) <초량왜관회도(草梁倭館繪圖)>, 18-19세기, 紙本著色, 260.2x162.4cm, 일본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



도 18) <부산화관준공도(釜山和館竣工圖)>, 18-19세기, 彩色筆寫, 크기 미상, 개인



도 19) <부산화관준공도>, 『조선사학(朝鮮史學)』, 1926년,
26.0x18.0c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영인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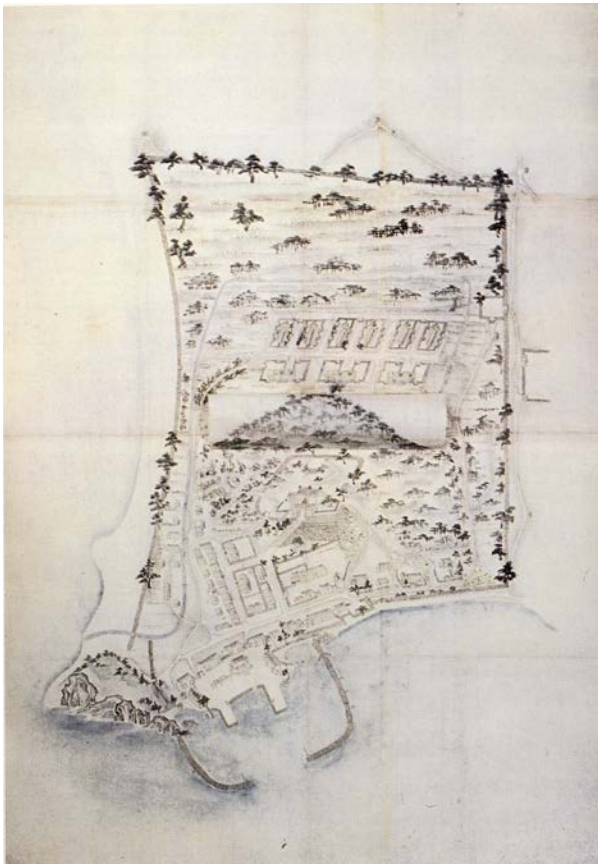
도 20) <부산화관준공도(釜山和館竣工圖)>, 『(신편) 부산대관』 18-19세기,
크기·재질·소장처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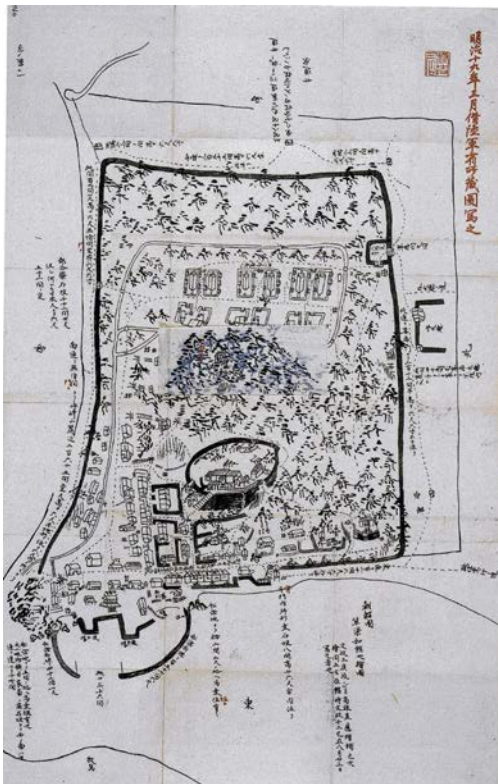
도 21) <초량왜관회도(草梁倭館繪圖)>, 18-19세기, 紙本著色,
145.7x102.7cm, 일본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



도 21-1) <초량왜관회도> 中 용
두산(龍頭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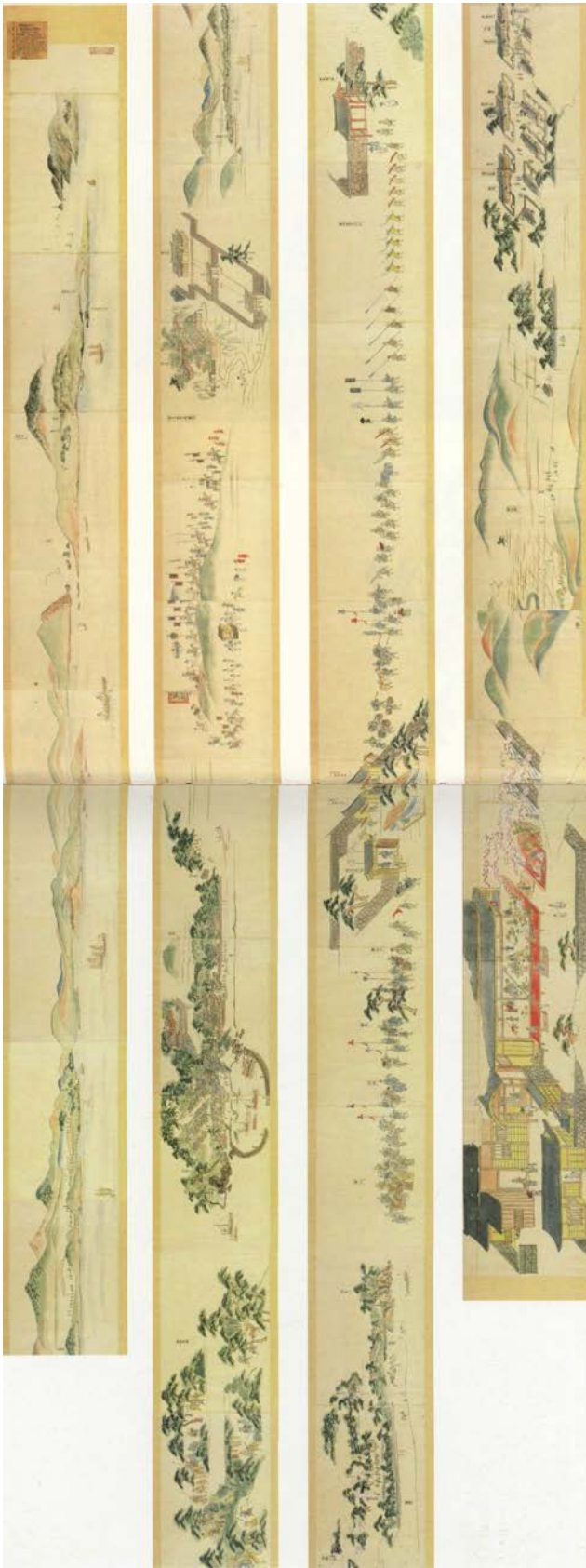
도 22) <초량외관회도(草梁倭館繪圖)>, 18-19세기, 재질 미상, 155.0x105.0cm, 개인



도 23) <부산포초량화관대회도(釜山浦草梁和館大繪圖)>, 1886년, 紙本, 78.4x50.0 cm, 도쿄대학교 사료편찬소(東京大学史料編纂所)



도 24) <부산포초량화관지도(釜山浦草梁和館之圖)>, 18-19세기, 紙本淡彩, 58.8x 1003.0cm, 국사편찬위원회



도 25) <조선도회(朝鮮圖繪)>, 19세기, 재질 미상, 30.8x1463.0cm, 쿄토대학교(京都大學) 타니무라 문고(谷村文庫)



도 26) <부산포왜관회도(釜山浦倭館繪圖)>, 『조선사료집진(朝鮮史料集眞) 下』, 1936년, 39.7x29.8cm,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



도 27) <왜관도병풍(倭館圖屏風)>, 연대 미상, 6곡 1雙, 재질 미상, 69.4x171.6/69.4x194.0cm, 개인



도 28) <왜관도(倭館圖)>, 19세기 말, 판화, 크기 미상, 개인

Abstract

A Study of *Waegwan do* by Byeon Bak

Yunhee Jo

Dep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aegwan do (倭館圖), dated 1783, now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s a picture depicting the Choryang Waegwan (草梁倭館), the trading and living quarters for the Japanese in Choryang (present-day Busan) in great detail. In the late Joseon period, the Waegwan (倭館) is the only place where Japanese people in Korea were allowed to live and carry out business and diplomacy. *Waegwan do* is an important painting because it shows us the Choryang Waegwan now vanished. *Waegwan do* has no other records except that it was painted in the summer of 1783 by Byeon Bak (卞璞, active mid-18th century). *Waegwan do* received little attention prior to this research. *Waegwan do* has been considered an official painting for Dongnaebu (東萊府 Dongnae County), describing the result of repairs and extensions of the building after its completion in 1678.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review the value of *Waegwan do* which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despite its art historical significance.

Byeon Bak was a painter for the local military division of Dongnaebu (東萊武廳) and left ten art works including paintings and calligraphies. He produced art works not only for Dongnaebu and local elites, but also for trade with Japan through the Choryang Waegwan. Given that most of his art works were commissioned, he must have worked primarily for the local authority. Byeon Bak elaborately painted *Waegwan do* with meticulous brush strokes that are rarely found in his other paintings. Compared with the documents of the *Jeungjeong Gyorinji* (增正交隣志, Records of Joseon Korea's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Expanded and Enlarged Edition) concerning architectural buildings, the Choryang Waegwan and other facilities were depicted almost exactly in *Waegwan do*. Furthermore, as Byeon Bak labeled

buildings in the painting, he must have had profound knowledge of the Choryang Waegwan.

The realistic rendering of the Choryang Waegwan and its related facilities is the most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Waegwan do*. *Waegwan do* describes only the Choryang Waegwan and other facilities related to Japanese trade. Examining the relevant records in the *Dongnaebu ji* (東萊府志 Gazetteer of Dongnae County), the facilities depicted in *Waegwan do* are separately categorized as public office buildings of Choryang (草梁公廨). Thus, *Waegwan do* is the visualization of the public office buildings of Choryang. The *Bongrae suchang rok* (蓬萊酬唱錄, Collection of Jo Seokmyeong's and His Friends' Poems and Writings), dated 1725, has records of Dongnaebu. A painting of Dongnaebu in the *Bongrae suchang rok* can be compared with *Waegwan do*. Unlike the painting in the *Bongrae suchang rok*, the representation of mountains and trees in *Waegwan do* strongly shows the styles of Jeong Seon (鄭叡, 1676-1759), the most eminent landscapist of the time. This is not found in previous paintings by Byeon Bak. It is assumed that Byeon Bak learned the styles of Jeong Seon through Kim Yuseong (金有聲, 1725-?) when Byeon Bak went to Japan as a member of the 1763 *Tongsinsa* (通信使, Korean emissaries to Edo Japan).

The depiction of mountains and trees in *Waegwan do* are similar to that in *Molundae* (沒雲臺) in *The Album of the Travel to Yeongnam Province* which Kim Yungyeom (金允謙, 1711-1775) painted after he traveled to Yeongnam Province (嶺南). Jeong Seon's style used by Byeon Bak was used by other Dongnae painters after Byeon Bak. This proves that the master's style was popular in this region well into the 19th century. *Waegwan do* is interesting because its subject is the Choryang Waegwan. Joseon Korea and Edo Japan produced paintings related to the Choryang Waegwan since its establishment in 1768 until the opening of the Busan port in 1876. These paintings have existed in both countries. Except for old county-maps, only three paintings of the Choryang Waegwan remain among paintings of the same subject produced by Joseon painters. However, eleven paintings of the Choryang Waegwan by Japanese painters have survived. These paintings are executed in various formats such as maps, scrolls, and folding screens. The comparison of paintings of the Choryang Waegwan produced in Joseon Korea and Edo Japan makes the characteristics of *Waegwan do* stand out. *Waegwan do* is the most

detailed and elaborate among the paintings depicting the Choryang Waegwan created in Joseon Korea and Edo Japan.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Waegwan do* is that some part of the Choryang Waegwan was destroyed by the fire of 1780, but the Choryang Waegwan was depicted undamaged in the painting. Byeon Bak must have been asked to paint the Choryang Waegwan in its perfect form, regardless of the destruction. This implies that there was a particular purpose in producing the painting. Some of the records of Dongnaebu and the Choryang Waegwan around the time the painting was produced in 1783 are important clues to resolving this issue. In February 1783, Sim Gitae (沈基泰, 1728-?) was dispatched as a royal inspector in Yeongnam Province under the order of King Jeongjo (r. 1776-1800). The Joseon government focused on this region as one of the areas that had problems with *gongjakmi* (公作米), the Korea-Japan trade rice. The *gongjakmi* issue persisted despite the government's attempts to solve the administrative problem in handling the rice. Given that the dispatching of Sim Gitae and the concerns of the government are related to the Choryang Waegwan, the production of *Waegwan do* would be correlated to these problems.

There is a similar case to help understand the production of *Waegwan do*. King Jeongjo commissioned Kim Hondo (金弘道, 1745-after 1806) and Kim Eunghwan (金應煥, 1676-1759) to paint a map of Tsushima (大馬島) in 1789. The Korean government's focus on Dongnaebu and the diplomatic tension with Japan related to Korean missionaries to Japan seem to have provided reasons for King Jeongjo to dispatch the court painters to create the map of Tsushima. The production of *Waegwan do* in 1783 can be understood in a similar way. *Waegwan do* is important because this picture shows the Choryang Waegwan which was the center of trade and diplomacy between Joseon Korea and Edo Japan. Dongnaebu tried not to cause trouble because it was not only one of the strategic points but also the place for Korea's diplomacy with Japan. A series of problems related to the Korea-Japan trade, which happened in Dongnaebu in 1783, would have made the Korean government pay attention to the Choryang Waegwan and *Waegwan do* was produced under such circumstances.

Keywords: *Waegwan do* (倭館圖), Byeon Bak (卞璞, active mid-18th century), Choryang Waegwan (草梁倭館), public office buildings of Choryang (草梁公廨), Dongnaebu (東萊府), royal inspector (暗行御史), *gongjakmi* (公作米)

Student Number: 2013-20066